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근로자

5호 5 월15일

평양 근로자사 발행 1958

근로자

조선 근로자들은 단결하라!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기관 잡지

第5号 (150)

1958년 5월 15일

내 용

황해 제철소 제 1호 용광로와 해탄로 조업식에서 한 연설

김 일 성

동무들!

래일 우리는 전 세계 근로자들의 전투적 위력과 국제적 련대성을 시위하는 5. 1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5. 1절의 전야에 우리 나라 흑색 금속 공업의 발전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는 황해 제철소 제 1호 용광로와 해탄로의 조업식을 거행하게 되는 것은 특별히 의의 깊은 일이며 이것은 우리들의 기쁨을 더 한층 크게 하여 줍니다. 새로 건설된 용광로와 해탄로는 우리 로동 계급과 전체 조선 인민에 대한 당신들의 가장 훌륭한 선물입니다.

나는 오늘 황해 제철소의 제 1호 용광로와 해탄로의 조업 개시에 제하여 제철소 복구 건설 사업에서 빛나는 로력적 위훈을 세운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와 공화국 정부의 이름으로 열렬한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전시에 황해 제철소는 우리의 기타 중공업 기업소와 마찬가지로 적들의 야만적 폭격에 의하여 혹심하게 파괴되였습니다.

정전후 당과 정부는 우리 공업의 기타 부문들과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하면서 본 제철소를 계단별로 건설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전후 복구기에 압연 강재에 대한 우리 인민 경제의 긴급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평로 제강 직장과 조강 압연 직장을 복구하였습니다.

그 후 당 중앙의 결정에 의하여 우리는 1년도 못 되는 짧은 기간내에 이와 같은 거대한 용광로와 해탄로의 건설 공사를 완성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조업을 개시하게 되는 용광로는 선철을 년 25만 톤까지 생산하며 해탄로는 콕스를 30만 톤 생산할 수 있는 거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비하여 같은 설비로써 2배 이상의 생산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철소의 복구 건설은 실로 방대하고도 어려운 공사였습니다.

용광로와 해탄로의 건설을 위하여 1만 톤 이상의 철골을 제작 조립하였으며 선로를 새로 28키로나 부설하였고 600대 이상의 각종 기계 설비들을 조립하였습니다.

용광로와 해탄로 건설에 필요한 방대한 기자재를 공급하며 우리가 일찌기 경험하지 못한 복잡한 기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중첩되는 난관들을 타개하지 않으면 안 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우리 로동 계급이 자기의 애국적 열성과 무궁무진한 창조적 재능을 발휘함으로써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이 어려운 공사를 기한내에 능히 완성하리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영웅적 위훈으로써 우리 당의 신임에 훌륭히 보답하였습니다.

오직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이 당과 정부의 결정을 받들고 불면 불휴의 헌신적 투쟁을 전개함으로써만 페허 우에서 이 어렵고도 방대한 건설 공사를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용광로의 건설 과정에서는 수 많은 로력 영웅들과 로력 혁신자들이 배출되였습니다. 그들은 전체 로동자들의 선두에 서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작업을 담당하였으며 당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으로써 복잡한 기술적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였으며 힘에 겨운 난공사들을 처리하였습니다.

제관공 원 도중, 리 문관 동무들과 연공 임창호 동무를 비롯한 전체 용광로 건설 로동자들은 고도 60메터의 공중에서 모진 추위를 무릅쓰고 2개월 간이나 동기 고소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용광로의 로정 설비를 지상에서 조립하여 올리는 등 놀라운 창발성을 발휘하였습니다.

또한 축로공 홍 도관 동무를 비롯한 우리 로동자 동무들은 엄동 설한의 악조건을 무릅쓰고 1만 1천 톤에 달하는 막대한 량의 내화벽돌을 처리하면서 쏘련의 가장 선진적인 기술에 토대한 해탄로 건설에 성공하였습니다.

최 윤명, 리 문관 동무들을 비롯한 용접공들은 낡은 용접 방법을 버리고 대담하게 선진적 용접 방법을 채용함으로써 공사 기일을 3분의 1로 단축시키는 커다란 공적을 세웠습니다.

황해 제철소의 용광로와 해탄로 건설의 복잡하고 방대한 공사는 설계로부터 기계 설비의 제작 및 시공에 이르기까지 일체 건설 조립 작업이 우리 로동자들과 기술자들 자신의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청소한 기술자들은 쏘련의 선진 기술과 경험을 세심히 연구함으로써 일제로부터 물려 받은 제반 기술적 결함을 근본적으로 퇴치하고 용광로와 해탄로는 물론 용수 동력 계통까지도 완전히 선진 기술에 기초하여 설계하였습니다.

제철소의 복구 건설은 우리의 전체 기간 공업 부문들과 거기에서 일하는 우리의 전체 로동자들과 기술자들의 공동의 로력과 전 인민적인 운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일 북중, 룡성 등 기계 제작 공업 부문 기업소들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건설 건재 부문 및 교통 운수 부문의 로동자들이 자기의 헌신적 투쟁으로써 방대한 기자재를 제때에 보장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또한 황해북도와 송림시의 농민, 학생, 가정 부인에 이르기까지 전체 근로자들이 군중적 로력 투쟁으로써 당신들을 방조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는 이 웅장하고도 위력한 제철소를 가지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나는 이 기회를 리용하여 황해 제철소의 건설에 직접 간접으로 방조한 모든 로동자들과 근로자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무들은 제철소의 복구 건설을 통하여 그 무엇으로써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을 축적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술자들은 자체의 력량으로 능히 현대적 제철소를 설계할 수 있게 되였으며 우리의 기계 제작 공업은 그에 소요되는 설비를 능히 생산할 수 있게 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로동자들은 가장 복잡한 구조물과 설비들을 능히 조립할 수 있는 기능을 소유하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 흑색 금속 공업의 금후 발전에 있어서 고귀한 밑천으로 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공업이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 섰다는 뚜렷한 증거이며 우리가 능히 5개년 계획의 위대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입니다.

제철소의 건설에서 당신들은 당과 혁명에 대하여 무한한 충직성을 발휘하였으며 우리의 로동 계급이 우리 나라의 령도적 계급으로서 자기의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믿음직하게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황해 제철소의 복구 건설은 우리 로동 계급의 불굴의 투지와 영웅성과 무궁무진한 창발력을 다시 한번 내외에 시위하였으며 그들 앞에는 극복하지 못할 어떠한 난관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 주었습니다.

당신들은 황해 제철소의 복구 건설을 통하여 장기간 우리 공업의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던 식민지적 편파성을 청산하고 낡은 기업소를 현대적 기술로 장비하였으며 공정간의 가장 합리적 균형을 가진 새로운 야금 공장으로 전변시킴으로써 우리 인민 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촉진시키는 거대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오늘 여기에 웅자를 나타내고 있는 황해 제철소는 나라의 주인으로 된 우리 로동 계급의 자랑이며 그의 위력의 상징입니다.

전체 조선 인민은 당신들이 세운 위훈에 의하여 무한히 고무되고 있으며 승리에 대한 신심을 더욱 굳게 하고 있습니다.

동무들! 우리는 전후 3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과 위대한 쏘련을 비롯한 형제적 사회주의 국가들의 막대한 경제적 및 기술적 원조에 의하여 파괴된 인민 경제를 복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사회주의적 경제의 기초를 가일층 공고화하기 위한 물질적 토대를 구축하여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인민 경제 각 분야에서 제 1차 5개년 계획의 두번째 해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황해 제철소의 복구 건설은 나라의 생산력을 가일층 발전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경제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함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변으로 되며 인민 경제의 지도적 부문인 우리 공업 발전의 중요한 리정표로 됩니다.

당은 제 1차 5개년 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계속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할 목적으로 흑색 금속 공업, 기계 제작 공업, 화학 공업 및 건재 공업의 발전과 연료—동력 기지의 강화에 커다란 력량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기초를 축성하고 우리 인민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강화하며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흑색 금속 공업이 가지는 의의는 실로 거대합니다.

흑색 금속 공업은 중공업중에서도 기간적인 부문입니다. 흑색 금속 공업의 발전이 없이는 기계 제작 공업과 기본 건설의 장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인민 경제의 가일층의 발전과 인민 생활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이 시종일관 흑색 금속 공업의 발전에 심중한 주의를 돌리고 있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후 기간에 흑색 금속 공업 부문은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을 관철시킴에 있어서 커다란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아직 압연 강재에 대한 날로 장성하는 우리 인민 경제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기계 제작 공업은 질 좋은 각종 규격의 강재를 보다 많이 보내 줄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으며 철도, 항만, 광산, 탄광, 벌목장, 관개 공사장들에서는 각종 레루와 철근에 대한 요구가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전국 각지에서 광범히 전개되고 있는 조립식 건설은 소형 환강과 철선 생산을 결정적으로 증대시킴이 없이는 보장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공장과 주택 건설에는 각종 형의 와사관과 인발강들이 요구되며 또한 각종 강관들이 대량으로 요구됩니다.

5개년 계획 기간에 우리는 흑색 금속 공업을 급속히 발전시킴으로써 각종 강재에 대한 국내 수요를 기본적으로 자체로 해결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 제 1차 대표자회는 흑색 금속 공업 부문에서 1961년에 이르러 70만 톤의 선철과 20만 톤의 립철과 67만 톤의 강철과 50만 톤의 강재를 생산할 방대한 과업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있어서 당과 정부는 황해 제철소에 커다란 임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무들은 5개년 계획 실행에 있어서 황해 제철소가 부담하고 있는 중대한 임무를 성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시급히 선진 기술에 정통함으로써 신설된 용광로와 해탄로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투쟁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강관에 대한 인민 경제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15만 톤 능력의 후강판 압연 직장과 6만 톤 능력의 박강판 압연 직장의 건설 공사에 착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1959년 3.4 분기까지 후강판 압연 직장의

건설을 완공하며 2.4 분기까지 박강판 압연 직장의 일부 조업 개시를 보장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동시에 30만 톤 능력의 분괴 압연 직장을 건설함으로써 레루에 대한 철도 부문의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겠습니다.

또한 1960년까지 제 2호 용광로와 제 2호 해탄로 건설을 완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방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실천함으로써 5개년 계획 말에 가서 황해 제철소를 선철 50만 톤, 강철 45만 톤, 압연 강재 40만 톤의 생산 능력을 가진 우리 나라 흑색 금속 공업의 가장 강력한 기지로 전변시켜야 하겠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나라 흑색 금속 공업 부문의 기타 기업소들의 과업에 대하여서도 몇 마디 말하려 합니다.

당과 정부는 우리 나라 흑색 금속 공업의 계속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김책 제철소를 전반적으로 확장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새로운 강력한 야금 공업 기지를 건설할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과업을 실행하기 위하여 김책 제철소에서는 시급히 제 2호 용광로 복구 공사에 착수하여 명년 1.4 분기에 완공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새로 제강 직장 건설에 착수하여 200톤 평로 2 기를 건설해야 할 것이며 제 2차 5개년 계획 기간에 가서는 제강 직장을 더욱 확장하며 각종 압연 직장을 신설하는 등 방대한 건설 공사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김책 제철소는 기본적으로 우리 나라의 기술 력량으로써 건설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1961년 초부터 황해 제철소의 건설 력량은 김책 제철소 건설에 전면적으로 돌려져야 하겠습니다.

지금 성진 제강소에서는 우리 나라에 대한 쏘련의 무상 원조의 일부로 전반적 개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조강 압연 직장 건설 공사를 촉진시킴으로써 그 중 조강 압연 계통은 금년내로 완공하도록 보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강선 제강소에서는 총 30만 톤의 각종 중 소 형의 압연 강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조강 직장을 개선 확장하는 공사를 금년내에 기본적으로 완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지금 대량으로 요구되는 소형 환강과 철선은 주로 강선 제강소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강선 제강소에서는 소형 환강의 생산을 급속히 증대시키기 위하여 기술 수준을 백방으로 제고하며 철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신기를 증설하여 1959년에 가서 3만 톤 이상의 철선 생산 능력을 구비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강관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5개년 계획 기간에 각종 강관을 4만 톤 이상 생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비들로써 장비된 공장을 신설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주요한 제강 원료인 파철 자원은 점차 고갈되여 가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립철 생산을 확장하는 문제가 극히 중요하게 제기됩니다. 평로나 전기로를 불문하고 제강 원료로서는 선철보다 립철이 우월합니다. 립철 생산을 확장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자원 상태로 보나 흑색 금속 공업의 자립적 토대를 강화하는 견지로 보나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청진 제강소의 립철 생산을 강화할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가까운 장래에 서부 지방 적당한 곳에 립철 공장을 건설할 것을 예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자원 상태로 보아 전기 제철 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학자들과 제철 공업 부문 일'군들은 전기 제철 시험 공정을 시급히 건설하여 실험 사업을 진행하며 앞으로 전기 제철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추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흑색 금속 공장들을 건설 확장하고 그의 생산 규모를 증대시키기 위하여서는 철광산들을 이에 병행시켜 개발하는 사업에

집중한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우리의 흑색 금속 공업에 철광석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무산 광산과 천동, 하성, 은률 등 철광산들을 점차 확장하며 함남도 허천 지구의 철광산 개발도 예견해야 하겠습니다.

흑색 금속 공업 부문 앞에 제기되고 있는 이 모든 방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이 부문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이 이미 얻은 승리를 더욱 공고화하며 지난 기간에 축적한 고귀한 경험을 옳게 리용하여 우리 앞에 가로 놓인 모든 난관을 용감하게 극복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영웅적 로동계급을 위수로 한 전체 근로자들은 우리 당 제 1차 대표자회 결정에 무한히 고무되면서 커다란 신심을 가지고 5개년 계획의 가장 어려운 난관을 돌파하기 위하여 모든 정력과 정열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의 선두에는, 가혹한 전쟁과 장엄한 건설 투쟁에서 우리를 항상 승리에로 인도하였으며 계속 인도하고 있는 조선 로동당이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난관 앞에서 굴할 줄 모르며 두려움을 모르는 영웅적 로동 계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페허 우에서 힘차게 일어 섰으며 새로운 기술로 개건 확장된 자기의 튼튼한 공업 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로동 계급이 자기에게 부과된 5개년 계획의 과업 수행에서 새로운 거대한 승리를 달성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우리 나라의 전체 근로자들과 어깨를 나란이 하고 모든 애로와 난관을 극복함으로써 당과 정부가 당신들에게 부과한 중대한 과업을 영예롭게 수행하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은 우리 당 중앙 위원회의 주위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나갑시다.

전체 인류의 일치한 요구

지난 3월 31일, 모든 종류의 원자 및 수소 무기 시험을 일방적으로 중지할 데 대한 쏘련 정부의 조치는, 전체 인류에게 헤아릴 수 없는 재난과 불행을 가져다 줄 원자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며 국제 긴장 상태를 완화시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력사적 조치로 된다. 이러한 력사적 조치는 쏘련의 인공 지구 위성 발사후 처음으로 되는 커다란 세계적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전 세계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세계의 여론은 쏘련의 이 력사적인 조치를 국제적 분위기를 결정적으로 개선하는 전환의 시초로 평가하고 있다.

전체 조선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여 우리 공화국 정부는 4월 10일 부 자기 성명에서 《이러한 엄숙한 시기에 모든 종류의 원자 및 수소 무기 시험을 일방적으로 금지한 쏘련의 주동적 조치가 세계 평화와 안전을 공고화하는 위업에 새로운 커다란 기여로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전적으로 지지 찬동하였다.

금번 쏘련이 취한 주동적 조치가 전 세계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우연한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쏘련의 이 력사적 조치가 전 세계 인민들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특히는 원자 전쟁 방지와 핵 무기의 즉시 중지에 대한 일치한 념원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의 모든 선량한 사람들은 제국주의 침략 계층에 의하여 지속되고 있는 핵 무기 시험을 원하지 않으며 그의 조속한 금지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모든 사실이 말하여 주고 있는 바와 같이 핵 무기 시험의 계속은 불가피적으로 군비 경쟁을 격화시키며 핵 무기 분야에서 더욱더 무서운 살륙 수단을 만들어내게 한다. 그 뿐만 아니라 핵 무기 시험의 지속은 결국에 가서 무시무시한 원자 전쟁의 발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핵 무기 시험의 계속과 군비 경쟁의 격화에 의하여 초래될 수 있는 핵 전쟁이 인류에게 얼마나 커다란 불행과 재난을 가져 올 것인가는 1945년 8월에 있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의 참상만을 회상하여도 충분할 것이다. 이 때 미국의 원자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두 도시의 주민수는 무려 50만 명 이상이였다. 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인간 도살 수단인가!

그런데 현대의 원자 폭탄은 12 여 년 전에 일본에서 폭발된 폭탄의 위력을 훨씬 릉가하고 있다. 히로시마에 던졌던 폭탄의 위력이 2만 톤의 강폭약의 위력에 해당한다면 현대의 원자 폭탄은 실로 100—500만 톤의 강폭약의 위력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와서는 원자 폭탄보다 훨씬 더 위력한 수소탄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제 2차 세계 대전 기간에 미국 항공대는 독일에 대하여 270만 개, 일본에 대하여서는 16만 개의 폭탄을 던졌다. 결과에 많은 도시들과 산업 중심지들이 ·파괴되였으며 수백만의 인명이 희생되였다. 그런데 제 2차 세계 대전 기간에 독일에 대하여 던졌던 미국의 모든 폭탄과 그 총폭발력은 하나의 자그만한 수소탄의 그것과 비등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상기하여서도 우리들은 오늘 전체 인류가 원자 전쟁을 초래할 수 있는 핵 무기 시험의 즉시 중지를 그렇게도 일치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극히 당연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핵 무기 시험의 지속은 그것이 원자 및 수소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의 위험성을 조성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중요하게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원자 및 수소탄 폭발의 작용 지대내의 사람들은 물론, 그것이 어디서 폭발되던지 간에 지구상의 모든 주민들의 건강에 큰 해독을 준다는 데 있다. 현대 과학이 증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핵 무기 시험시에 방출되는 방사선은 사람들과 토지 및 생물 등에 불치의 해독을 끼치며 나아가서는 후대들의 정상적 발육에 큰 해독을 준다.

이 모든 사실들은 핵 무기 시험의 조속한 중지가 세계 평화를 공고화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우리 후대들의 행복을 보장하는 절박한 인도주의적 조치로 된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 준다. 때문에 오늘날 전 세계 인민들은 핵 무기 시험의 즉시 중지를 견결히 요구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위대한 쏘련이 모든 종류의 핵 무기 시험을 일방적으로 중지할 데 대한 주동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다시 한번 세계 인민들의 일치한 념원에 대답하였으며 핵 군비 경쟁의 종식을 위한 첫 걸음을 개척하여 놓았다.

오늘날 전체 인류가 그처럼 갈망하며 요구하고 있는 핵 무기 시험 중지를 위하여 금번 쏘련 정부가 취한 주동적 조치는 사회주의 제도의 본질에서 흘러 나오는 평화 애호적 대외 정책과 사회주의적 인도주의의 훌륭한 구현이다. 전체 인류의 운명에 대한 항시적인 배려는 쏘련을 선두로 하는 전체 사회주의 진영 국가들의 국제적 립장의 기초이며 중요한 특성이다. 오직 사회주의만이 인류를 온갖 착취와 억압에서, 전쟁과 그에 대한 공포에서 해방케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 주었다.

물론 쏘련은 모든 원자탄의 비밀과 심지어는 세계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하고 있는 대륙간 탄도 로케트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평화 애호적 대외 정책과 사회주의적 인도주의의 정신 밑에 이러한 수단들을 타국 내정을 간섭하기 위하여서나 어떠한 다른 침략적 목적에 리용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적은 없었으며 생각할 수도 없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 나라에서는 기술의 모든 기적, 문화의 모든 전취물은 전 인민적 소유로 된다. 그리하여 인류의 지성과 천재가 억압의 수단, 착취의 수단으로는 결코 되지 않는다. 또한 그것들은 침략의 수단으로도 되지 않을 것은 물론이다.

바로 이러한 평화 애호적이고 인도주의적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위대한 쏘련은 핵 무기 시험의 조속한 중지를 위하여 부단히 투쟁하여 왔다. 쏘련은 원칙적으로 군비 축소와 핵 무기 생산 및 사용의 금지를 주장하여 왔으며 하고 있다. 쏘련은 특히 핵 에네르기를 평화적 목적에 리용할 것과 핵 무기 생산 및 사용의 금지를 위하여 10 여 년간 꾸준히 싸워 왔다. 그러나 이러한 분쟁 문제 해결이 궁지에 빠지게 된 현 사태를 타산하여 그 해결의 실오리로써 쏘련은 핵 무기 시험의 즉시 중지를 제의하고 그것의 합의 도달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핵 무기 금지에 대한 주동적 주장은 세계의 평화 위업을 위한 쏘련의 거대한 공헌으로 된다.

쏘련은 유엔 총회에서와 유엔 군비 축소 위원회 분과 위원회에서, 서방 국가 국회 및 정부 수뇌자들과의 서신 교환에서 해당 국가에서 2—3년 내에 핵 무기 시험을 즉시 중지할 것을 여러 번 제의한 동시에 이에 대한 국제적 감독의 실행을 주장하여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쏘련 최고 쏘베트는 쏘련, 영국 및 미국이 1958년 1월 1일부터 원자 및 수소 무기의 시험을 중지할 데 대한 의무를 질 것을 제의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쏘련 인민들의 평화에 대한 불굴의 투지와 념원, 그러고 전체 인류에 대한 쏘련의 따뜻한 배려의 훌륭한 표현이다. 더우기 금번 쏘련이 취한 주동적 조치는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 전 세계 인민들에게 평화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열어 주었다. 여기에 쏘련이 인류 앞에 기여한 또 하나의 거대한 공헌이 있다.

그러나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 침략 계층은 전연 반대되는 립장을 취하고 있

다. 그들은 《랭전》 정책을 고집하면서 수차에 걸친 쏘련 정부의 평화 애호적 제의들을 거절함으로써 자기들의 전쟁 상인적 진면모를 더욱 뚜렷이 세계에 드러 내놓고 있다. 핵 무기 시험의 중지를 거부하며 그의 시험을 지속하면서 계속 군비 경쟁과 원자 전쟁 모험에 광분하고 있는 제국주의자들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는 명백하다.

제국주의 침략 계층은 핵 무기 시험의 중지를 거부하며 군비 경쟁과 국제 긴장 상태를 견지함으로써 거대한 리윤을 획득하려고 한다. 바로 이러한 목적하에 독점체들은 원자 및 수소 무기 경쟁과 함께 독일, 중근동, 대만, 조선, 월남 등 세계 각처에 국제 긴장 상태와 전쟁의 온상을 계속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핵 무기 사용 및 생산의 금지와 그의 시험의 중지를 반대하고 있는 제국주의자들의 발악은 전쟁과 침략에서 그들이 당면하게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위기의 출로를 찾아 보려는 데 있다. 서구 렬강의 최후 발악적인 군비 경쟁은 인민들의 경제 생활을 저락시켰으며 자본주의 제도 자체를 극도의 불안정 상태에 몰아넣고 있다. 전에는 생활 필수품들을 생산하면서 리윤을 짜내던 것이 지금에 와서는 인간 도살 수단을 만들어 내면서 리윤을 획득하고 있다. 군비 경쟁, 경제의 군사화는 자본주의의 기본 모순을 해결할 수 없으며 자본주의의 고질을 없앨 수는 도저히 없다. 때문에 경제의 군사화로써 직면한 경제적 위기를 타개하려는 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증대되는 경제적 위기는 현재 대서양 뿔럭 참가국들의 모든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군사화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고 있다. 오늘날의 제 사실에 비추어 보아 이 나라들의 경제의 군사화가 강화될수록 경제적 파산이 더욱 심하게 될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경제의 군사화와 군비 경쟁의 격화는 이것을 고취하고 있는 서구 렬강의 멸망을 촉진시킬 뿐이다. 왜냐 하면 경제의 군사화는 그것이 다만 경제적 요인으로써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군사적 충돌까지 초래할 수 있는 요인으로도 되기 때문이다. 즉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경제의 군사화는 그것이 일정한 시기에 가서 독자적 세력으로 화하며 불가피적으로 전쟁에까지 비약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력사적 크라이막스가 미국을 비롯한 여러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성숙되고 있다. 모든 사실들은 만일 또 다시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이 최후의 전쟁이라는 것을 예고하여 주고 있다. 오늘 세계 자본주의는 바로 이러한 력사적 심판대 앞에 서고 있다.

사회 발전의 변증법은 사멸하여 가는 계급의 종말이 가까와 오면 올수록 그의 발악이 더욱 심하여 진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진리가 오늘날 원자 및 수소 무기 시험의 즉시 중지를 반대하고 군비 경쟁을 격화시키려는 미제의 침략적 책동의 본성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은 세계 자본주의에게 평화적 공존과 경쟁을 제의하고 있으며 호상 호혜의 원칙하에 통상 관계를 맺을 것을 제의하고 있다.

그러나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 침략 계층은 주요한 위협을 전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평화에서 보고 있다. 그들은 평화적 경쟁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들의 모험주의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제국주의 침략 계층은 조성된 력량 관계의 구체적인 타산도 없이 이미 파산된 《힘의 립장에 선》 정책을 계속하면서 새로운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다.

최후 멸망에 직면한 제국주의 침략 계층은 침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들은 원자 및 수소 무기를 사용하여 죽어 가는 자본주의 제도를 구원하며 력사 발전을 억제하려고 갖은 애를 다 쓰고 있다. 이러한 침략적 기도는 전체 인류에게 있어서는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가져 온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때문에 전쟁 히스테릭크한 제국주의자들의 욕망과 평화를 갈망하는 인민들의 지향간에는 불상용적인 모순이 첨예화되여 가고 있다. 전 세계 인민들은 전쟁 모험을 반대하여 단호히 항거하고 있다. 인민들의 항거를 반대하여 그들은 폭력으로부터 대중적 살륙에로 전환하고 있다. 레닌은 《대외 정책에 있어서나 대내 정책에 있어서나를 막론하고 제국주의는 민주주의의 파괴에로, 반동에로 지향하고 있다》 (전집, 23권, 31페지)라고 지적하였다.

제국주의 침략 계층은 인간 증오에 가득찬 전쟁 히스테릭크한 행동을 감행하면서도 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하여서는 가장 철면피한 방법으로써 《평화》니 《자유 세계》니 《반쏘 반공》이니 떠들고 있다. 그들은 전체 인류가 그렇게도 요구하고 있는 핵 무기 시험 중지를 거부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 구실들을 조작해 냈다. 그들은 핵 무기 시험 중지에 대한 협정을 거부하기 위하여 그러한 시험들의 목적이 방사능이 약한 그 어떤 《깨끗한》 핵 폭탄을 제작하는 데 있다는 듯이 떠들어 왔으며 동시에 그들은 쏘련과는 핵 무기 시험 중지에 대한 《합의 도달이 곤난하다》는 듯이 세계 여론을 기만하려 하였다. 이러한 기만적 책동들은 그들이 핵 무기 시험 중지를 원하지 않으며 계속 군비 경쟁을 격화시키려는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뿐이다.

쏘련 정부가 취한 금번의 주동적인 조치로 말미암아 제국주의 침략 계층들의 이 모든 기만적 책동들은 산산이 분쇄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날 또 다시 세계 여론을 기만하여 핵 무기 시험을 정당화하려는 이러저러한 구실들을 날조하고 있다.

쏘련 정부의 주동적 조치에 의하여 궁지에 빠진 미국 정부는 쏘련의 이니샤티브를 마치 《선전적 성격》을 띤 것으로 묘사하면서 세계의 이목을 딴 데로 돌리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또 쏘련은 자기들보다 핵 무기 시험 분야에서 앞섰고 자기들보다는 더 많이 핵 무기를 시험하였으므로 쏘련의 호소에 응할 수 없다고 떠벌리면서 앞으로도 핵 무기 시험을 계속할 것을 획책하고 있다.

이러한 구실들은 사실과 전혀 부합되지 않으며 따라서 정당화될 수 없다. 쏘련에서는 이미 3월 31일부터 모든 종류의 핵 무기 시험이 중지되였다. 쏘련은 이것을 실지 행동으로써 보여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쏘련은 미국보다 늦게 핵 무기 시험에 착수하였다. 력사적 사실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미국은 이미 1945년부터 핵 무기 시험을 시작하였으며 일본에 원자탄을 투하함으로써 일본 인민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참극을 빚어내게 하였다. 쏘련은 또한 핵 무기 시험 회수에 있어서도 미국보다는 적은 것이다. 영국의 주간지 《뉴 스테이트맨》도 미국이 90개 이상의 수소탄을 폭발시킨 데 비하여 쏘련은 39개 밖에 폭발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쏘련이 핵 무기 시험 중지의 이니샤티브를 주동적으로 취한 오늘 미국을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 침략 계층은 어떠한 구실로써도 자기의 립장을 정당화할 수 없게 되였다. 그들의 립장은 더욱더 난처하게 되였으며 세계 인민들로부터 더욱더 고립되게 되였다.

금번 쏘련이 취한 주동적 조치는 핵 무기 사용 및 생산과 시험 금지에 대한 문제 해결에 있어서 실제적 가능성을 열어 주는 단서로 될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동시에 쏘련의 주동적 조치는 국제 정세를 개선하며 세계의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와 특히는 인류를 원자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목적을 실현하는 도상에 있어서 극히 중대한 국제적 의의를 가진다.

물론 핵 무기 시험의 중지는 아직도 원자 전쟁 위험의 완전한 제거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자 및 수소 무기 시험 금지에 대한 협정은 국제 정세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핵 무기 시험의 계속은 그 매 걸음마다 군비 경쟁을 촉진시키며 원자 전쟁에로 인류를 더욱 접근시킨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따라서 금번 쏘련 정부의 주동적 조치는 핵 무기 시험의 중지를 실현하는 도상에서 주동적이고 실제적인 첫 조치로 되는바 이는 원자 전쟁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국제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고 국가들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거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쏘련 정부가 취한 이 조치가 가지는 의의는 그것이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 침략 계층의 《힘의 립장에 선》 대외 정책에 또 하나의 치명적 타격을 준 데 있다. 제국주의 침략 계층이 고집하고 있는 《힘의 립장에 선》 정책이 거듭되는 패배를 당하고 있으며 파산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바 그것은 금번 쏘련이 핵 무기 시험의 일방적 중지에 대한 조치로 말미암아 더욱더 결정적 타격을 당하게 되였다.

쏘련의 주동적 조치는 또한 서구 렬강이 계속 광분하고 있는 《반쏘 반공》 선전에 치명적 타격을 주었다. 미제를 두목으로 하는 제국주의 침략 계층은 쏘련을 비방하면서 《쏘련의 침략성》을 운운하였으며 심지어는 쏘련의 핵 무기 시험의 계속이 바로 자기들이 핵 무기 시험 중지를 거부하는 근본적 리유인 듯이 선전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그러한 근거는 완전히 없어졌다.

또한 쏘련 정부의 주동적 조치는, 오늘날 특별히 세계 여론의 관심사로 되고 있는 동서방 국가 수뇌자 회의 소집을 촉진시킬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서구 렬강 특히 미국은 《힘의 립장에 선》 정책의 파산에 의하여 격화된 《동맹국》들 간의 모순 때문에 고위급 회담의 소집을 극력 반대하여 왔다. 그들은 동서방 국가 수뇌자 회의 소집을 방해하기 위하여 최근에 와서 더욱더 원자 및 수소 무기 시험을 발광적으로 감행하고 있으며 특히는 두 차례나 세계 대전의 화근으로 되였던 독일 군국주의자들을 재생시키고 지금 그들에게 원자 무기까지 내여 맡기려는 범죄적인 시도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 이러한 침략적 책동들은 금번 쏘련 정부의 주동적 조치에 의하여 더욱 큰 타격을 받았으며 수뇌자 회의의 조속한 소집을 요구하는 세계 여론에 더욱 커다란 힘을 주었다.

동시에 쏘련이 주동적으로 취한 평화 애호적 조치는 새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인민들의 신심을 다시 한번 크게 북돋아 주고 있다. 그것은 원자 전쟁 위협의 제거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평화 애호 력량을 더욱 고무하고 있으며 강화하고 있다.

또한 쏘련의 주동적 조치는 우리 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극히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여 주며 미제를 반대하는 조선 인민의 불굴의 투지를 더욱 굳게 하여 준다.

그러나 쏘련이 단독적으로 핵 무기 시험 중지를 선포한 것은 일반적으로 핵 무기 시험을 중지하며 국제 관계를 국가들 간의 신뢰와 평화적 협조를 증강하는 방향에로 발전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첫 걸음을 내디딘 데 불과하다. 따라서 그것으로써 원자 전쟁의 위협이 전적으로 제거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현재 원자 및 수소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중에서 쏘련만이 핵 무기 시험 중지에 대한 실제적 조치를 취했을 뿐이며 미 영은 쏘련의 모범을 따르려 하지 않으며 계속 쏘련의 합리적 제의들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핵 무기 시험 중지와 원자 전쟁 위험의 제거에 대한 인민들의 념원과 모든 가능성들이 현실화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미 영 제국주의자들에게 있다.

최근 미 제국주의자들은 인민들 간의 평화에 대한 배려, 원자 및 수소 무기 시험과 관련한 위험성의 제거,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배려에서 출발한 쏘련 정부의 고상한 인도주의적 모범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자 발광증에 걸려 더욱더 발악하고 있다. 원자 및 수소탄을 적재한 미 공군 비행기들이 서구라파 국가들의 령공을 주야로 비행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그와 같은 비행기가 쏘련의 국경 방향으로 비행하는 등 참을 수 없는 불장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오늘 미제가 평화의 가장 간악한 적이며 인류의 모든 진보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해물이며 국제 반동의 원흉이라는 것을 세계에 다시 한번 보여 주고 있다. 때문에 오늘 전 세계 인민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쏘련이 개척한 평화의 길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핵 무기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주시 폭로하며 그를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인 것이다.

특히 철천지 원쑤 미제 침략자들과 상치하고 있는 조선 인민에게는 더 높은 혁명적 경각성이 필요하다. 조선 정전 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남반부에 원자 무기를 반입하고 있으며 리 승만 괴뢰군에 대한 원자 무기 장비를 증강함으로써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방해하며 극동에서의 긴장 상태를 더욱 격화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는 미제를 조선 땅에서 물러 가게 하는 것이 우리 조선 인민의 선차적 투쟁 과업이다.

오늘 조선 인민은 남조선으로부터 미국 침략군을 즉시 철거케 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성취하며 조선과 극동에서의 평화를 유지 공고화하기 위한 당면한 전 인민적 투쟁 과업을 더욱 강력히 추진시키는 것으로써 원자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전 세계적 운동의 일환을 감당할 굳은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있다.

최근 시기 남조선에서의 미제 침략자들의 도발적 책동이 우심하게 되는 이 때 흉악 무도한 전쟁 도발자들에 대한 전 조선 인민의 민족적 격분과 증오는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반미 반리승만 기세는 더 한층 앙등되고 있다.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념원하는 조선 인민과 그를 지지 성원하고 있는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은 미제 침략자들의 부질 없는 소동을 즉시 중지하며 남조선에서 무조건 물러 갈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조선 인민은 전체 평화 애호 인민들과 함께 미국과 영국도 쏘련의 이니샤티브에 합류함으로써 원자 전쟁 위협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첫 조치를 취할 것을 강경히 요구하며 제국주의자들이 세계의 운명을 더는 원자탄으로 우롱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웨친다.

원자 살륙전이 발발할 위험을 증대시키는 핵 무기 시험이 영원히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시험이 계속될 것이냐 하는 문제의 해결은 오직 미 영 제국주의자들에게 달려 있다. 만약에 그들이 쏘련의 성의 있는 조치에 전쟁 준비와 핵 군비 경쟁으로써 답변한다면 그 자신들이 파멸적 후과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을 고려함이 없이 그들이 새로운 세계 대전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이러저러한 나라들의 지배 계급에게만 멸망을 가져 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자본주의 체계에 그와 같은 멸망을 가져 올 것은 틀림 없다.

오늘 평화와 민주와 사회주의 리념은 전 세계 인민들을 파악하고 있으며 거대한 물질적 력량으로 전환하고 있다. 어떠한 낡은 세계의 세력도 이것을 극복하지는 못할 것이며 력사 발전의 수레 바퀴를 뒤로 돌리지는 못할 것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 《자본주의는 멸망한다. 그는 자기의 죽음에서 수천 수백만의 인민들에게 불행한 고난을 더 가져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힘도 그의 멸망을 저지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맑스—레닌주의 재생산 리론은 우리 당 경제 정책의 확고한 기초

전 웅 식

(1)

우리 당은 경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맑스—레닌주의 재생산 리론에 충실히 의거하고 있다.

사회 발전을 위하여서는 확대 재생산이 필요한바 확대 재생산은 무엇보다 먼저 사회 생산물을 계속 장성시켜 가는 과정인 동시에 일정한 생산 관계를 확대하는 과정이다.

확대 재생산은 당해 년도에 이루어진 국민 소득을 모두 소비해 버리지 않고 그의 일부를 축적에 돌린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리하여 국민 소득 중에서 얼마를 축적에 돌리며 얼마를 소비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의의를 띠게 된다.

이러한 확대 재생산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생산 수단 생산과 소비 자료 생산의 호상 관계를 위시한 인민 경제 제 부문간의 균형이 옳게 유지될 것이 요구되며 여기서 생산 수단 생산이 소비 자료 생산에 비하여 더욱 신속히 장성하여야 한다는 명제가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다.

맑스—레닌주의 재생산 리론의 이러한 중요 명제들은,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의거하여야 할 일반적 합법칙성이며 매개 나라들은 자기의 고유한 구체적 사정에 적응하게 이를 창조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우리 당은 맑스—레닌주의 재생산 리론을 우리 나라에 적용함에 있어서 우선 그의 일반적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는 동시에 우리 나라 재생산 행정의 특성을 규정하는 제 조건 즉 과거 우리 나라가 식민지 반봉건 사회였던 특성에서 오는 영향, 국토가 량단된 조건하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 조국 해방 전쟁이 미친 작용,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경제적 련계 기타 특성들을 충분히 고려하는 데로부터 출발하였다.

이상과 같은 제반 특성은 우리 혁명의 성격과 계급 투쟁에 대하여서도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마는 인민 경제의 재생산 행정에 국한하여 보더라도 극히 중요한 작용을 놀고 있다.

과거 조선이 식민지 반봉건 사회였던 관계로 조성된 그 빈약한 기술 조건 및 생산의 낮은 수준과 근로자들의 기아적인 생활 상태에서 결정적으로 급속히 벗어나기 위하여서는 확대 재생산의 특히 높은 템포가 요구되였으며 심한 식민지적 편파성을 퇴치하기 위하여 자주적인 경제를 확립하는 방향에서 인민 경제의 부문 구조를 계속 변경시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였다.

조국이 남북으로 량단된 사태는 인민 경제의 편파성을 더욱 심하게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확대 재생산의 규모와 생산 장성 템포의

설정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미제에 의하여 도발되였던 지난 전쟁은 일시 정상적인 재생산 과정을 파괴하고 부문간 호상 관계에도 많은 변동을 가져 오게 하였다. 이것은 특히 과도기에 있어서 우리 나라가 2회에 걸쳐 복구기를 겪는 결과를 초래케 하였고 전후 시기 재생산 과정에 중요한 특성을 부여하였다.

끝으로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경제적 련계는 호상간의 기술 경제적 협조와 국제 분업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 생산 장성의 템포 및 인민 경제의 부문간 호상 관계에 중요한 작용을 미치고 있다.

자본주의적으로 발말한 나라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길에 들어 선 것과도 구별되고 국토가 완정되고 있는 조건하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시키고 있는 것과도 구별되며 또 파괴적인 전쟁 없이 계속 건설 사업을 진행해 온 나라들과도 달라서 우리는 실로 어렵고 복잡한 조건하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해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였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 매개 시기에 생산 장성의 템포를 어느 정도로 유지하며 또 인민 경제 제 부문간의 균형을 여하히 조성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실로 어려운 혁명 과업의 한 부분으로 되였다.

우리 당은 이상과 같은 제 특성에 깊이 류의하면서 맑스—레닌주의 재생산 리론을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인민 경제 발전의 매 시기에 있어서 축적과 소비를 적절히 배합시키고 생산 수단 생산과 소비 자료 생산, 공업과 농업간, 생산과 류통, 기타 인민 경제 각 부문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여 왔으며 생산의 높은 템포를 견지하여 왔다.

이 과정은 우리 당이 백전 백승의 맑스—레닌주의 리론에 튼튼히 기초하여 이를 우리 나라 현실에 부합되게 적용해 온 과정이였으며 당의 옳바른 령도하에 전체 근로 인민들이 자기의 모든 혁명적 열의를 사회주의 건설에 바쳐온 장엄한 과정이였다.

(2)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은 맑스—레닌주의 재생산 리론에 확고하게 기초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당 경제 정책에서 확대 재생산의 순조로운 보장을 위한 인민 경제 부문간의 균형이 보장되고 있는 데서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우리 당은 공업화의 토대를 튼튼히 축성하며 인민 경제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전일적인 지배를 달성하며 인민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도록 하는 방향에서 인민 경제 부문간의 정확한 균형을 조성하여 왔다.

맑스—레닌주의 재생산 리론에 기초하면서 우리 당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산 수단 생산과 소비 자료 생산간의 옳은 균형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관심을 돌려 왔다.

생산 수단 생산과 소비 자료 생산간의 호상 관계는 대체로 중공업을 일방으로 하고 경공업과 농업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량자 사이의 호상 관계에 의하여 표시된다. 농업 생산의 일부는 공업 원료로써의 생산 수단을 생산하지마는 그것은 직접 소비 자료 생산과 관련되고 있다.

전후 시기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경공업과 농업을 급속히 발전시키고 있는 우리 당의 로선은, 우리 나라에서의 공업과 농업, 중공업과 경공업 기타 인민 경제 각 부문간의 균형의 내용을 표현하는 동시에 나아가서는 인민 경제 발전의 제반 측면들을 규정하는 당의 중요 경제 정책으로 된다. 당의 정확한 정책하에서 전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재생산 과정이 지장을 받게 되였던 시기를 제외하고는 전쟁전 평화적 건설기에 있어서나 또 전후 복구기에 있어서 중공업은 보다 신속한 속도로 장성하였으며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도 계속 중공업의 확고한 우선적 장성이 예견되고 있다. 3개년 계획 기간에 중공업은 4배, 경공업은 2.1배로 장성하였으며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 중공

업은 2.9배, 경공업은 2.2배 장성하게 될 것이다.

선철 70만 톤, 전력 97억 키로와트시, 석탄 950만 톤, 화학 비료 63만 톤, 쎄멘트 175만 톤――이러한 것은 5개년 계획 기간에 계속 급속한 속도로 장성할 우리 나라 중공업이 달성하게 될 중요 현물 지표들이며 우리 나라 확대 재생산의 규모를 표시하여 준다. 인민 경제의 식민지적 편파성을 퇴치하고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우리 당은 중공업 그 중에서도 일제 통치 시기에 거의 결여되고 있었던 기계 공업의 급속한 장성에 많은 힘을 돌려 왔다. 그리하여 1956년 현재 이미 공업 생산에서 기계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7.3%에 도달하였다.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이 비중이 특히 높아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기계 공업은 그 생산물의 구조를 계속 변경시켜 완비된 시설들을 더욱 많이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956년 현재 대외 총수입 구성중 기계 시설품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제 1차 5개년 계획 말에 가서는 이러한 기계 시설들의 수입 비중은 20% 미만으로 될 것이 예견되고 있는바 이것은 우리 나라의 확대 재생산 과정이 자기에게 소요되는 설비, 부속품들을 자체로 재생산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다음으로 우리는 또한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경공업의 장성 템포가 중공업의 그것에 상당한 정도로 접근함을 보게 된다. 이는 이미 전쟁 기간 경공업 생산의 회복 정도가 중공업에 비하여 현저히 앞서고 있었으며 따라서 또 3개년 계획 기간 경공업의 발전 속도가 상당히 신속한 것이였음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 경공업 발전을 위한 당의 배려가 그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더욱 명백히 리해할 수 있게 한다.

전후 3개년 계획 기간 농업도 알곡 생산은 이미 전전 수준을 넘어 서고 1957년 1년 간에 전체 농업 생산은 약 20%라는 놀랄만한 높은 장성 템포를 보여 주었다. 이는 우리 나라 농업의 급속한 발전, 따라서 소비 자료 생산 장성의 급속한 템포를 더욱 명백히 리해케 한다.

이러한 특징은 중공업에 속하는 여러 부문들의 생산물 구조에도 반영되고 있는바 당은 중공업 건설에서 인민 생활 향상과 직접 련결된 부문에 력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생산 수단 생산 부문은 다시 《생산 수단을 위한 생산 수단》을 만드는 부문과 《소비 자료를 위한 생산 수단》을 만드는 부문으로 나뉘여지는바 중공업 건설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경우에는 주로 《생산 수단을 위한 생산 수단》을 만드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중공업이 급격히 장성되는데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과 함께 경공업, 농업의 발전이 동시에 보장되는 경우에는 이와 사정이 크게 구별된다. 중공업을 한편으로 하고 경공업과 농업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량자간의 호상 관계는 축적과 소비의 호상 관계와 밀접히 관련되고 있는바 그것은 축적에 주력할 때에는 중공업이 다른 부문에 비하여 일층 현저히 신속한 속도로 장성하는 반면에 종전보다 소비에 많은 힘을 돌리게 되면 경공업과 농업의 장성 속도가 중공업에 보다 접근해 가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 당은 축적과 소비를 적절히 배합시키는 데 극히 신중한 고려를 돌리고 우리 나라 혁명 정세와 경제 형편, 그리고 인민 생활 수준 등 제반 조건을 충분히 타산하는 데로부터 출발하여 매 시기에 있어서 축적과 소비의 호상 관계를 적절히 해결해 왔다.

이에 있어서 당은 공업화의 신속한 속도를 요구하는 제반 사정을 타산하면서 한편 이에 기초하여 인민 생활을 부단히 체계적으로 향상시킬 데 대한 문제를 신중히 고려하였으며 매 시기마다 인민 생활의 급속한 향상을 달성하면서도 우리 인민들의 무궁무진한 혁명적 열성에 기초하여 앞날의 더욱 높은 발전을 전망하면서 상당한 정도를 축적에 돌릴 것을 언제나 잊지 않았다.

이러한 관계는 특히 기본 건설 투자의 방향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당은 우리 나라의 경제 발전 수준과 축적의 가능성을 정확히 타산하고 기본 건설 투자의 대상을 옳게 선택하기에 주력하여 왔다.

당은 아직 파괴된 시설들을 복구할 과업이 남아 있는 조건하에서 복구, 확장 및 신설을 적절히 배합시키기에 노력하였으며 또 기본 건설의 기간과 그 규모 등에 신중한 고려를 돌려 왔다. 지나치게 장기간을 요하고 규모가 큰 기본 건설에 투자를 집중시키는 것은 당분간 소비를 줄이면서 축적에 치중하는 결과를 가져 오게 한다. 장기간을 요하고 규모가 큰 기본 건설은 그것이 완공된 후에는 결국 인민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향상에 더욱 크게 기여하게 되며 또 장기간을 두고 재생산 과정을 고찰할 때 이 기본 건설에 요하는 기간에 관한 문제는 일단 이것을 사상하고 고찰할 수 있지마는 이것은 일정한 기간에 국한하여 볼 때는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 3차 당 대회 결정을 구체화하면서 당 중앙 위원회 8월 전원 회의에서는 지나치게 장기간을 요하며 많은 자금과 로력을 고착시키는 건설을 가급적 피할 것을 강조하였다. 제 1차 5개년 계획에는 이러한 당의 정책이 일층 구체화되면서 5개년 계획 기간 조업 개시 예정 대상과 이미 착공된 대상에 기본 투자를 집중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리 당은 제 2차 5개년 계획을 전망하면서 일부 부문에 있어서는 일정하게 이에 필요한 기본 투자를 실시할 것을 예견하고 있다.

또한 기본 투자액이 인민 경제 각 부문간에 할당되는 비률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명확히 반영되여 있다.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기본 투자 총액중에서 공업에 대한 비중은 더욱 장성되는바 그 중 83%가 중공업에 돌려질 것이 예견되고 있다. 한편 주택 건설에 대한 기본 투자 비중은 3개년 계획 기간에 12%이던 것이 14.3%로 장성하고 경공업 및 농업에 대해서도 방대한 액의 기본 투자가 실시될 것이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은 농촌 협동 경리에서도 공동 축적의 조성과 농민들에 대한 분배와의 합리적인 배합에 대하여 옳바른 지도를 주어 왔다.

축적과 소비와의 적절한 배합, 중공업을 한편으로 하고 경공업과 농업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량자 사이의 호상 관계에 대한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이 이렇게 신중하고 이렇게 정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눈을 가리고 고의적으로 당의 정책을 비방하여 나섰던 흉악한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들의 흉오스러운 시도가 인민들에 의하여 여지 없이 폭로 분쇄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우리 당은 나라의 구체적 사정을 신중히 검토 분석한 기초 우에서 정확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종 여일 그의 실천을 보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당 정책의 정확성은, 오늘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에서 인민 경제의 강력한 앙양이 달성되고 있으며 혁명 력량이 날로 더욱 강화되여 정세가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되여 가고 있는 조국의 현실이 명백히 실증해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하에서 사회 생산의 여러 부문 간의 균형이 정확히 유지되면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 나라 확대 재생산 과정은 생산 장성의 높은 템포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김 일성 동지는 최고 인민 회의 제 2기 제 1차 회의에서 연설하시면서 우리 나라의 정세와 우리 혁명의 발전이 공업 생산의 높은 장성 템포를 요구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우리 나라의 국영 및 협동 단체 공업 생산은 전후 3개년 계획 기간에 년 평균 43%의 템포로 장성하였으며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는 년 평균 21.5%의 장성을 예견하고 있다.

파괴되였던 기존 시설을 복구하는 과정은 신설의 경우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생산이 신속히 장성할 수 있는 관계로 복구기의 장성 속도가 5개년 계획에 예견된 속도에 비하여 보다 빠른 것은 당연하다. 여기서 우리가 주로 관심하게 되는 것은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이상의 수'자들은 상당히 높은 장성 템포를 특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제 1차 5개년 계획의 첫해인 1957년도에 있어서 우리 나라 공업은 44%라는 류례 없는 속도로 장성하였다. 이것은 확실히 재생산 과정에서 하나의 경이적인 사변이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미 복구기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개건기에 들어 와서 이러한 높은 템포로 장성하였다는 점이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복구기에 있어서는 생산의 보다 신속한 장성 속도가 일반적이며 많은 나라들에서 복구기의 공업 생산은 높은 장성 속도를 보이고 있다(중국에서 복구기 공업 생산의 년 장성 속도는 36.9%였으며 쏘련에서도 1924년도를 제외하고는 복구기 기간에 특히 신속한 속도를 보이였고 개별적 년도에서는 60%를 넘어서고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2회에 걸치는 복구기에 있어서 어느 경우에 있어서나 40%를 넘는 속도로 장성하고 특수하게는 80% 이상(국영 및 협동 단체 공업에 한해서는 2배 이상)의 장성을 달성하는 년도도 있었다.

그러나 이미 개건기에 들어 와서 44%라는 장성 속도를 보인 것은 틀림 없이 류례 없는 것으로 된다. 여기에서 우리 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의 위대한 생활력이 과시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산 확대의 규모는 선행 년도들에서의 축적의 규모와 이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생산 수단 및 로동력의 보충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매개 년도에 있어서 인민 경제의 제반 예비가 어느 정도 존재하며 일정한 생산 수단과 로동력에 기초하여 어느 정도의 생산이 달성되는가는 구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우리 당은 제 1차 5개년 계획에 들어 서면서 우리 나라 인민 경제가 설비 리용률 제고, 원료 자재의 소비 기준 저하, 로력의 합리적 조직과 리용, 로동자, 기술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 제고, 기타 분야에 있어서 현저한 예비를 가지고 있음을 정확히 타산하고 이를 적발 동원하기 위한 투쟁에로 근로자들을 힘 있게 불러 일으켰는바 이것은 이 해에 우리가 생산 장성의 높은 템포를 달성한 주요 요인으로 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 해에 우리 나라에서는 중공업만이 아니라 경공업과 농업도 급속히 장성하여 전체적으로 이러한 높은 생산 장성 템포가 달성되였다.

사실 우리 나라에서는 어느 한 때에도 중공업 장성을 일방적으로 강행함으로써 높은 생산 장성 템포를 달성하려 한적이 없으며 또 소비재 생산의 장성이 중공업 건설을 희생으로 하면서 진행되지도 않았다. 우리 나라에서는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한 소비 자료 생산의 장성이 언제나 높은 로력적 성과와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일층 강력히 추진시키는 조건하에서 달성되여 왔다. 우리 나라에서 경공업과 농업을 포함한 전체 인민 경제의 높은 생산 장성 템포는 시종 기본 투자의 합리적 분배, 인민 경제의 예비의 철저한 동원, 지방 자원의 합리적 리용, 로동 생산 능률의 신속한 제고 등을 보장한 우리 당의 정확한 정책하에서 달성되였다.

이는 실로 맑스—레닌주의 재생산 리론의 일반적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면서 개별적 나라의 구체적 현실에 적응하게 창조적으로 적용한 산 모범으로 된다.

이상에서 우리는 또한 우리 당이 우리 혁명을 발전시키며 인민 생활의 신속한 향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언제나 우리 나라의 확대 재생산 과정을 확고하고 건전한 기초 우에서 전개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 당 제 1차 대표자회에서 채택된 제 1차 5개년 계획에 의하면 이 기간 우리 나라 생산 장성의 급속한 템포를 계속 보장하기 위하여 본질적 중요성을 가지는 인민 경제 고정 폰드의 창설을 위하여 1,465억 원에 달하는 방대한 자금이 지출될 것이다. 그리고 농업 협동 조합들의 공동 축적으로부터도 농촌 경리 분야에서 약 4백억 원의 기본 투자가 진행되여 우리 나라 인민 경제 고정 폰드 확대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리하여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 우리 나라에서는 고정 폰드를 위시한 인민 경제 생산 폰드의 거대한 확장에 따라 생산 인구가 계속 장성될 것이 예견되고 있는 한편 로동 생산 능률이 공업에서 65%, 건설에서 52% 장성되여 이 기간 공업 생산 장성의 63%까지는 로동 생산 능률 장성에 의하여 달성될 것이 예견되고 있다.

(3)

재생산은 사회 생산물의 재생산인 동시에 일정한 생산 관계의 재생산이니만큼 재생산 과정은 그 생산 관계의 본질 여하에 따라서 중요한 특성을 가지게 된다.

과도기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 이외에 소상품 경제 형태와 자본주의적 경제 형태가 존재하는바 매개 경제 형태들에서 자체에 고유한 합법칙성에 따라 재생산 과정이 진행되여 왔다.

그런데 이것들은 사회주의 생산이 강력히 발전하고 인민 경제 전반에 걸쳐 일층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건하에서 그리고 또 사회주의 생산 관계에 의하여 낡은 생산 관계가 혁명적으로 교체되여 가는 조건하에서의 재생산으로서 특징 지어진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 생산의 신속한 장성은 바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확대 강화하고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중요 조건을 조성하여 주었으며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승리를 보장하여 왔다. 사회주의 공업의 강력한 발전은 전 인민적 소유를 확대 강화하고 이와 련결되는 로동 계급 대렬을 확장했으며 도시와 농촌에서의 비사회주의적 경제 형태들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중요한 물질적 력량을 조성하였다. 오늘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는 압도적인 대부분을 차지하고 지배적인 것으로 되고 있다.

그런데 오늘 특히 주목할 것은 우리 당의 지도하에서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성과적 수행이 우리 나라 확대 재생산 과정에 극히 중요한 작용을 미치고 있다는 측면이다.

자본주의적 요소들이 생산 협동 조합에 망라되면서 개조되여 가는 과정도, 남아 있던 착취적 관계를 청산한다는 의미에서만이 아니라 인민 경제의 더욱 많은 부문을 계획 경제에 포괄시키면서 생산 장성 템포와 인민 경제의 새로운 균형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조건하에서 결정적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재생산 과정에 미치는 작용이다. 우리 나라 주민의 많은 부분이 관계하고 있고 인민 경제의 중요한 부문을 담당하고 있는 농촌 경리 분야에서의 이 근본적 변혁은 우리 나라 재생산 행정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토지 개혁후 봉건적 생산 관계의 기반으로부터 해방된 소농 경리가 지배하게 된 우리 나라 농촌은 물론 새로운 생산의 발전을 초래하였으나 그러나 전후 시기 소농 경리로서 생산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고갈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농촌 경리의 협동화는 우리 농촌에서 확대 재생산을 성과적으로 보장해 갈 수 있는 조건을 지어 주었다.

농업의 협동화는 발전하는 공업에 기초하여, 농촌에서 협동화를 위한 일정한 예비 조건들이 조성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의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에 있어서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경리 형태의 개조가 기술 개조에 비하여 현저히 빠르게 진행되였으며 적지 않은 경우에 우선 경리 형태의 개조만으로써도 농업 생산을 크게 장성시킬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확대 재생산 과정은 이를 위한 축적의 장성과 여기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생산 수단 및 로동력의 보충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장성하는 로동 생산 능률은 무엇보다 새로운 기계 기술의 적용과 관련되고 있다. 그런데 과도기 재생산 행정에 있어서는 경리 형태의 개조가 미치는 작용이 반드시

중요하게 고려되여야 한다. 즉 새로 창설된 생산 관계가 재생산 과정에 미치는 적극적 반작용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경리 형태의 개조가 기술 개조에 비하여 현저히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더욱 중요한 관심을 돌릴 필요가 있다.

사실에 있어서 우리 나라에서의 농업 협동화의 승리적 추진은 사회주의적 협업의 우월성을 백방으로 발휘하면서 토지 건설 및 토지 복구, 선진 영농 방법의 도입, 농기계 역축의 합리적 리용, 다각적인 농업 경영의 전개 기타를 통하여 농업 생산의 신속한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 농업 생산의 류례 드문 급속한 장성 템포와, 신속히 장성하는 도시 공업과 농업간의 균형적인 발전 등 최근 년간 우리 나라 재생산 행정의 중요 특징을 리해함에 있어서 이상의 사실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 당은 비사회주의적 경제 형태들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우리 나라 확대 재생산 행정에 미치는 작용을 정확히 고려하면서 인민 경제 부문간의 균형을 달성하고 확대 재생산의 신속한 템포를 보장하여 왔다.

공업화의 속도가 빠르며 인민의 의식주 문제 해결과 관련되는 농산물 생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데 보조를 맞추어 우리 나라 농업이 오늘 승리적인 발전을 달성해 가고 있는 것을 리해함에 있어서 공업과 농업에 대한 기본 투자의 합리적인 할당, 농촌에 대한 각종 물질 기술적 방조 등을 고려하는 동시에 우선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농업 생산의 거대한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 당이 백방으로 리용함으로써 우리 나라 확대 재생산 과정의 순조로운 발전을 보장하여 온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 *

우리 나라 확대 재생산 과정에서의 상술한 바와 같은 중요 특징들——인민 경제 부문간의 균형적 발전, 생산의 급속한 템포 등은 모두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경공업과 농업을 급속히 발전시키는 우리 당의 경제 정책에 기초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적 개조에서 달성된 거대한 성과도 또한 이러한 당의 경제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이것은 확대 재생산의 필수적 조건이며 사회주의적 공업화의 기초이며 인민의 의식주 문제 해결의 열쇠로 된다.

당은 우리 나라에서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모든 자연적 및 경제적 전제들이 갖추어져 있는 조건과 아울러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 간의 밀접한 경제적 련계하에서 호상간 기술 협조와 국제적 분업에 기초하여 중공업을 신속히 장성시키면서 동시에 경공업과 농업 발전에 상당한 여력을 돌릴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정확히 타산하여 이 경제 정책을 채택하고 이의 성과적 실현을 보장하여 왔다.

우리 당의 이 경제 정책은 축적과 소비의 합리적 배합,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축적의 강화와 인민 생활의 신속한 체계적인 향상을 결합시키는 정확한 정책인 것이다.

실로 우리 당의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 정책은 전 인민적 소유를 강화시키면서 비사회주의적 경제 형태들의 사회주의적 개조의 완성을 위한 조건을 조성하여 왔으며 경공업과 농업의 급속한 발전을 위한 유리한 조건들을 조성하여 왔다.

이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공업화의 토대가 튼튼히 축성되여 가고 인민 생활이 급격히 향상되고 있으며 그리고 사회주의적 개조가 거대한 성과를 거두어 온 사실들은 전적으로 맑스—레닌주의 재생산 리론을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경공업과 농업을 급속히 발전시켜 온 우리 당의 경제 정책에 의하여서만 그 실현이 가능하였다.

당은 전쟁으로 인하여 생산 시설이 심히 파괴되고 인민 생활이 령락된 조건하에서 혁명 정세와 국내 사회 경제적 제 조건, 국제간의

경제적 련계, 주민들의 수요 수준, 그리고 우리 인민들의 혁명적 열의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 동시에 경공업과 농업을 급속히 장성시키는 이 어려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해 왔다.

당은 전후 복구기가 끝나고 인민 경제가 새로운 발전 단계에 들어 서게 되였을 때 조성되였던 새로운 정세 즉 생산 시설의 리용 정도, 물자적 예비의 존재, 생산자들의 기능 수준 기타에 있어서 우리 나라 경제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우방 국가들의 원조 수입이 줄면서 점차 우리의 내부 축적에 의거하여 건설하는 방향에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정세하에서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내부에 존재한 거대한 예비를 정확히 포착하고 인민들의 창발적 열성에 기초하여 이를 백방으로 발동시킴으로써 재생산 과정에서 일대 전변을 일으켰다.

그리고 또 당은 공업화의 높은 템포 기타와 관련하여 농산물에 대한 인민 경제적 수요가 급격히 장성하여 가고 있는 한편 농촌에의 선진 기계 기술의 전면적인 도입이 시급히는 해결되기 힘든 조건하에서 농업 협동화 운동을 창조적으로 조직 령도함으로써 토지 건설 및 복구의 추진, 관개 면적의 확장, 선진 영농 방법의 도입, 다수확 작물의 재배, 다각적 농업 경영 등 농업 발전을 위한 당의 제반 방침을 철저히 관철시키도록 보장하고 농업 발전에서 획기적인 승리를 달성케 하였다.

이 모든 사실들은 우리 당이 매 시기마다 맑스—레닌주의 재생산 리론을 우리 나라 현실에 실로 탁월하게 적용해 왔다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다.

지금 전체 근로 인민들은 희망에 찬 광활한 전망을 열어 주고 있는 우리 당 제 1차 대표자회 결정을 받들고 하루 속히 지상의 락원인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열의와 창발성을 발휘하고 있는바 우리 인민의 이 위업은 우리 당의 시종 정확한 령도하에 반드시 달성되고야 말 것이다.

제 1차 5개년 계획 수행을 위한 자금 문제와 그의 해결 방도

안 광 즙

제 1차 5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함에 있어서 자금 문제의 해결은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왜냐 하면 그것은 5개년 계획 기간에 인민 경제 발전의 높은 템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내부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 리용하며 엄격한 절약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우리 자체의 원천에 의하여 자금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전쟁으로 인하여 도시와 농촌이 페허로 되고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들이 여지 없이 파괴되였으며 인민 대중이 자기의 생활 토대마저 상실한 조건하에서 공업과 농촌 경리의 물질적, 생산적 토대를 급속히 복구 강화하며 령락된 인민 생활을 가장 짧은 시일내에 회복하기 위한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3개년 계획을 수행하였다.

우리는 이 기간에 국내의 모든 자원을 적극 동원하는 한편 형제적 국가들이 주는 원조를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함으로써 3개년 계획 수행에 소요되는 방대한 자금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리하여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촌 경리를 동시에 급속히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의 경제 정책 관철을 재정적으로 보장하였다.

그러나 우리 인민 경제가 새로운 발전 단계에로 이행함과 관련하여 자금 문제는 심중한 문제로서 제기되였다.

5개년 계획 수행의 길에 들어 서면서 특히 자금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것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경제적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며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대한 계획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더 많은 자금이 요구되는 반면에 3개년 계획 기간에 비하여 5개년 계획 기간에는 형제적 국가들로부터의 무상 원조 수입이 현저히 축감된 데 기인되고 있다.

최근 년간 국가 예산 수입의 구성만 보아도 예산 수입 총액중 대외 원조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3개년 계획 기간에 23.6%에 달하였다면 1957년에 있어서는 12.2%, 1958년에 와서는 4.5%로 감소되고 있다.

그런데 제 1차 5개년 계획의 방대한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의 자금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례컨대 지난 3개년 계획 기간에 인민 경제 각 부문의 복구 발전을 위하여 국가는 806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의 국가 기본 건설 투자액은 1,465억 원에 달하고 있다. 그의 년 평균 투자액은 지난 3개년 계획 기간의 그것에 비하여 약 109%의 장성으로 된다.

이 밖에 농업 협동 조합들의 자체 자금에 의하여 약 400억 원에 달하는 기본 건설 투자를 하게 될 것인바 이것은 고려한다면 5개년 계획 기간의 기본 건설 투자 규모는 3개년 계획의 그 것에 비하여 현저하게 증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경제적 기초를 더욱 튼튼히 하며 인민의 의식주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금속 공업, 화학 비료와 인조 섬유를 중심으로 하는 화학 공업, 쎄멘트를 비롯한 건재 공업

및 기계 제작 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며 연료 동력 기지를 계속 강화하여야 할 것인바 이 부문들의 건설 및 생산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많은 자금이 요구된다.

5개년 계획 기간에 자금에 대한 수요의 증대는 이에만 그치지 않는다.

우리 나라에서 식량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농촌 경리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여 1961년에 376만 톤 이상의 알곡 생산을 보장하는 한편 식료 가공 공업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식료품 공급을 증대시켜야 하는바 이를 위하여서도 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대된다.

또한 도시와 농촌에서 대대적인 건설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주택 조건을 개선하며 사회 문화 시설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도 많은 자금이 요구된다.

이 밖에 생산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소, 경제 기관들의 류동 자금의 수요도 증대되며 인민 경제의 높은 장성 템포를 유지하며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기술적 개조를 촉진하기 위하여서도 자금 지출이 증대된다.

자금 문제의 해결이 없이는 5개년 계획 기간에 흑색 금속 공업, 기계 제작 공업, 건재 공업, 석탄 및 전력 공업 등 중요한 공업 부문들의 더욱 빠른 장성 속도를 보장할 수 없으며 인민의 의식주 문제 해결을 위한 경공업과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촌에서 대규모적인 건설 사업을 원만히 진행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 1차 5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자금 문제는 우리 인민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강화하며 우리 나라를 락후한 농업 국가로부터 발전된 공업—농업 국가로 전변시키기 위한 력사적 과업 수행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 *

그러면 제 1차 5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할 수 있는 자금 문제를 우리 자체의 원천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과 조건들이 있는가? 물론 있다.

그것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국영 및 협동 단체 공업을 비롯하여 국가 수중에 장악된 산림, 운수, 대내외 상업 등 강력한 자금 원천과 그를 현실적 자금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내부 예비 동원, 엄격한 절약 제도 등이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광범히 실천되고 있는 그것이다.

우리 인민 경제가 새로운 발전 단계에로 이행함과 관련하여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의 자금 수요가 증대되는 한편 자금 원천의 면에서도 일련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금 원천의 동태를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자금 문제 해결을 위하여 어떠한 자금 원천에 의거하여야 하며 또 어떠한 방법으로 그를 동원할 것인가를 구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1차 5개년 계획 수행을 위한 자금 원천은 국영 및 협동 단체 공업 자체의 화폐 축적, 가격 기구를 통한 생산물 및 기타 부문의 소득의 리용, 조세에 의하여 국가 예산에 동원되는 자금 등이 있다.

이러한 우리 자체의 자금 원천들은 국영 및 협동 단체 공업이 급속히 발전하며 국가 수중에 장악된 산림, 운수 및 대내외 상업의 규모 확대, 협동화된 농촌 경리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더욱 증대되고 있다.

사회주의가 도시와 농촌에서 결정적 승리를 쟁취하고 있는 오늘날 국영 및 협동 단체 공업을 비롯하여 사회주의적 상업, 농업 협동 경리 부문에서의 자체 화폐 축적은 5개년 계획 수행을 위한 강력한 자금 원천으로 되고 있다.

전후 3개년 계획 기간에 새로운 기술에 토대하여 복구 건설된 240여 개소의 대 중 기업소들과 또한 새로운 시설들로써 새로 건설된 80여 개소의 대 중 기업소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국유화된 공장, 기업소들은 사회주의적 경리의 우월성에 기초하여 생산의 높은 장성을 보장함으로써 우리 나라 내부 축적의 가장 강력한 원천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전체 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완전히 복무하는 국영 공업 부문들에서의 화폐 축적은 이미 매년 수

백억 원에 달하고 있다.

례컨대 1958년 1.4 분기에 국영 및 협동 단체 공업 총생산액 계획은 107%로 초과 완수되였으며 증산 과제를 포함한 계획도 101%로 초과 완수되였다.

그리하여 1958년 1.4 분기의 국영 및 협동 단체 공업 총생산액은 전년 동 기에 비하여 131%로 장성하였으며 그 중 국영 공업은 127%로, 협동 단체 공업은 164%로 장성하였다. 공업 총생산액의 이와 같은 장성은 우리 나라 자체의 자금 원천이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3개년 계획 기간에 주요 공업 제품들의 원가는 현저하게 저하되였는바 례컨대 전력은 37%, 아연 정광은 20%, 벽돌은 26%, 면직물은 41% 각각 그의 원가가 저하되였다.

특히 1958년 1.4 분기에 공업 생산물 원가는 전년도 평균 원가에 비하여 7.8%가 저하되였다. 그 중 금속 공업성은 3%, 석탄 공업성은 5.9%, 기계 공업성은 11.2%, 화학 공업성은 7.8%, 경공업성은 9.3% 각각 저하되였다. 이러한 사정은 국영 공업 및 협동 단체 공업 부문에서의 화폐 축적이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와 원가 저하에 기초하여 매년 현저하게 장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개조 사업이 승리적으로 진행된 결과 농업 부문의 소득을 자금으로 리용하는 면에서도 현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농업 협동화의 결정적 승리는 농촌 경리의 급속한 복구 발전을 보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과 그들의 의식 개변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켰으며 농업의 기술적 개조를 위한 전제 조건들을 조성하였다.

공업과 농업의 급속한 발전에 기초하여 공업 제품 가격의 체계적인 인하와 농산물 수매 가격의 인상에 의하여 전후 년간에 공업 제품의 가격과 농산물 가격간의 호상 관계는 농민측에 유리하게 개변되였다. 농업 생산의 급속한 발전과 농산물 수매 가격의 인상으로 말미암아 농민들의 실질 소득은 현저히 제고되였는바 이것은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 공동 축적 폰드를 증대시킬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있다.

조세 수입에 의하여 국가 예산에 동원되는 자금 원천은 국가 예산 수입 원천중에서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감소되고 있다. 이것은 당과 정부가 주민들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일련의 중요한 조치를 취한 결과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자금 원천들 중에서 국영 및 협동단체 기업소에서의 내부 축적은 제 1차 5개년 계획 수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장할 수 있는 결정적 원천이다.

우리 나라 재정 수입 구성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적 경리로부터의 수입은 1956년에는 74.7%, 1957년에는 82.4%, 1958년에는 95.2%로 그 비중이 현저히 제고되고 있는 반면에 주민으로부터의 세금 수입 비중은 매년 감소되고 있는바 1956년에는 전체 예산 수입 중 그 비중이 9.4%였다면 1957년에는 5.7%, 1958년에는 3%로 격감되고 있다.

1958년 국가 예산 수입은 1221억 09백만 원으로서 1957년 예산 수입에 비하여 119%로 장성하였는바 이것은 주로 사회주의 경리 내부 원천에 의거하고 있다.

그 중 거래세 수입은 731억 79백만 원에 달하는바 이것은 1957년 예정 실적에 비하여 143.4%의 장성으로 된다. 거래세 수입의 이와 같은 장성은 인민 경제 중요 부문들에서 생산이 급속히 장성된 결과에 얻어진 것이다.

더우기 1958년에 조성되는 총리윤은 254억 26백만 원으로서 1957년 인민 경제 계획에 예견 되였던 총리윤에 비하여 142.6%로 장성될 것이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5개년 계획 수행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을 주로 우리 나라의 자체 원천에서, 무엇보다도 국영 및 협동 단체 기업소들에서의 축적 자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전후 3개년 계획을 승리적으로 완수하고 제 1차 5개년 계획 수행의 길에 들어 서면서 우리 당은 높은 템포의 확대 재생산과 국민 소득의 급속한 장성을 도모함으로써 자금 원천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최대한의 절약과 증산을 위한 투쟁을 전 당적, 전 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할 것을 호소하였다. 우리 당이 제시한 이 호소의 실천은 부단한 사회주의적 확대 재생산과 앞으로의 가일층의 륭성 발전을 위한 생산적 및 재정적 토대를 구축함에 있어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제 1차 5개년 계획 수행에로 이행함과 관련하여 당시 우리 앞에는 석탄, 전력, 강재, 세멘트, 량곡 등 중요 물자들의 생산을 확대 강화하며 긴장된 재정 발란스 및 외화 발란스를 해결할 긴절한 과업이 나서고 있었다.

우리 당의 정확한 경제 정책을 받들고 최대한의 증산과 절약을 위한 투쟁에 궐기한 우리 인민은 제 1차 5개년 계획의 첫해인 1957년 인민 경제 계획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함으로써 자금 문제 해결에서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또한 외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사정은 동일하다. 우리는 외화 원천을 확대하며 외화 절약을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 긴장된 외화 발란스를 일정한 정도로 완화시켰다. 그러나 5개년 계획의 방대한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자금 및 외화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데로부터 1958년 계획을 수행하고 있는 오늘에 있어서도 자금 문제는 일정한 정도로 긴장성을 띤채로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현재 우리 나라에 조성된 경제적 조건들을 정확히 분석하고 사회주의적 축적 발전의 합법칙성에 의거하여 자금 문제 해결의 기본 방도를 천명하였으며 제 1차 5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절약하여 증산하자》는 구호를 제시하였다.

* *

우리 당이 제시한 자금 문제 해결의 기본 방도는, 첫째로 추가적 투자 없이 또는 적은 투자로써 생산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온갖 내부 예비를 적극 동원 리용하는 데 있으며, 둘째로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로동 생산 능률을 부단히 제고하여 생산의 급속한 발전을 보장함으로써 내부 축적 원천을 급속히 증대시키는 데 있으며, 세째로 축적된 자금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추가적 투자 없이 생산을 더욱 장성시킬 수 있는 중요한 예비는 현존 생산 면적의 합리적 리용과 설비 리용률의 제고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이 동원 리용될 수 있다.

지난 3개년 계획 기간에 복구 건설된 우리의 적지 않은 공장들은 다수 경우에 생산 면적에서 많은 여유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정확한 타산에 기초하여 기존 생산 면적을 합리적으로 리용한다면 공장 건물을 더 건설하지 않고도 생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예비가 존재하고 있다.

추가적 투자 없이 더 많은 생산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설비 리용률을 더욱 제고하여야 하는바 이 부면에는 아직도 적지 않은 결함과 부족점들이 존속되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기술 기능 수준이 현저히 제고되지 못하고 생산에 대한 조직 관리 사업이 미약하며 일부 기업소들이 자기의 구체적 실정에 기초하여 설비 리용률 제고를 위한 예비를 동원 리용할 대신에 추가적 설비만을 요구하는 데 중요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기업소 지도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이러한 경향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 한편 자기의 구체적 실정에 기초하여 설비 리용률 제고를 위한 예비를 광범히 동원 리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영 및 협동 단체 기업소들의 수익성을 제고하며 내부 축적을 증대시킴에 있어서 기본 조건으로 되는 것은, 설비 리용률 제고에 기초한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제고와 체계적인 원가 저하를 보장하는 그것이다.

5개년 계획 기간에 로동 생산 능률은, 공업 부문에서는 165%, 건설 부문에서는 152% 이

상 제고할 것을 예견하고 있는바 이 기간에 공업 총생산액 증가의 63%는 로동 생산 능률 제고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37%는 생산 일'군들의 수효의 증가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5개년 계획 기간에 생산을 장성시킴에 있어서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가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우리 공업 부문에서 로동 생산 능률은 현저히 제고되고 있다. 례컨대 1956년에는 1953년에 비하여 94%, 1949년에 비하여 52%가 각각 제고되였다.

그리고 금년 1.4 분기에 공업 부문의 로동 생산 능률은 전년 동 기에 비하여 109%로 장성하였으며 그 중 금속 공업성은 114%, 석탄 공업성은 110%, 기계 공업성은 106%, 화학 공업성은 123%, 건설 공업성은 118%, 경공업성은 109% 각각 장성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종류의 공업 제품들의 생산 계획이 초과 수행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제품들이 증산되였다.

석탄 부문에서는 금년 1.4 분기에 국가 계획보다 3만 5천 톤의 석탄을 더 증산하였는바 이것은 전년 동 기에 비하여 30만 톤을 더 증산한 것으로 된다.

강재 생산에서는 환강, 형강 및 특수 강재 등 규격별로 압연 강재의 생산이 증대되였으며 금년 1.4 분기의 국가 계획보다 6천 톤의 강재를 더 많이 생산하였다. 이 밖에 6천 톤의 화학 비료, 2만 톤의 쎄멘트, 4천 톤의 카바이트, 187만 메터의 직물, 31만 켤레의 신발류 등 많은 제품들이 국가 계획보다 증산되였다. 이것은 주로 설비 리용률의 제고 기타 내부 예비의 동원 리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생산의 이와 같은 장성은 인민 경제 내부 축적의 급속한 장성을 의미하며 그만큼 자금 원천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우리가 달성한 로동 생산 능률의 수준은 아직 선진 국가들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처하여 있으며 공업 및 건설 부문에는 로동 생산 능률 제고를 위한 허다한 예비들이 잠재하고 있다. 인민 경제 내부 축적의 증대는 로동 생산 능률 제고에 크게 달려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기술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기계화 수준을 더욱 높이며 로동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현저히 제고시키며 대중적 증산 경쟁 운동을 광범히 조직 전개하여 로동 생산 능률의 부단한 제고를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리 기구를 가능한 정도내에서 간소화하고 물질적 생산에 종사하는 일'군들의 비중을 높이는 한편 기업소 기관들 호상간의 협조와 련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사회적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며 나아가서는 자금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건설 부문에서는 지난 기간 우리 당 경제 정책을 외곡 파탄시켜 보려고 시도하였던 박의완, 김 승화 등 반당 종파 분자들의 해독적 작용이 컸던만큼 다른 부문에 비하여 로동 생산 능률 제고를 위한 예비가 더 많이 존재하고 있다.

건설 부문 일'군들은 우리 당 10월 전원 회의 결정 정신에 기초하여 조립식 건설의 비중을 더욱 높이며 부재 생산의 공업화와 건설의 기계화를 촉진시켜 로동 생산 능률을 제고하며 건설 원가를 현저히 저하시킴으로써 자금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5개년 계획 기간에 진행되는 생산과 건설의 규모가 방대하니만큼 매 단위 생산물 생산에서 달성되는 로동 생산 능률의 제고와 원가 저하는 거액의 자금 원천을 조성한다. 5개년 계획 기간에 공업과 건설에서 원가를 1%만 저하시켜도 우리는 수십억 원의 리득을 얻어낼 수 있다.

5개년 계획 기간에 공업 생산물 원가는 29%, 건설 가치는 33%, 운수 원가는 31%, 류통비는 45% 이상 각각 저하시키며 국영 농목장들에서 농산물 및 축산물의 원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것을 예견하고 있다. 계획에 예견된 원가 및 류통비 저하 과제만 수행하여도 우리는 5개년 계획 기간에 실시될 기본 건설 투자 총액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자금을 더

얻어낼 수 있다.

원가 저하를 위한 투쟁에서 물자 소비를 극력 절약하는 것은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우리 공업 생산물 원가 구성에서 원료, 자재, 연료 및 전력에 대한 지출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하에서 생산물 생산에 필요한 각종 물자들의 절약은 원가 저하를 위한 중요 조건으로 된다. 여기에 있어서 강재, 석탄, 쎄멘트, 전력 등 중요 물자들의 절약은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다음으로 자금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국가 수중에 장악된 자금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제고하는 문제이다.

우리 당은 자금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선 자금 지출에 있어서 옳바른 균형을 보장하며 투자의 선후차를 정확히 규정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있어서 축적과 소비에 대한 지출의 옳바른 균형 보장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축적이 없이는 생산의 발전도 따라서 인민 생활의 향상도 모두 다 불가능하며 인민 경제는 침체와 답보를 면치 못할 것이다.

만일 최 창익을 두목으로 하는 반당, 반혁명 종파 분자들이 중얼거리던 대로 생산 수단 생산을 장성시키지 않고 소비재 생산에만 치중하였거나 축적을 계통적으로 장성시키지 않고 국민 소득과 대외 원조 수입을 당장의 소비에만 탕진해 버렸다면 인민 경제 발전은 물론, 인민 생활의 계통적인 향상도 도모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당과 정부는 국민 소득의 부단한 장성에 기초하여 인민들의 항구적 리해와 당면한 리해, 사회적 리익과 개인적 리익을 옳게 결부시켜 축적 폰드의 계통적 장성을 보장하면서 소비 폰드를 견실한 토대 우에서 부단히 증대시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 이것은 자금을 가장 합리적으로 리용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조성한다.

사회주의적 축적 실현의 중요 형태는 생산적 및 비생산적 건설에 대한 기본 건설 투자이다.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기본 건설 투자의 분배 방향은 생산적 건설 특히 중공업 건설을 위주로 하면서 동시에 도시와 농촌에서 주택 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는 데 있다.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공업 건설에 대한 투자의 비중은 지난 3개년 계획 기간의 49.6%로부터 약 55%로, 공업 건설 투자중 중공업 건설에 대한 투자의 비중은 81.1%로부터 약 83%로 제고될 것이며 주택 건설에 대한 비중은 12%로부터 14.3%로 제고될 것이다.

그리고 투자 총액의 현저한 장성에 기초하여 경공업과 농촌 경리에 대한 기본 건설 투자는 계속 장성하게 될 것이다. 기본 건설 투자의 이와 같은 분배는 5개년 계획의 전반적 과업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 부문들에 투자를 집중시킴으로써 자금의 합리적 리용과 기본 건설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한다.

우리 당 제 1차 대표자회에서 채택된 제 1차 5개년 계획에 관한 결정에는 《공업 건설에서는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직 복구하지 못한 기업소들을 완전히 복구하며 기존 기업소들을 더욱 완비, 개건, 확장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일부 기업소들의 신설을 이에 배합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되여 있다. 투자의 경제적 효과성을 제고할 데 대한 우리 당의 이 방침은 제한된 자금 원천으로써 생산 장성의 높은 템포를 유지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은 자금 문제 해결의 중요 방도들은 엄격한 절약 제도와 밀접히 결부되여 실현됨으로써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민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엄격한 절약 제도를 실현하며 내부 원천을 증가시키는 것은 전체 5개년 계획의 수행에 있어서 중심적인 문제로 제기된다. 일체 비경제적 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생산 원가와 건설 원가를 부단히 저하시키며 엄격한 경제적 타산에 기

초하여 경제를 관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최고 인민 회의 제 2기 제 1차 회의에서 한 김 일성 동지의 연설).

우리의 일부 기업소들에는 아직도 비경제적 현상들과 리용되지 않고 있는 내부 예비들이 허다히 존재하고 있다. 일부 기업소들에서는 원자재의 초과 지출, 오작품과 불합격품의 생산, 사고로 인한 기계 휴전 등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소의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독립 채산제를 더욱 강화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많은 기업소들은 엄격한 절약 제도를 확립하고 내부 독립 채산제를 강화하여 자금을 적게 들이고 보다 많은 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례컨대 김책 제철소 일'군들은 독립 채산제를 강화하고 원가를 체계적으로 저하시킴으로써 작년도 실적 원가에 비하여 2억 8천 600만 원에 달하는 리득을 국가에 주었으며 꼭스 회분을 14% 이하로 저하시키고 꼭스 톤당 생산에 무연탄을 136 키로그람 사용함으로써 년간을 통하여 4만 6천 톤의 꼭스 원료탄, 421만 키로와트시의 전력, 그리고 3만 여 공수의 로력을 각각 절약할 수 있는 예비를 찾아내였다.

황해 제철소의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은 용광로 및 해탄로를 복구 건설하는 투쟁에서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여 많은 물자들과 로력을 절약하였다.

당의 경제 정책의 정당성을 더욱 똑똑히 인식하게 된 기술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창발적 발의에 의하여 선진적인 전기 용접 방법을 도입함으로써 무려 25만 여 메터에 달하는 육중한 제관, 철골물 제작을 보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 많은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였다.

이 제철소의 설계 일'군들은 자체의 손으로 용광로 및 해탄로 복구 건설에 필요한 모든 설계를 완성하기 위하여 허다한 애로와 난관들을 극복하면서 설계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들은 배우며 하자는 구호하에 현장 로동자들과 머리를 마주 대고 구상을 하였으며 설계를 고치기도 하였으며 모형도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용광로 주 스키프 계통의 자동화, 기계화 설계와 평량차 같은 어려운 설계를 훌륭히 해내였다. 뿐만 아니라 적은 설계 인원으로써 1년 반 동안에 약 8,000 여 매의 도면을 그렸으며 설계 단계에서 1억 4천 657만 여 원의 자금을 절약케 하였다.

이와 같이 황해 제철소 일'군들은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모든 설비가 최신 기술로 장비된 현대적인 용광로와 해탄로를 복구 건설하면서 많은 자금을 절약하였다.

최근 청진 방적 공장 로동자들은 년초에 결의한 절약 과제보다 3억 6천 여만 원을 더 절약하여 도합 4억 1천 여만 원을 절약할 것을 결의하였다.

인민 경제 각 부문의 기업소들에서 기술, 생산, 재정 계획의 체계를 광범히 도입하며 내부 채산제를 더욱 강화하여 내부 예비를 남김 없이 동원 리용한다면 우리는 자금 원천을 더 많이 얻어 낼 수 있다.

절약을 위한 투쟁은 물질적 생산의 령역에서는 물론 국가 사회 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또는 주민들의 일상 생활에서 광범히 전개되여야 한다. 여기에 있어서 국가 관리비의 체계적인 저하와 주민들의 대중적인 저축 운동의 전개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도시와 농촌에서 주민들의 소득이 현저히 증대됨에 따라 그들의 저축 운동은 더욱 광범히 전개되고 있다. 주민들의 개인 소비 생활에서 랑비를 근절하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절약하여 이를 저축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을 사회주의 건설자답게 견실하게 꾸려나갈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금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축 운동을 더욱 광범히 전개하며 저금 사업을 부단히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농업 협동 조합들의 경제적 토대가 공고화되고 농민들의 생활 수준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오늘 농촌에서의 대중적 저축 운동의 광범한 전개는 아주 중요하다. 우리는 농촌 신용 기관들의 저금 사업을 개선 강화하는 한편 농촌 신용 협동 조합들을 조직 경제적으로 강화하고 그의 역할을 제고함으로써 농민들의 여유 화폐를 광범히 동원하여 자금 원천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 엄격한 절약 제도를 실시하며 국가 축적을 장성시킴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재정 규률을 일층 강화하고 재정 신용 기관들의 원에 의한 통제를 강화하는 문제이다.

이와 아울러 외화 문제는 제 1차 5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자금 문제의 중요한 측면의 하나이다. 외화는 우리 인민 경제에서 기술 발전을 촉진시키고 인민 경제 각 부문의 균형을 보장하며 민족 경제의 자립적 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중요 공간의 하나로 되고있다.

그러므로 수입품의 소비를 엄격히 절약하며 수입에 의존하는 자재를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대치시킴으로써 외화를 극력 절약하는 한편 수출 자원을 적극 동원하여 외화를 더 많이 획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 ※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는 제 1차 5개년 계획의 성과적 수행을 위한 자금 원천들과 자금 문제 해결의 중요 방도들이 있다. 우리는 근로 대중의 창발성과 그들의 집체적 지혜를 적극 발양시킴으로써 자금 원천을 더욱 증대하며 자금을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는 제 1차 5개년 계획의 첫해인 1957년 인민 경제 계획을 수행하는 행정에서, 경제 지도 사업을 개선하며 근로 대중의 창발성을 발양시킴에 있어서 많은 경험을 얻었으며 또한 이에 기초하여 거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1957년 인민 경제 계획 수행에서 우리는 증산과 절약을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 긴장성을 띠였던 재정 발란스를 현저히 완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230억 원의 수입 초과로써 국가 예산 집행을 보장하였으며 원의 구매력을 더욱 제고하고 국가의 자주적 재정 토대를 일층 강화하였다.

《절약하여 증산하자》라는 당의 구호하에 내부 예비를 더 많이 찾아내고 엄격한 절약 제도를 실시함으로써만 제 1차 5개년 계획 수행에 소요되는 자금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 강령 초안에 관하여

뻬. 페도쎄예브
이. 뽀멜로브
웨. 체쁘라꼬브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 중앙 위원회 꼬미씨야에서 작성한 공산주의자 동맹 강령 초안이 지난 3월에 유고슬라비야에서 발표되여 현재 토의중에 있다. 이 초안은 금년 4월 22일에 소집될 제 7차 대회의 심의에 부치게 될 것이다. 유고슬라비야 출판물의 보도에 의하면 유고슬라비야의 공산주의자들은 강령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위하여 초안 토의 과정에서 많은 의견과 제의들을 제기하고 있다.

강령을 토의하며 채택한다는 것은 매개 공산당들의 생활에 있어서 커다란 사변으로 된다. 이것은 당의 내부 사업이다. 그러나 이것은 당연히 다른 나라 공산주의자들에게 있어서도 관심사로 된다.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 강령 초안이 주목을 끄는 리유는 또한 그 초안에서 론의되는 문제들이 유고슬라비야 내부 문제를 훨씬 벗어나는 문제들이기 때문이라는 데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강령 초안 서론 부분에 바로 다음과 같이 지적되고 있다: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의 강령은 세계의 현 시기의 모순을 분석하고 있으며 세계의 사회적, 경제적 및 정치적 관계의 일반적 문제들에 대한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들의 견해와 립장을 규정하고 있다.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의 강령은 현 시기 국제 로동 운동과 세계 사회주의 발전의 일련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원칙적인 견해를 표시하고 있다》*(8페지).

※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 강령 초안》. 쿨투라 출판사, 1958년 3월, 벨그라드. 이하 강령 초안의 인용 페지는 이 책에 의한 것이다.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의 강령 초안을 읽을 때 이 강령 초안에 일련의 맑스—레닌주의적 명제들이 포함되여 있으며, 정확한 일반적 결론들도 적지 않게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거기에는 유감스럽게도 맑스—레닌주의의 리론 및 실천,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리론 및 실천과는 명백히 어긋나는 명제들도 허다히 있다. 이러한 것으로는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들 수 있다. 즉 현 국제 관계의 발전에 관한 문제, 두 개의 세계적 체계에 관한 문제, 각국에서의, 우선 쏘련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에 관한 문제, 사회주의 국가에 관한 문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관한 문제와 사회주의 나라들 간의 호상 관계 및 공산당들 간의 호상 관계에 관한 문제, 현대 수정주의와 교조주의에 대한 리해에 관한 문제들이다.

강령 초안에 포함되여 있는 현 국제 정세에 대한 평가, 세계 사회주의 체계와 국제 로동 운동 및 공산주의 운동의 발전에 관한 평가는 일련의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서 1957년 11월의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에서 채택된 선언과 평화 선언의 평가와 어긋난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강령 초안 작성자들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현 단계에 있어서 《일련의 리론적 및 실천적 문제들에 대한 일정한 견해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어떤 부분적 문제들이 아니라 사회주의 리론과 실천에 관한 원칙적 문제들이 바로 문제로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적 문제들에 대하여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의 강령 초안은 특수한 개념들을 내놓고 있다.

오늘 유고슬라비야에서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 강령 초안을 토의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강령 초안의 작성자들이 우리의 의견을 호의적으로 접수 고려할 것을 희망하면서 일련의 원칙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약간의 동지적 의견을 말하려 한다.

* *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 강령 초안에는 현대 자본주의에 관한 문제와 사회주의에로의 이행 방도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이 혁명적인 사회주의적 개조의 방법과 아울러 진화적 개조 과정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이 중심 사상으로 되여 있다. 사회주의 사회가 진화적 방법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시도는 현대 자본주의의 특징으로 되는 제 현상과 과정에 관한 많은 비과학적, 비맑스주의적, 비레닌주의적 고찰을 하게 하였다.

강령 초안에는 독점 자본주의에 관한 옳은 명제들이 그릇된 분석들과 뒤섞여 있다. 특히 현재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지배하고 있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개소가 그러하다. 이 강령 초안에서는 자본주의에 고유한 내적 경제적 합법칙성에 대한 분석은 뒤로 밀리우고 국가 독점 자본주의의 발전에 있어서의 정치적 요인들이 전면에 내세워지고 있다.

초안 작성자들은 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부르조아 국가의 증대된 역할에 대해서는 옳게 지적하면서도 독점 자본과 그 국가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릇되게 설명하고 있다. 강령 초안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고 있다: 국가는 《자본주의적 소유에 대한 사적 관리권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며 사자본의 소유자들로부터 경제와 사회에 있어서의 부분적인 자립적 기능을 박탈하면서 자본에 대한 통제를 더욱더 강화하고 있다.

국가적 관리와 독점체 상층과의 결합 과정은 계속되고 있다. 이 독점체 상층은 자기 활동의 일정한 분야에서 종전의 완전한 자립적 역할을 더욱더 상실하고 있으며 독점체의 부분적 기능들은 더욱더 많이 국가로 넘어 가고 있다》(18페지).

국가의 간섭이 독점 자본의 경제적 위력의 토대를 축소한다는 사상은 자본주의 사회의 현실과는 부합되지 않는다. 영국, 이태리, 불란서에서의 개별적 기업소 혹은 개별적 부문의 국유화가 과연 총체적으로 독점 자본의 경제적 위력의 기초를 축소시켰던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것은 기술적으로 락후하고 손실을 보는 산업 부문(석탄 및 기타 부문)에서 독점 자본을 구출해 주었다. 그것은 중하를 납세자들에게 전가하였으며 자본가들로 하여금 자기의 자본을 다른 유리한 부문에 투하할 수 있게 하였다. 그것은 국가 예산에 의하여 락후한 산업 부문들의 재장비가 실시되여 독점체들이 렴가로 석탄, 전력 및 기타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리익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자본주의 국가가 실시하는 통제와 조절이 과연 자본가들의 소유 및 그에 대한 관리의 권한을 제한하며 임금 로동자들에 대한 착취의 정도를 감소시키고 있는가? 물론 그렇지 않다! 레닌의 명제, 즉 누가 누구를 통제하는가, 다시 말하면 어느 계급이 통제하며 어느 계급이 통제를 받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기만 하면 충분할 것이다. ——그러면 부르조아 국가의 통제와 조절이 독점체들의 리익을

위해서 로동 계급을 반대하여 실시되는 것이라는 것이 명백해 질 것이다.

국가 독점 자본주의의 장성은 독점체들이 가일층 강화됨을 의미하며 그들의 수중에 경제적 및 정치적 권력이 가일층 집중됨을 의미하며 독점체들이 근로자들의 리익을 희생으로 하여 자기들의 협소한 탐욕적 목적에 국가를 리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강령 초안 작성자들이 레닌주의로부터 얼마나 리탈하고 있는가는 그들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서도 볼 수 있다: 《개별적 경제적 기능이 사자본으로부터 국가에로 더 넘어 가면——뿐만 아니라 사자본의 권한은 다른 방법들에 의해서도 제한된다——그만큼 경제에 있어서 재로운, 그 객관적 경향으로 보아 사회주의적인 요소들의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에 대한 압력이 더 나타나는 것이다》(23페지).

강령 초안 작성자들에 의하면 국가는 자본주의 사회의 두 개의 적대적 계급, 즉 부르조아지와 프로레타리아트에 대립되는 초계급적 기관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초안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고 있다: 《국가 기구는 자기의 자립적 기능에 도달하려는 지향에서 사회우에 서게 되며 사자본의 역할이나 로동 계급의 역할을 더욱더 제한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19—20페지).

부르조아 국가가 로동 계급의 역할을 《제한》한다는 것, 더 정확히 말해서 프로레타리아트의 정치적 권리와 사활적인 경제적 리해 관계를 침해한다는 것——이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부르조아 국가가 부르조아 계급의 리익을 반대하여, 독점 자본을 반대하여 나선다고 할만한 어떤 무게 있는 사실을 들 수 있는가? 들 수 없을 것이다! 부르조아 국가는 대자본가들의 리익을 위해서 중 소 자본가들을 반대하여 나설 수 있으며 또 실지로 나서고 있다. 그는 물론 이런 또는 저런 개별적 주식 회사를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반드시 부르조아지의 전면적 리익을 위해서, 독점 자본의 리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레닌이 정당하게 지적하였고 또 생활이 매일 확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생산의 가일층의 독점화와 가일층의 국유화는 불가피적으로 근로 대중들에 대한 착취의 강화, 억압의 강화, 착취자들에 대한 반항의 곤난, 반동과 군사적 독재의 강화를 동반하며 동시에 이여의 모든 주민층을 희생으로한 대자본가들의 리윤의 비상한 증대를 가져 오며 채무에 대하여 수십억의 리자를 지불하는 형식으로 자본가들에게 바치는 공납에 의한 근로 대중의 수십년간의 노예화를 가져 온다》(《레닌 전집》, 제 24권, 로문 판, 276—277페지).

세계 사회주의 체계가 거대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또 그 성과가 자본주의 나라 인민 대중을 고무하고 있는 현 조건하에서 독점 부르조아지는 사회—경제적 성격을 띤 일정한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 강령 초안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르조아 국가가 초계급적으로 되였으며 《로동 및 재산 관계의 부면에서 공평한 조절자로 되고 있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국가 자본주의 체계내에서 진행되는 세력과 진지를 위한 부르조아지와 로동 계급간의 정치적 투쟁에서 균형이 더 많이 달성되면 될수록 국가 기구의 기능은 더욱더 자립적으로 된다》고 주장하는 강령 초안의 내용은 결코 현실 생활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론쟁할 여지 없이 일련의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프로레타리아트의 력량은 장성되였다. 그러나 국가 기구는 여전히 제국주의적 부르조아지의 수중에 남아 있으며 그들의 의사를 실행하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 조건하에서 국가의 《자립성》에 관한 명제는 부르조아 국가의 계급적 본질을 말살해 버리며 혁명적으로 주권을 쟁취할 데 대한 력사적 과업으로부터 프로레타리아트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게 한다.

현대 부르조아 국가——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전반적 조건을 보위하기 위한 자본가 계급의 기관인 것이다. 이것은 실제에 있어서 자본가들의 국가이며 리상적인 총체적 자본가이다. 국가가 더 많은 생산력을 자기의 소유로 가지면 가질수록 그는 더 많은 수의 공민을 착취하게 된다. 이에 있어 로동자는 의연히 임금 로동자로, 프로레타리아트로 남아 있으며 자본가는 자본가로, 착취자로 남아 있다. 국가—독점적 소유는 생산력과 생산 관계간의 충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을 뿐이다.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개별적 경제 부문의 국유화는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부문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서는 직접 사회주의로 인도할 수는 없다. 이것은 사실이 확증하고 있다. 례를 들면 영국의 레이버당 정부는 몇 개 산업 부문의 국유화를 실시하였으나 나라를 사회주의로 인도하지 못하였다. 사회주의의 도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로동 계급이 자기의 정치적 지배를 확립하며 기본 생산 수단을 자기 수중에 장악하며 사회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이 완수된 나라들에만 사회주의는 존재하는 것이다. 맑스—레닌주의자들은 언제나, 국가 자본주의는 그 자체로서는 사회주의로 이행하지 않으며 오직 사회주의 혁명을 통하여서만 사회주의로 이행한다는 데로부터 출발하였다. 국가 독점 자본주의는 다만 사회주의의 창설을 위한 물질적 전제 조건을 강화할 뿐이다.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의 강령 초안에는 옳은 명제들과 함께 이와 모순되며 자본주의 내에서 《사회주의적 현상들》, 《요소들》, 《경향들》을 단순히 증대시키고 축적하는 방법으로, 즉 자본주의 제도내에서 사회주의를 자연 발생적으로 장성시키는 방법으로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하는 그러한 명제들도 적지 않게 포함되여 있다. 례컨대 《로동 계급의 자각적인 정치적 활동만이》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강령 초안 작성자들은 여기서 이 활동을 다만 《주권 기관》 즉 현존 부르조아 주권내에서의 《지도적 역할을 위한 투쟁》에 귀착시키고 있다. 그들은 《국가 자본주의 체계내에로의 사회주의적 경향의 침투》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며, 《국가 자본주의적 관계의 특수한 형태는 자기의 보존을 위한 자본주의의 최후의 노력으로도 될 수 있고, 사회주의에로의 제 1보로도 될 수 있으며 또 이 량자로 동시에 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설정하는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맑스—레닌주의는, 《자본주의는 스스로 자기의 매장자를 만들며 스스로 재 제도의 요소들을 창조하기는 하나 그와 동시에 이 개별적 요소들은, <비약>이 없이는 일반적인 정세를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하며 자본의 지배를 건드리지 못한다》고 인정한다(《레닌 전집》, 제 16권, 로문 판 318페지, 조선문 판 439페지).

강령 초안 작성자들은 산업을 국유화하며 국유화된 생산 및 사'적 생산의 관리에 로동자들이 참가하기 위한 성과적 투쟁 여하에 《소위 경제적 민주주의의 발전 정도가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적 생산의 《관리》에 로동자들이 참가한다는 것은 대중적 정치 투쟁과 떨어져서 그 자체로서는 혁명적 사회주의적 성격을 띠지 않는다. 대중적 정치 투쟁과 결부되지 않는 이러한 구호는 로동자 조직을 자본주의 체계로 순응 변생케 하라는 호소이며 혁명적 투쟁을 거부하라는 호소 이외의 다른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강령 초안에서는 또한 식민지적 억압으로부터 해방된 나라들의 사회적 발전 방도에 관한 문제를 극히 단순히 설명한 것이 주목을 끈다. 이 복잡한 문제가 이 나라들의 특수성과 이 나라들의 발전에 영향을 주는 모든 내외의 요인들을 전면적으로 타산함이 없이 설명되고 있다.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 강령 초안 작성자들은 부르조아 국가를 초계급적 기관으로 보면서 낡은 부르조아 국가 기구의 파괴와 재로운 프로레타리아 국가 기구의 창설에 관한 레닌적 학설로부터 물러 서고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문제가 다만 소여의 국가 기구

를 통제하기 위한 로동자들과 자본가들 간의 투쟁에 귀착되고 있다. 부르조아지는 《무엇보다도 국가 주권 기관에 대한 자기들의 결정적 통제로써 자기들의 진지와 중요한 사회적 특권을 가능한 한 더 유지하려고 노력한다…이와는 반대로 로동 계급은 경제적 기능의 사회화를 확대하고 촉진하며 이 기능을 관리하는 기관에 대한 결정적 영향력을 쟁취하며 국가 주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투쟁하면서 의식적으로 또 자연 발생적으로…부르조아지의 이 특권을 청산 혹은 제한하는 방향에서 부단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강령 초안에는 씌여 있다(25페지). 초안에는 또한 《주권 기관에서의 지도적 역할》(24페지)을 쟁취하며 《국가 기관을 사회의 충복으로 전환시키려는》(20페지) 로동 계급의 투쟁이 국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다고 지적되여 있다.

력사적 경험이 가르치고 있으며 현대 사회 발전에 대한 맑스—레닌주의적 견지에서의 분석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나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의 필수적 전제 조건으로 되는 것은, 그 전위대를 선두로 하는 프로레타리아트가 국가 주권을 장악하는 것, 로동 계급의 정치적 지배와 이러저러한 형태의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 확립하는 것, 이 주권의 방조하에 생산 수단을 전 인민적 국가적 소유로 전환하는 것, 사회주의적 개조를 실시하는 것 등인 것이다.

공산당들은, 사회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이런 또는 저런 나라의 구체적 조건에 따라 폭력적 방법으로도, 평화적 방법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평화적 방법도 혁명적 발전의 방법이며 그 형태중의 하나이다. 일부 유고슬라비야 리론가들은, 어느 것이나 다 혁명적 방법인 폭력적 방법과 평화적 방법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적 방법과 《진화》적 방법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바, 그 중에서 둘째 것은 혁명적 방법이 아닌 것이다.

사회주의 원칙에서의 사회의 혁명적 개조를 위한 로동 계급의 투쟁은 반드시 그것이 맑스—레닌주의 당의 령도하에서 진행되는 때에만 성과적인 것으로 될 수 있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의 강령 초안 작성자들은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비혁명적, 진화적 방법의 가능성을 허용하느니만큼 그들은 자연히 당의 령도적 역할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혁명적 로동 운동에 있어서의 공산당의 령도적 역할을 《독점》이라고 부르고 있다. 《공산당들은 사회주의에로의 모든 형태의 운동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주의는 공산당 속에서 또 공산당들을 통하여 표현된다는 관념은 리론적으로 옳지 못하며 실천적으로는 매우 유해한 것이다》(54페지)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다.

초안 작성자들은 심지어, 개별적 나라들에 있어서는 로동 계급은 도대체 자기의 정당이 없이도 정권을 잡을 수 있고 사회주의로 갈 수 있다고까지 인정한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사실상 로동 계급의 전형적 정당이 없는 나라들, 례컨대 미국과 같은 나라들에서는 로동 조합에 조직된 로동자 대중이 무엇보다도 로동 조합을 통하여 자각적 사회주의 력량의 장성 과정에 더욱더 인입되며, 로동 계급의 사회적 세력의 강화와 주권 체계 내에서의 그의 주도적 역할을 위한 투쟁 과정에 더욱더 인입될 가능성이 가장 많다》(57페지). 이러한 결론을 지을 수 있게 하는 그 어떠한 사실이 과연 있는가? 로동 조합들, 더우기 자본주의 제도를 옹호하는 립장에 서 있는 현재의 미국 로동 조합들이 미국을 사회주의로 인도할 수가 과연 있겠는가? 이러한 주장은 필시 미국 로동 조합 지도자들 자신도 몹시 놀래게 할 것이다.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 강령 초안은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업적에 대하여 언급은 하고 있으나 현 단계에 있어서의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장성과 그 대렬의 결속 및 단결의 강화에 대하여서는 거의 아무 것도 말하지 않고 있다. 공산당들의 사업상 결함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에 중심이 옮겨져 있다. 이 당들에는 《관료주의, 교조주의, 좌경적 언사로써 음폐된 기회주의, 종파주의, 자기 힘에 대한 과장된 표상, 사상적 및 정치적 독점 등등》(53페지)이 뿌리 박혀 있는 것으로 되여 있다. 이러한 주장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으며, 형제적 공산당들 간의 사상—정치적 통일을 강화하기 위하여 진행될 수 있는 원칙적이고 동지적인 비판과는 하등의 공통성도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세계 공산주의 운동은 커다란 앙양기에 놓여 있다. 작년 가을에 모쓰크바에서 진행된 형제적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는 이 운동의 통일과 단결 및 그 거대한 성과를 뚜렷이 시위하였다.

＊　＊

국제 관계를 해명함에 있어서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 강령 초안의 엄중한 결함으로 되는 것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두 체계에로의 세계의 분렬과 같은 전 세계사적 사실을 무시한 점이다. 하긴 이 문건에 《사회주의 세계》라는 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말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세계 사회주의 체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극히 애매몽롱한 것을 의미한다. 초안에는,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유고슬라비야는 《사회주의 세계, 즉 현대 인류의 사회주의적 및 진보적 력량의 구성 부분이다》(78페지)라고 지적되여 있다.

초안은 현 세계 발전의 기본적 모순, 즉 자본주의 나라들의 로동 계급과 경제적으로 락후한 나라들의 인민 대중의 지지를 받으며 장성 강화되고 있는 세계 사회주의 체계를 한편으로 하고 자기 세기를 다 산 그러나 아직도 상당히 강대한 진지를 유지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계를 다른편으로 하는 이 량자 사이의 모순과 투쟁을 응당하게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두 개의 세계적 체계의 존재에 관한 문제가 본질상 두 개의 군사—정치적 뿔럭에 관한 문제로 바뀌여지고 있다. 비록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이 현존 뿔럭들의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 본질과 역할을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 초안에 지적은 되여 있으나 국제 긴장 상태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에 있어서는 두 뿔럭간에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쟁 위험의 근원은 제국주의의 본질 자체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초안 작성자들은 국제 긴장 상태의 근본 원인을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 정책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군사—정치적 뿔럭의 존재에서 보고 있다. 이것은 국제 긴장 상태의 원인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명제에 명백히 배치되는 것이다. 평화 선언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 있다: 《평화와 제 인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은 어디에서 오는가? 전쟁에 관심을 가지며 전쟁을 갈망하고 있는 것은 두 차례의 세계 대전과 오늘날의 군비 경쟁에서 전례 없이 치부한 자본주의 독점체들이다》. 또한 선언에는 《자본주의 독점체들, 특히 미국 독점체들의 압력하에 일부 자본주의 제 국가 지배층들은 군비 축소 및 핵 무기 금지에 관한, 새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타 대책들에 관한 제안들을 거부하고 있다》고 씌여 있다. 동시에 평화 선언은 지적하기를 《어느 사회주의 국가에도 전쟁에 리해 관계를 가지는 계급이나 사회층은 없다. 이 나라들에서 주권을 잡고 있는 것은 모든 전쟁에서 가장 많은 희생을 당한 로동자, 농민들이다. 과연 그들이 새 전쟁을 원할 수 있겠는가? 공산주의자들의 목적은 전반적인 복리와 모든 인민들의 번영과 제 민족간의 영원한 평화가 보장되는 그러한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제 국가에는 공고한 평화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평화 선언(부언하면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 대표들도 이 선언의 작성에 참가하였으며 그것을 채택하는 데 찬성하였다)은 평화 위업에 대한 위험은 자본주의적 독점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공산당들이나 사회주의 국가들에는 전쟁의 도발과 타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추동하는 근원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런데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의 강령 초안은 전쟁 위험의 근원을 쁠럭들의 존재에서 보고 있으며 사회주의 제 국가의 평화 애호 정책과 제국주의 국가 지배층들의 침략 정책을 동렬에 놓고 있다.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모순을 첨예화시키는 자본주의 발전의 불균등성의 심화이라던가 서부 독일 군국주의의 재생이라던가 미국의 침략 정책이라던가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의 군사화 등에 대하여서는 강령 초안에 일언반구도 언급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매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사회주의 제 국가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에 의하여 채택되였고 전체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지지를 받은 선언에서 제국주의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 과업이 특히 강조된 것만큼 더구나 이 모든 문제들이 공산주의자들의 강령에서 묵과될 수 없을 것이다. 선언에는 다음과 같이 씌여 있다: 《미국의 침략적 제국주의 계층들은 소위 힘의 립장에 선 정책을 실시하면서 세계의 대다수 국가들에 대한 지배권을 쟁취하려고 애쓰고 있으며 사회 발전 법칙에 의한 인류의 전진 운동을 저해하려 하고 있다. 그들은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의 구실 밑에 더욱 많은 수의 나라들을 자기의 지배하에 두며 민주주의적 자유의 말살을 사촉하며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들의 민족적 독립을 위협하며 해방된 인민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식민지 멍에를 들씌우려고 시도하며 또한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는 계통적이며 적대적인 파괴 활동을 감행하고 있다. 미국의 일정한 침략 계층들은 자기의 정책으로써 자본주의 세계의 모든 반동 세력을 자기 주위에 집결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계층들은 세계 반동의 중심으로 되고 있으며 인민 대중들의 흉악한 원쑤로 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 강령 초안 작성자들의 안중에는 없었다. 초안을 읽으면 비판의 예봉이 객관적으로는 사회주의 국가들과 로동자 당들에 돌려졌다는 인상을 받게 되며 쁠럭들을 비판한다는 기치 밑에 사실에 있어서는 공산당들과 사회주의 진영의 통일을 비판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국주의자들, 오직 제국주의자들 만이 힘의 립장에 선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강령 초안 작성자들은 이 정책을 사회주의 국가들에도 뒤집어 씌우고 있다. 초안 작성자들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국제 관계의 더 장기적이고 더 공고한 안정이 불가능한 것은 무엇보다도 현대의 제 모순의 첨예성으로 말미암아 이런 또는 저런 대강국 또는 쁠럭이 순전히 힘의 립장에서 국제 관계에 대하는 정책을 더욱더 쓰지 않을 수 없게 한다는 사실로부터 흘러 나오는 것이다》(68페지).

강령 초안은 《령도권주의》(헤게모니즘)라는 말로써 제국주의 국가들의 정책이나 사회주의 국가들의 정책이나 동일하게 평가하면서 평화 애호 인민들이 서부 렬강 지배층들의 제국주의적 정책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제기하는 모든 비난을 하등의 근거도 없이 철저한 평화 애호적 대외 정책을 실시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에까지 돌리고 있다.

례컨대 쏘련이 《힘의 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가? 물론 아니다! 힘의 정책——이것은 세계 제패를 위한 세계 전쟁의 준비이며 자기의 명령을 타국에 강요하는 것이며 세계를 착취하며 독점적 초과 리윤을 획득하려는 지향이다. 쏘련은 평화 애호적 대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쏘련은 어떠한 침략적 략탈적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않다. 쏘련은 타국 령토를 침략하며 타국 인민을 략탈할 어떠한 경제적 동기도 가지고 있지 않다.

힘의 정책은 《힘》에 의해서 력사 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의 작용을 저지하거나 심지어 페지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독점 부르죠아지의 세계관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것이다. 이것은 사멸하는 계급의 신념의 상징이다. 쏘련은 부르죠아 관념론적 《폭력론》과는 인연이 없으며 자기 생애를 끝마친 사회 제도의 다른 선진적 제도에 의한 교체를 제약하는 객관적인 력사적 합법칙성으로부터 출발하는 맑스—레닌주의에 기초하여 자기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강령 초안에 포함되여 있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 즉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강국도 참가하고 있다고 하는 소위 《리익권(利益圈)》, 《세력권》의 분할이라는 주장은 단호한 항의와 분격을 일으키고 있다. 초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리익권의 분할 방법과 기타 류사한 정치적 형태는 이미 테헤란, 얄따 및 포츠담에서의 련합국 수뇌자 회담들에서 나타났는데 전후 시기에도 계속되여 왔다》(68—69페지). 초안의 다른 개소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 있다: 《리익권의 정책은 국제 관계를 악화시켰으며 앞으로도 악화시킬 것이다. 독일, 조선, 월남 민족들은 각이한 사회 제도와 인위적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로 분렬되여 살고 있으며 공개적인 충돌의 은폐된 온상으로 되고 있다》(68페지).

쏘련은 테헤란에서도 얄따에서도 포츠담에서도 자국을 위하여 어떠한 《리익권》도 《세력권》도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회담들에서 쏘련은 중앙 및 동남 구라파 제 국가의 민족적 독립과 국가 주권을 위하여 투쟁한 것이지 결코 자국의 세력권을 위하여 투쟁한 것은 아니다. 이것은 파씨즘의 기반으로부터 해방된 일련의 나라 인민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적 발전의 길을 택할 수 있게 한 하나의 조건으로 되였다.

독일, 조선 및 월남 인민들이 분렬되여 있다는 사실에 관해서 말한다면 이것은 이 매개 나라들의 평화적 통일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 공식 문건에 의하여 알려진 바와 같이 지금까지 이 문제들 례컨대 독일 문제에 있어서 쏘련과 유고슬라비야의 립장은 상치되지 않았다. 유고슬라비야 련방 인민 공화국 대통령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의 쏘련 방문과 관련하여 발표된 쏘련, 유고슬라비야 련방 인민 공화국 공동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상기시키려 한다: 《…량국 정부는 전후 독일 령토 우에서 두 개의 주권 국가가 형성된 현재에 있어서는 그의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독일 련방 공화국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간의 회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량국 정부는 또한 기타 국가들 우선 렬강들이 독일 인민의 리익과 전반적 리익을 위하여 동일한 방향에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인정한다》.

강령 초안 작성자들은 사회주의 진영에는 군비 경쟁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군비 경쟁에 관해서, 《군비에 의한 힘의 균형》의 정책에 관해서, 핵에네르기의 리용에 관해서 다시금 량쪽에다 비난의 화살을 던지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에 속하는 나라들은 군비 경쟁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물론 사회주의 국가들은 자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조치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사회주의 진영에 속하지 않는 국가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적지 않게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쏘련과 기타 사회주의 나라들의 대외 정책에 대한 강령 초안의 비난은 유고슬라비야 정부 대표단의 모쓰크바로부터의 귀환과 관련하여 유고슬라비야 련방 인민 공화국 대통령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가 1956년 6월 28일 벨그라드 군중 대회에서 한 연설과 모순된다는 것이 눈에 띄운다. 당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성명의 국제 문제에 관한 부분에서 평화의 강화와 국제적 협조에 관한 문제, 국가들 및 인민들 간의 관계에 관한 문제, 각이한 사회 제도를 가진 국가들 간의 평화적 공존에 관한 문제 등 많은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들의 견해는 일치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찌또 동지는 《쏘련 인민에게는 무엇보다도 평화가 귀중하며 쏘련 고위 지도자들도 인민과 이 지향을 같이 하고 있다》는 데 대하여 매우 확신 있게 말하였던 것이다.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 강령 초안에 서술되여 있는 국제 관계의 새로운 구상을 결코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바 거기에서는 사회주의 진영의 대외 정책을 제국주의 진영의 대외 정책과 동렬에 놓고 있다.

쏘련은 기타 사회주의 제 국가와의 밀접한 협조하에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과 어깨를 나란이 하여 새 전쟁을 방지할 목적으로 커다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쏘련은 국제 긴장 상태를 완화하며 군비 경쟁을 종식시키며 핵 무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많은 새로운 건설적 제안들을 내놓았으며 일련의 대외 정책상 조치들을 취하였다. 얼마 전에 쏘련 최고 쏘베트는 쏘련에서 원자 및 수소 무기의 시험을 일방적으로 중지할 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쏘련 최고 쏘베트는 미국과 영국에 대하여 쏘련의 모범을 따를 것을 호소하였다. 그런데 쏘련의 제의가 미국 기타 서방 렬강의 지배층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과연 쏘련의 책임인가? 서부 렬강이 쏘련의 모범을 따르려 하지 않으며 원자 및 수소 무기의 시험을 중지하지 않으려는 데 대한 책임이 과연 쏘련측에 있는가? 쏘련, 중화 인민 공화국 및 기타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는 그들에게 부과된 력사적 사명을 인식하면서 평화와 인민들의 안전을 위한 정책을 확고히 그리고 철저하게 실시하고 있다.

✽ ✽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의 강령 초안 작성자들은 쏘련 및 기타 사회주의 제 국가에서의 사회주의적 발전의 경험에 언급하면서, 이것은 《국제 사회주의를 위하여 귀중한 경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초안에는 다른 나라들에 사회의 진보적 발전의 모범을 보여 준 최초의 사회주의 나라인 쏘련의 력사적 역할을 지적하고 있다. 초안에는 제 2차 세계 대전에서 반히틀러 련합에 참가한 기타 국가들과의 동맹하에 파쑈 세력의 뽈럭에 대하여 승리할 가능성을 쏘련에게 준 공업 토대의 창설과 사회주의적 관계의 가일층의 발전에 있어서 쏘련이 달성한 거대한 성과에 대하여 언급되여 있다.

공업화 령역에서의 성과를 지적하면서도 초안 작성자들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복잡한 사회주의 건설 문제의 하나인 수백만 농민 대중, 개인적 사'적 소규모적 경리를 사회주의적 발전의 길로 이행케 하는 문제에 대한 쏘련의 경험은 이를 완전히 묵살하고 있다. 이 문제가 과연 사회주의 건설의 길에 들어 선 모든 나라 앞에 제기되고 있지 않단 말인가? 만일 사회주의 건설의 경험을 일반화하려 한다면 쏘련에서의 꼴호즈 건설의 풍부한 경험을 어떻게 묵살할 수 있겠는가?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의 강령 초안에는 쏘련이 걸어 온 력사적 행로가 극히 일면적으로 서술되였으며 중화 인민 공화국과 기타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의 사회주의 건설 경험이 응당하게 서술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여야 하겠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쏘련과 기타 사회주의 제 국가의 경험은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과정이 사회주의 길에 들어 선 모든 나라들에 고유한 일련의 주요 합법칙성에 기초한다는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정확성을 완전히 확인하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강령 초안에서는 사회주의 발전의 일반적 합법칙성에는 주의가 돌려져 있지 않으며 그와 반대로 과거 쏘련에 있었던 결함들과 오유에 주의가 집중되여 있다. 강령 초안 작성자들은 쏘련에 있은 결함들과 오유를 그 어떤 《관료—국가 경향》으로 묘사하였는데 이 《관료—국가 경향》이라는 말은 국가 기관을 《사회의 주인》으로 전화하려는 지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강령 초안 작성자들은 있지도 않은 《개인 숭배에 대한 리론적 사상적 정당화》의 시도를 비판한다는 구실 밑에 쏘련 공산당원들을 그들이 마치 우선 국가와 법 리론의 령역에서 맑스—레닌주의의 가장 중요한 명제들을 수정하였다고 비난한다. 초안 작성자들은 《조락되는 국가에 관한 리론과 같은 또 자본주의의 경제적 기초를 파괴하며 새로운 사회주의적 사회 관계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하는 정치적 물질적 조건을 창설하기 위한 로동 계급의 투쟁 수단에 관한 리론과 같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의 리론은 국가에 관한 쓰딸린의 리론으로 전화되였는데, 쓰딸린에 의하면 국가는 조락되지 않으며 그것은 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더욱더 강화되여야 하며 사회주의 건설에서 국가 기관들에 지나치게 큰 역할이, 조만간 사회주의적 사회 및 경제적 요인들의 발전을 저애하게 될 그러한 역할이 부여되여 있다》 (46페지)고 쓰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쏘련에서의 사회 생활과 리론적 사고의 발전 행정을 외곡하는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

쓰딸린이 마치 국가는 조락되지 않으며 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그것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인정한 듯이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국가에 관한 문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에 관한 문제에 대한 쓰딸린의 견해는 맑스—레닌주의의 견지를 표현하였다. 쓰딸린은 맑스주의자로서 당연하게 사회주의 국가를 발전에서 고찰하였다. 그는 사회주의 국가 형태가 변화하지 않은채로 남아 있으며 그의 시초의 모든 기능이 앞으로도 보존되여야 한다고는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 사회주의 승리와 관련하여 쏘베트 사회주의 국가의 형태와 기능은 본질적으로 변화하였다. 쓰딸린은 이러한 변화를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국내에서의 군사적 진압의 기능은 령락, 조락되였다. 그것은 착취가 청산되였고 착취자들이 더는 없으며 또한 진압하여야 할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레닌주의 제 문제》 로문, 11판, 645 페지).

공산주의에 가서는 국가 권력이 없어지며 국가가 조락한다고 한 쓰딸린의 루차의 언명은 널리 주지되여 있다. 쓰딸린은 제 18차 당 대회에서, 만일 자본주의적 포위가 없어지며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침공의 위험성이 근절된다면 공산주의하에서 국가는 조락될 것이며 오직 자본주의적 포위가 의연히 남아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침공의 위험성이 근절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만 공산주의하에서 국가는 일시 보존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언명하였던 것이다.

강령 초안 작성자들은 국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나 기타 일련의 문제들에 있어서나 명백히 불철저한 립장을 취하고 있다. 강령 초안에는 국가를 과소 평가하는 무정부주의적 경향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는 것, 국가는 자본주의 제도의 경제적 기초를 파괴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기초를 창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공간의 하나라는 것이 정당하게 서술되여 있다. 그러나 국가 조락에 관한 테제를 오늘날의 직접적인 중요 과업으로 완강하게 내세우고 있는만큼 사회주의 국가의 중요한 역할의 인정과 국가 권력에 대한 무정부주의적 과소 평가를 반대하는 경고는 하나의 문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강령 초안 작성자들은, 공산주의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존재해야 한다는 사상을 《맑스주의에 대한 국가—실용주의적* 수정》이라고 언명하면서 《그러므로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의 권력이 강화된 이후에 일반적으로 국가의 점차적 조락에 관한 문제가 사회주의적 사회 제도의 기본적이며 결정적인 문제로 제기된다》 (34페지)고 선포하고 있다.

* 실용주의는 현대 부르죠아 철학의 한 조류로서 진리성을 유용성과 동일시 하며 리론을 일시적 실용적 리익에 복종시키고 있는 것이다.

강령 초안 작성자들이 우리에게 국가 문제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원칙을 수정한다고 비난을 던지고 있는만큼 국가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에 관한 과학적 공산주의 창시자들의 견해를 서술하지 않을 수 없다.

승리한 사회주의가 완전한 공산주의로 발전 장성하기까지는 국가를 인정하는 것은 맑스—레닌주의의 초석이다. 레닌은 국가가 완전히 조락되기 위해서는 완전한 공산주의가 요구된다고 루차 언명하였다.

최근 일련의 나라들에서 수정주의 분자들은 《쓰딸린주의》를 비판한다는 구실하에 레닌과 또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에 대한 레닌의,

레닌주의의 태도에 관하여 외곡된 허위적 관념을 류포하였다. 이러한 수정주의자들의 묘사에 의하면 레닌은 거의 자유주의자로 되여 있으며 거의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반대자로 되여 있다. 그러나 바로 레닌이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계급 투쟁에 관한 학설,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에 관한 학설을 전면적으로 완성하였다는 것은 다 아는 바가 아닌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어서는 계급 투쟁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를 띤다는 레닌의 명제는 력사적 경험에 의하여 확증되여 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전복된 착취 계급의 반항 형태는 음모, 태업, 반사회주의적 선전과 비방, 소부르죠아지에 대한 영향, 마지막으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 반대하는 무장 진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에 있어서 국내 착취 계급의 잔당과 국외 망명 자본가, 지주들이 그리고 국제 반동 세력이 역시 반항한다.

로동 계급은 될수록 평화적으로 고통 없이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데 관심을 가진다. 그것은 당연하다. 왜냐 하면 투쟁의 첨예화는 많은 희생을 가져 오며 생산력을 파괴하며 경제적 난관과 혼란, 근로자들의 불행과 곤궁을 가져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로동 계급이 지주와 자본가들로부터 권력과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평화적으로 양보 받을것만을 오로지 기대한다면, 만일 로동 계급이 전복된 착취 계급의 반항을 진압하는 것을 포기 한다면 로동 계급은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쏘련에서의 사회주의의 승리, 세계적 사회주의 체계의 형성, 전 세계 로동 운동 및 민족 해방 운동의 거대한 장성과 관련하여 오늘 비교적 평화적으로 고통 없이 사회주의로 이행할 수 있는 보다 유리한 조건이 조성되였다. 중국과 기타 인민 민주주의제 국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의 극히 풍부한 경험은 사회주의 발전의 이 새로운 가능성의 의의를 똑똑히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에 있어서 적대 분자들의 반항이 격화하며 계급 투쟁이 첨예화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하지는 않는다. 또한 우리는 국제적 환경에 외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두 체계가 존재하는 조건하에서 살며 사회주의 진영을 반대하는 세계 제국주의의 첨예한 투쟁의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특히 1956년의 웽그리야 사변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 약화시킨다면 오늘날에 있어서도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이행하고 있는 나라에서 반혁명적 도발과 진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다. 아직 착취 계급의 잔당이 남아 있고 그들이 소부르죠아 계층에 의거할 수 있는 그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한 세계 제국주의에 의하여 고무되며 그들의 직접적인 지지를 받는 반혁명 활동이 격화될 위험성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의 강령 초안 작성자들은 국가 조락에 관한 문제를 설정함에 있어서 모든 사회주의 나라들의 발전 경험과 현 국제 환경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으며 사회주의 나라들을 반대하는 제국주의 침략의 위험성을 과소 평가하며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어서의 계급적 제 모순도 또한 과소 평가하고 있다.

강령 초안에서는 과도기의 사회 발전의 모순들을 많이 렬거하고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주요한 모순 즉 장성하는 사회주의 력량과 죽어 가는 자본주의 력량간의 모순을 갈라 놓지 않고 있다. 이 주요 모순은 강령 가운데서 많은 말로 서술되여 있는 다른 허다한 모순들로 가리워졌거나 심지어 그 속에서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뿐만 아니라 이 강령 초안의 작성자들은 자본주의의 잔재를 반대하며, 자본주의를 배양하는 소소유자적 요소들을 반대하는 로동 계급의 투쟁 속에서 기본 모순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표현을 빌린다면 경제적 및 기타 사회적 기능을 관리하는 형태와 방법,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에서, 《행정—중앙 집권적 지도》의 점차적 제한 등등의 문제에서 기본 모순을 찾고 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의 모순을 해결한다는 것은 우선 이 문제들을 해결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형태의 부단한 전진 운동을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8페지). 설사 상술한 모든 문제와 또 강령 초안에 제기되여 있으나 우리가 언급하지 않은 문제들이 일정한 의의를 가진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들이 과도기의 모순의 본질이겠는가?

겸해서 말해 두거니와 《행정—중앙 집권적 지도》가 과도기에, 더우기 사회주의 일반에 고유한 모순이라고 하는 초안 작성자들의 견해는 옳지 않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사회주의 사회의 관리 체제는 각이한 단계에 있어서 구체적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조직 형태로 구현되는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레닌적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에 대한 그 어떠한 외곡이 사회주의에 유기적으로 고유한 모순으로 될 수는 결코 없다.

변증법은 현상의 기본적인 모순과 비기본적인 모순을 혼동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다. 만일 정치에서 이러한 혼동을 가져 온다면 근로자들의 통일, 로동 계급과 농민의 동맹을 파괴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주의의 원쑤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력사적 경험이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아직 착취 계급과 소소유자적 요소들이 존재하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어서는 국가 조락에 관한 문제는 실천적 문제로 제기될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착취 계급이 청산된 후에 있어서도, 설사 착취자들을 진압하는 국가의 기능은 이미 없어진다 하더라도 국가는 존재한다. 레닌은, 로작 《국가와 혁명》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한 계급의 독재는 온갖 계급 사회 일반에나 또는 부르죠아지를 전복한 프로레타리아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계급 사회> 즉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갈라 놓는 한 력사적 시기 전체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리해한 사람이라야만 국가에 관한 맑스의 학설의 진수를 해득한 사람이다》 (전집, 25권, 384—385페지, 《국가와 혁명》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57년도 판 40페지).

어째서 국가는 착취 계급이 청산된 후에도 즉시 조락될 수 없는가?

첫째로,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들을 반대하는 파괴적 활동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음모와 군사적 침공으로부터 나라를 보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상반되는 두 사회—정치 제도의 평화적 공존과 경쟁을 주장하고 있으나 침략적 제국주의 계층은 사회주의 나라들에 강제적으로 지주 자본가 제도를 복구하며 사회주의 질서를 청산하려는 음모를 단념하지 않고 있다. 만일 사회주의 나라들이 나라의 방위와 같은 국가의 극히 중요한 기능을 소홀히 하거나 포기하는 길에 들어 선다면 이것은 세계 제국주의 앞에서 무장 해제를 하는 것으로 될 것이다.

둘째로, 사회주의하에서도 친선적인 로동 계급과 농민 계급간의 차이는 아직 남아 있으며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간의 본질적 차이가 제거되지 않고 있으며 아직도 소비품을 충족하게 생산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로동에 의한 분배가 실시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로동 기준과 소비 기준에 대한 사회의, 국가의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 《사회가 <각자는 그의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는 그의 수요에 따라>라는 원칙을 실현하게 되는 때에라야만 즉 사람들이 공동 생활의 기본적 규칙을 준수하는 데 습관되며, 그들이 자기의 능력에 의하여 자원적으로 로동하게 되리만큼 그들의 로동이 능률적인 것으로 되는 때에라야만 국가는 완전히 조락할 수 있을 것이다》 (전집, 25권, 440페지, 《국가와 혁명》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57년 판 115—116페지).

세째로,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한 후에도 아직 장기간 민족적 차이가 남게 된다. 민족적 자주권은 비단 조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실질적으로 보장되며 강화된다. 그러나

민족적 자주권이 국경 문제와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일이다. 국가의 운명을 론할 때에 그의 경계선 문제를 도외시할 수 없다. 레닌주의는 승리한 사회주의가 각 방면에 걸쳐 완전한 민주화를 실시하면서 국가들의 경계선을 민주주의적으로 결정하지 못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다. 사실 국가가 없으면 국경에 대한 문제도 없을 것이 아닌가. 《국가가 <조락>되는 때면 공화제도 없게 될 것이다》(전집, 22권, 309페지)라고 레닌은 말하였다.

그런데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의 강령 초안 작성자들은 국가의 독립을 강화할 데 대하여 말하면서 동시에 국가 조락을 실천적 과업으로 제기하고 있다. 만일 그들이 자기의 립장에 철저하다면 국경 조락에 관한 문제도 제기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 어떤 사회주의 나라에서 국경 조락 문제가 벌써 성숙되였단 말인가? 레닌이 국가 조락 문제를 계급의 완전한 소멸과만 결부시킨 것이 아니라 민족의 보다 긴밀한 접근 및 융합의 문제와 결부시킨 것은 전적으로 정당하였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민족적 압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즉 사회주의적 생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기초 우에서 국가의 민주주의적 조직과 민주주의적 군대 및 기타가 또 필요하다.… 한편 이에 기초하여 사소한 민족적 마찰도 사소한 민족적 불신임도 이를 절대적으로 제거하는 일이 실제로 전개될 것이며 민족들의 접근과 융합이 급속히 이루어질 것이며 이 접근과 융합은 국가의 조락으로써 완성될 것이다》(전집, 제 22권, 로문 판 311페지).

이와 같이 레닌의 관점으로 보면 민족의 접근과 융합은 국가의 조락으로써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것이다.

레닌의 이 교시는 우리 시대에 있어서 실로 절실한 의의를 가진다. 다 아는 바와 같이 많은 국가들은 사회주의적 발전의 길에 들어 서면서 비로소 민족적 독립을 쟁취하였다. 앞으로도 많은 나라들이 사회주의의 새로운 성과와 자본주의의 가일층의 약화에 따라 민족적 자주권을 얻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이러한 조건에서 국가의 조락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이것은 수 세기 동안 식민주의자들의 예속하에 있은 인민들의 민족적 자주권의 쟁취와 국가적 독립의 보장이라는 극히 중요한 문제를 완전히 말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령 초안 작성자들은 국가 조락의 기본적 전제에 관한 문제에 주의를 돌리지 않은 모양이다. 짐작컨대 그들은 약간의 국가 기능이 지금 이미 소멸되여 가고 있는 데로부터 출발하여 국가 기능의 량적 축소가 완전한 국가 조락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서 순전히 량적 관점에서 문제를 고찰한 듯하다.

그러나 개별적인 국가 기능의 변화와 소멸의 문제를 일정한 사회—정치적 현상으로서의 국가 전체의 조락과 혼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회주의 국가는 그것이 급속한 조락의 과업을 내세울 수 있을만큼 그 역할을 다한 것은 결코 아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 발전의 광범한 무대이다.

그 어떤 행정적 조치로나 법령 발포의 방법으로써 국가 조락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 조락 문제는 계급과 계급적 차이의 완전한 소멸, 민족의 가일층의 접근과 융합의 문제이다.

정치는 계급간의 관계이며 민족간의 관계이다. 이 관계는 국가 기구의 령역이기도 하다. 국가 기관의 명칭을 변경할 수도 있고 그의 기능을 사회 단체에 넘겨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기관도, 기능도 본질에 있어서 정치적 성격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사회적 기능이 정치적 성격을 상실하고 사회적 리익을 감시하는 단순한 행정적 기능으로 전환하는 것은 다만 완전한 공산주의하에서, 즉 계급이 청산되고 정신 로동과 육체 로동간의 본질적 차이가 페절되고 민족이 일층 더 접근 융합되는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

사회주의적 개조의 첫 단계들에서 국가 조락에 관한 테제를 당의 강령에서 선포하라는 요구는 현대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쏘련에서는 이미 1918 년에 로씨야 공산당(볼쉐위크) 새 강령 초안을 토의할 때에 일부 리론가들이 이러한 요구를 제기하였었다. 그 때에 레닌은 이러한 요구를 반대하면서 이러한 문제는 리론적 저작, 론문, 강연, 연설 등에서는 제기할 수 있고 또 제기해야 하지만 강령에서는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국가 조락을 미리 선포한다는 것은 력사적 전망에 대한 위반으로 될 것이다》(전집, 제 27권, 로문 판, 123페지)라고 레닌은 썼다.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의 강령 초안을 읽어 보면 강령 초안 작성자들은 사회주의하에서 국가와 민주주의는 량립할 수 없다는 그릇된 관념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짐작컨대 그들은 국가의 페지, 조락이 없이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맑스—레닌주의의 견해와 사회 발전의 행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사회주의 국가에 대립시키고 마치 민주주의 발전은 국가 주권의 약화와 조락의 대'가로써만 가능한 듯이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맑스—레닌주의의 창시자들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에 대립시키지 않았으며 반대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는 민주주의의 최고 형태라고 간주하였다. 《공산당 선언》에서 《프로레타리아트의 지배 계급에로의 전화》와 《민주주의 쟁취》라는 두 개념이 동시에 제기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문제의 이러한 설정은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있어서의 국가와 민주주의와의 호상 관계를 매우 훌륭히 특징 짓고 있다.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는 보통의 국가가 아니며 착취 계급의 독재하에서와 같이 소수가 다수를 억압하는 도구는 아니다.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루차 지적하기를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는 이미 본래의 의미에서의 국가는 아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는 주권이 사회의 다수에, 전체 근로자들에게 속하여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맑스주의 창시자들은 로동 계급의 국가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로동 계급의 국가가 진실로 민주주의적 국가라는 점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맑스는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와 인민 대중과의 불가분리의 련계를 강조하면서 이것은 《인민 대중 자체에게 정권이 넘어 가는 것인바 인민 대중은 그들을 억압하던 조직된 력량의 자리에 자기의 력량을 창설한다…》(맑스, 엥겔스 문집, 제 3권, 제 8장, 327—329 페지)고 썼다.

보건대, 강령 초안을 작성하면서, 국가 조락은 객관적 발전의 장기적 행정이며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확장은 국가의 소멸을 결코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한 것 같지 않다.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때에 가서는 국가와 함께 민주주의 자체도 조락할 것이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 《물론 민주주의는 역시 국가의 한 형태로서 국가가 소멸될 때에는 민주주의도 응당 소멸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직 종국적으로 승리하고 공고화된 사회주의로부터 완전한 공산주의로 이행할 때에 비로소 실현될 것이다》(전집, 제 22권 로문 판 132페지). 후에 레닌은, 자기는 이 명제를 즉 《민주주의는 국가의 한 형태로서 국가가 조락할 때에는 민주주의도 역시 조락할 것이다》(전집, 22권, 로문 판, 309페지)라는 것을 일부러 강조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강령 초안 작성자들은 국가에 대한 우상 숭배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국가의 일정한 형태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있어서는 안 된다. 맑스주의는 모든 현상을 발전에서 고찰하면서 국가나 또는 국가의 형태인 민주주의를 우상화하지 않는다.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의 강령 초안에서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관한 문제, 관료주의와의 투쟁에 관한 문제가 국가 조락과 결부되여 있다. 그러나 관료주의의 극복과 민주주의의 발전은 국가가 조락하는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레닌은 관료주의와의 투쟁에서 무자비하였으며, 이 해독의 근절을 위하여 단호하게 싸웠다. 그러나 그는 관료주의와의 투쟁에서의 투기적 행동을 경고하였다. 직업 동맹에 관한 론쟁이 진행되던 시기에 일부 활동가들이 《국가의 관료주의와 인민 경제의 관료주의를 없애야 한다》는 구호를 제기하였을 때 레닌은 이것은 데마라고 론박하였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 《우리는 1919년에 우리에게 관료주의가 있다고 강령에 써 놓았다. 관료주의를 소탕해야 한다고 당신들에게 제의하는 자는 데마고그다. 만일 당신들 앞에 어떤 자가 나서서 〈우리는 관료주의를 소탕할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데마이다. 그것은 가소로운 일이다. 우리는 장기간에 걸쳐 관료주의와 투쟁할 것이다. 이와 달리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사기'군이며 데마고그다. 관료주의를 없애기 위해서는 수백 가지 대책이 요구되며 한 사람도 빠짐 없이 지식과 문화를 소유하며 한 사람도 빠짐 없이 로농 감독에 참가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이다》(전집, 제 32권, 로문 판, 46—47페지).

관료주의와 투쟁한다는 것은 관리 사업에 대중을 더욱더 광범히 참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쏘련 공산당은 일체 극히 중요한 문제들을 대중이 창조적으로 토의하도록 하며 근로 대중의 창발성과 적극성을 백방으로 발양시키고 있다. 선거 받는 국가 주권 기관의 대표, 사회 단체 대표, 극히 광범한 인민 대중, 수백만 근로자들은 법령 초안, 국가 예산, 인민 경제 계획 및 개개의 기업소의 계획 등을 작성 토의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공업 건설, 주택 건설 및 문화 건설의 방책을 강구하며 인민 경제 관리 문제를 처리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레닌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본질을 바로 이렇게 리해하고 있었는바, 이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발양과 더불어 대중은 국가 관리와 정치 경제적 과업의 토의와 실현에 더욱더 광범하게 참가하게 되는 것이다. 레닌은 이렇게 썼다 : 《민주주의적 조직 원칙이란 대중의 대표자, 공민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법률을 심의하는 데도, 자기 대표를 선거하는 데도, 법률을 실시하는 데도 참가할 수 있도록 조건을 지어 주는 것을 의미한다》(전집, 27권, 로문 판, 185페지).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 강령 초안 작성자들은 《국가 기관과 당 기관의 융합》을 비판한다는 구실 밑에 본질상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로동 계급의 정당의 령도적 역할을 부인하고 있다. 그들은, 당은 다만 《사상적 요소》, 《사회주의 의식을 계발하는 요소》로 되여야 하고 《정치적 요소》, 《정권의 요소》로는 되지 말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사회주의 제 국가에서는 동일한 사상을 가진 공산주의자들의 전투적 조직인 로동 계급의 혁명적 당이 지도적, 향도적 력량으로 되고 있다. 우리 나라와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의 로동 계급은 그 대렬내에 엄격한 중앙 집권과 규률이 있는 조건하에서만 부르죠아를 타도하며 일체의 근로 대중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규률과 조직성은 프로레타리아 선봉대의 자각, 사회주의 위업에 대한 그 헌신성, 그 강의성과 인내성, 대중과의 불가분적인 련계와 옳은 정치적 지도에 의하여 생겨나며 또 유지되는 것이다.

로동 계급의 당의 사명은 비당원 프로레타리아 대중과 전체 근로자를 교양하고 단합시키며 소부르죠아적 동요와 영향을 물리치며 프로레타리아트의 일체 활동을 정치적으로 지도하며 프로레타리아트를 통하여 전체 근로 대중을 지도하는 것이다.

사회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로동 계급의 투쟁에서의 당의 령도적 역할을 인정하는 것은 사회 발전의 객관적 법칙에 관한 맑스주의 학설과는 모순된다고 하는 일부 리론가들의 주장은 전혀 옳지 않다. 공산주의자들은 자기의 활동을 사회 발전의 객관적 법칙에 대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법칙을 연구하고 혁명적 실천을 일반화하며 주관적 희망이나 견해를 지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진리를 지침으로 한다.

비당원 로동자 대중과 전체 근로자를 지도하고 조직하는 당의 역할을 무시하는 것은 과학적 공산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며 자연 생장성의 《리론》과 실천의 표현일 것이다. 로동 계급은 투쟁에서 단결되고 단련된 당이 없이는 사회에 대한 국가적 지도를 할 수 없으며 사회주의 국가의 정책을 수립 실시할 수 없으며 유일한 목적인 공산주의 승리에로 전체 국가 기관과 사회 근로 단체의 활동을 인도할 수 없다. 레닌은 《당이란 직접 통치하는 프로레타리아트의 선봉대이며 지도자이다》(전집, 제 32권, 로문 판, 76페지)라고 교시하였다.

이와 같이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 강령 초안 작성자들은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국가—실용주의적》 수정을 비난하면서 실은 그들 자신이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와 국가 조락과 공산당의 령도 문제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의 기본 명제로부터 물러 서고 있다.

※ ※

최근 수십년 동안 세계에서 일어난 심각한 진보 및 변화와 관련하여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의 역할은 비상히 커졌다. 맑스—레닌주의 당들은 근로자들의 국제적 련대성의 강화와 민족적 과업과 국제적 과업의 옳은 배합에 거대한 주의를 돌리고 있다.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 강령 초안에서도 이 문제의 고찰이 적지 않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동 초안에서는 말하기를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은 《그 대렬내에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사상을 발양시키며 그 정신으로 유고슬라비야 근로 대중을 교양한다》고 하였다. 초안에는 론쟁할 여지 없는 많은 원칙들이 서술되여 있다. 그러나 초안 가운데 서술되여 있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본질과 사회주의 당들 간의 관계의 설명, 그리고 초안 작성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공산당들이 당들의 호상 관계하에서와 사회주의 제 국가의 호상 관계하에서 달성하여야 한다고 하는 목적과 임무의 설명은 일면적이고 국제 공산주의 운동에서 확증된 견해에 배치되고 있다.

웨. 이. 레닌은 이렇게 썼다 : 《실제에 있어서 국제주의는 하나, 오직 하나 뿐이다. 즉 자국내의 혁명 운동과 혁명 투쟁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것, 례외 없이 모든 나라에서 바로 그러한 투쟁, 바로 그러한 로선을 지지하는 것, 오직 그것 하나만을 지지하는 것(선전, 공명, 물질적 원조 등으로)이다》(전집, 제 24권, 로문 판, 제 54페지).

세계 사회주의 체계가 존재하고 국제 공산주의 운동과 로동 운동이 장성 강화되고 각국 인민의 민족 해방 운동이 거대한 규모에 달하고 있는 현재의 조건하에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표현되고 있는가? 그것은 자본주의 세계의 로동 운동이 세계 사회주의 체계를 지지하며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 및 기타 사회주의 제 국가를 지지하는 데서 표현되며, 자본주의 세계의 로동 운동을 사회주의 제 국가의 근로자들이 지지하는 데서 표현되며 각국 공산당의 통일과 단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싸우는 각국 인민과의 련대성에서 표현된다. 오늘날의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리론과 실천에서 새로운 것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가 국제 로동 운동의 원칙으로서의 자기의 모든 의의를 보존함과 동시에 자본주의 철쇄를 분쇄하고 사회주의 사회 건설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나라들의 호상 관계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이 나라들은 평등하고, 동지적 호상 원조의 정신으로 일관한 정치, 경제, 문화적 련계를 호상 설정하고 있으며 생산 경험과 과학 기술의 성과를 호상 교환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 사회주의 제 국가의 호상 원조와 협조, 다시 말하면 이 나라들의 관계에서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가 표현되는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 강령 초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강령 초안에 도입된 관점에 의하면 사회주의 제 국가의 호상 관계의 국제주의적 성격은 단지 평등과 호상 내정 불간섭 원칙을

준수하는 데 귀착될 따름이다.

평등과 내정 불간섭이 각별히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은 론쟁할 여지가 없다. 맑스—레닌주의자들은 모든 민족과 국가의 절대적 평등, 각국 인민의 권리, 그들의 정당한 리익, 그들의 민족적 전통, 감정, 문화를 존중할 것을 항상 요구하였으며 또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초안 작성자들의 견해와, 국제 공산주의 운동과 로동 운동에서 공인된 견해와의 차이의 요점은 평등의 원칙을 엄수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의견 차이의 요점은, 강령 초안에서는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가 전적으로 평등과 내정 불간섭의 원칙에만 귀착되고 사회주의 나라들과 맑스—레닌주의 당들의 통일과 협조를 강화할 필요는 망각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민족 평등을 인정하라는 요구는 소부르조아 민족주의의 특성이기도 하다. 레닌이 지적한 바와 같이 소부르조아 민족주의는 단지 민족 평등을 인정하는 것을 국제주의라고 선언하는 데 그나마도 순전히 말 뿐이고 민족 리기주의를 불가침의 것으로 고수하는 것이다. 레닌은 몇 개 나라에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가 수립되여 전 세계 정치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게 되는 조건하에서는 완고한 소부르조아적 민족주의 편견과의 투쟁은 특히 현실적이고도 긴절한 문제로 되리라는 것을 설명하였다.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는 어떤 조건하에서는 한 나라에서의 프로레타리아 투쟁의 리익을 전 세계적 범위에서의 프로레타리아 투쟁의 리익에 복종시킬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 강령 초안에는 사회주의 제 국가간의 관계는 《독립, 완전한 평등 및 매개 나라의 특수성을 존중하는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71—72페지)고만 지적되여 있을 뿐이다. 강령 초안에서는 사회주의 제 국가와 프로레타리아 당들 간의 관계에서 그러한 원칙들을 확립하기 위한 투쟁이 본질상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유일한 문제로서, 《사회주의 나라들의 호상 관계와 사회주의 운동의 최고 목적》 (61페지)으로서 제기되여 있다.

다음과 같은 응당한 질문이 제기된다. 평등과 불간섭의 원칙이 사회주의 제 국가간의 관계의 전체 본질을 표현할 수 있겠는가? 아니다. 표현할 수 없다. 주권이 근로자들에게 속하여 있으며 그의 운명이 사회 제도와 국가 제도, 리해 관계와 목적의 공통성으로써 밀접히 호상 련결되여 있는 나라들은 평등의 원칙을 엄수하면서도 형제적인 호상 원조, 지지 및 협조를 기초로 하여 그 호상 관계를 수립한다. 각국은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에서 형제 나라들에 백방의 원조와 지원을 주는 동시에 자기 자신도 또한 그들의 원조와 지원에 의거한다. 그러나 평등의 원칙은 결코 위반되지 않는다. 사회주의적 호상 원조는 그 본질상 일부 나라들이 다른 나라를 희생으로 하여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을 배제한다. 반대로 사회주의적 호상 원조는 공동의 번영을 촉진하며 사회주의적 우호 관계에 있는 매개 인민의 물질적 및 정신적 력량의 가장 완전한 발휘를 촉진함으로써 전체로서의 사회주의 진영의 위력의 강화를 촉진한다.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 강령 초안 작성자들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대한 자기들의 일면적인 리해(理解)를 안받침해 보려고 사회주의 제 국가의 관계에서는 사회주의적 원칙이 위반되고 있다는 구실을 들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썼다. 《실지에 있어서는——혹은 국제적인 정치적 지위가 강한 결과로 혹은 경제 발전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결과로 한 사회주의 나라가 한 개 혹은 수 개의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의 불평등한 관계를 각종 방식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판명되였다》(72페지).

이와 같은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다. 이러한 주장은 강령 초안 작성자들이 인증하고 있는 바로 그 사회주의 제 국가간의 실제적 호상 관계에 의하여 반박되고 있다. 이 실제적 관계는 사회주의하에서는 그 자체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각국 인민의 협조가 평등과 독립의

위반을 초래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 주고 있다. 사회주의 나라들은 진정으로 자주적이며 독립적인 나라들이다. 하긴 사회주의 나라들 간의 관계를 조성하는 것과 같은, 력사상 있어 본 일이 없는 새롭고도 아주 복잡한 사업에서 개별적인 결함과 오유가 있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그 결함과 오유는 이미 력사에 속하는 것으로써 그것들은 완전히 시정되였다. 사실 그러한 결함이나 오유가 있었을 당시에도 그것이 사회주의 제 국가의 관계의 본질을 이루고 있은 것은 아니였다. 그 관계는 그 기초에 있어서 진정으로 사회주의적이였고 국제주의적이였다.

맑스—레닌주의 당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을 확고히 준수하고 있다. 쏘련 공산당 제 20차 대회는 레닌적 평등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를 다시금 확인하였으며 사회주의 제 국가의 력사적 및 민족적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 대회가 있기 전에 벌써 쏘련 공산당과 쏘련 정부는 자기 자신의 이니샤티브로 과거 유고슬라비야와의 관계에서 범하였던 오유를 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령 초안 작성자들은 과거에 있었던 사회주의 제 국가간의 호상 관계에서의 오유와 결함을 인증하면서 그 호상 관계의 전체 경험을 사실상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그 호상 관계에서의 기본적이고 결정적인 것 즉 국제주의적 성격, 형제적인 호상 원조와 협조를 무시하고 있다.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의 강령 초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상적 독점》이니 《정치적 령도권주의》이니 하는 술어는 본질상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일반적 원칙, 일반적 합법칙성을 공박하는 것이며 따라서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사상적 및 정치적 통일을 반대하는 것이다.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 중앙 위원회 강령 작성 꼬미씨야는 그 초안에 서술된 전체 내용으로써 실천에 의하여 검증된 모든 나라의 사회주의에로의 발전의 일반적 합법칙성에 관한 맑스—레닌주의의 명제(물론 각국은 자국의 력사적 및 민족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회주의적 개조의 구체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를 전복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초안에 표현된 관점에 의하면 매개 나라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모든 나라에 관계되는 공통적인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자국의 특수한 로정을 따라 사회주의로 나아가야 하며 전적으로 자기 나라에 고유한 특수한 조건들에 립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초안은 사실상 《민족 공산주의》를 변호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민족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건설에서 민족적으로 특수한 것에만 의거하며 모든 사회주의 나라들의 경험에 의하여 천명된 주요하고도 보편적인 것을 배격하는 것이다. 이 문건에서는 《민족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비판은 《교조주의적 또는 대강국적 리기주의적 리해의 결과이거나 부르조아지의 사상적 영향 또는 음모의 결과》로서 표현되고 있다(72페지).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의 근본적 제 문제에 관해서는 집체적인 맑스—레닌주의적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사회주의 제 국가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선언에서 표현되였고 자본주의 제 국가 공산당들의 동의를 얻은 것이다.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의 강령 초안 작성자들은, 현대 사회 발전의 전체 경험을 일반화하고 있는 이 견해에 꾸며낸 자기들의 구상을 대립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도대체 누가 《사상적 독점》을 지향하고 있단 말인가? 만일 모든 형제 당이 유일한 사상을 견지하고 있다면 그 중 어느 한 당에 의한 《사상적 독점》이라는 문제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맑스—레닌주의 당들의 사상적 통일이 매개 당의 독자성을 약화시킨단 말인가? 아니다. 추호도 약화시키지 않는다. 형제 당들의 사상적 통일과 호상 지지는 매개 당이 자국의 민족적 및 국제적 임무, 로동 계급과 인민에 대한 의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극히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 그러나 세계 공산주의 운동과는 구별되는 사상적 립장에 서기로 결심한 당은 정당한 로선을 잃고 그 운동으로

부터 리탈되며 고립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유명한 사회주의 제 국가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의 선언에서는 세계 사회주의 체계와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운명에 대하여 특히 중대한 력사적 책임을 지니고 있는 맑스—레닌주의 당들의 통일 강화의 중요성이 특별히 강조되였다. 선언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 있다: 《로동 계급의 실제적인 단결을 달성하며 전체 근로자들과 전체 진보적 인류와 전 세계 자유 애호 및 평화 애호 력량의 단결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공산당 및 로동당들 자체의 단결을 강화하며 모든 나라 공산당들과 로동당들 간의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단결은 보다 더 광범한 단결의 핵심이며 로동 계급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 담보이다》. 선언에는 계속 다음과 같이 지적되여 있다: 《회의에 참가한 공산당들과 로동당들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대가정을 가일층 단합시키기 위하여, 국제 로동 운동과 평화와 사회주의의 위업을 위하여 자기들의 통일과 동지적 협조를 부단히 강화할 것을 선언한다》.

강령 초안 작성자들은 선언하기를 《어떤 사상 또는 사회주의 건설의 일정한 형태의 정당성과 진보성은 오직 그 생활력과 실천을 통한 검열에 의존할 뿐이고 이러저러한 국제적 중심을 시인하는 데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 (60폐지)고 하고 있다. 이러한 정식화는 응당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게 한다, 즉 맑스—레닌주의 당들의 이러저러한 중심은 실천에서, 리론 문제를 고찰함에 있어서 력사적 경험을 일반화하는 데서 생긴 것이 아니란 말인가? 두 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혁명적 실천에서 생긴 것이다. 물론 과학적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는 당들의 국제 회의 선언에 대하여는 문제가 다르다. 력사는 공산당들의 회의의 결정을 부당한 것으로 인정할 근거를 주지 않는다. 맑스—레닌주의 학설은 국제 로동 운동의 경험과 실천, 전체 력사 발전의 경험을 일반화한 국제적 학설이다. 이 학설은 국제적 중심들을 포함한 모든 당들의 집체적 노력에 의하여 발전된다. 과학적 공산주의의 강령적 문헌인 《공산당 선언》은 국제 프로레타리아의 조직인 《공산주의자 동맹》의 대회의 위임에 의하여 맑스와 엥겔스가 집필하였고 그것은 국제 로동 운동의 찬동을 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여서는 안 된다.

로동 운동에서의 소위 《령도권주의》 운운하는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의 강령 초안 작성자들의 론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또 지적할 필요가 있다, 맑스—레닌주의는 이러저러한 공산당과 사회주의 국가가 일정한 력사적 단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놀 수 있는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당, 어떤 나라가 국제 로동 운동의 선두에 서겠는가 하는 것은 그 어떤 사람들의 주관적 욕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제 조건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것은 세계 혁명 운동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사회의 혁명적 개조를 위한 성숙된 제 과업이 실천적으로 어디서 먼저 해결되는가 하는 것에 의하여 결정된다.

실례로 19세기 중엽에 있어서는 혁명 운동의 중심은 독일에 있었으며, 따라서 당시에 주도적 역할을 논 것은 독일 사회 민주당이였다. 그리고 독일 로동 계급의 수령들인 맑스와 엥겔스는 세계 프로레타리아트의 수령으로 과학적 공산주의의 창시자로 되였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와서는 세계 혁명의 중심은 로씨야로 옮겨졌으며, 따라서 력사적 발전 행정 그 자체에 의하여 국제 로동 운동의 선두에는 로씨야 로동 계급, 우리 나라 공산당이 서게 되였고, 공산당의 창건자이며 수령인 웨. 이. 레닌은 전 세계 프로레타리아트의 공인된 수령으로, 맑스와 엥겔스의 학설과 위업의 계승자로 되였다.

1957년 11월에 소집된 사회주의 제 국가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의 참가자들은 그 회의에서 채택된 선언에서 사회주의 제 국가의 불패의 진영은 쏘련을 선두로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 말 가운데는 사회적 진보, 인민들의 자유와 평화의 위업을 위한 투쟁에서의 쏘련의 력사적으로 형성된 주도적 역할이 반영되여 있다.

쏘련은 승리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최초의 나라이다. 쏘련은 사회주의에로 가는 대로를 개척하였으며, 지금 사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완성하고 공산주의로 점차 이행하는 과업을 해결하고 있는 나라이다. 객관적으로 사물을 고찰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전체 사회주의 나라들을 반대하는 국제 제국주의의 주되는 타격을 쏘련이 몸소 받고 있다는 것을 보지 않을 수 없다. 전후의 첫 수년간을 상기하여 보자. 당시 제국주의 렬강들은 청소하고 아직 견고치 못한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하여 혹심한 압력을 가하고 있었으며, 착취 계급을 지지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의사를 짓밟기 위하여 이 나라들의 내정에 간섭하려고 시도하였다. 오직 쏘련의 위력과 제국주의 침략 정책에 대한 쏘련의 결정적 반격에 의해서만, 오직 자본주의 체계로부터 떨어져 나온 모든 나라들의 긴밀한 동맹에 의해서만 이 나라 인민들의 력사적 전취물은 수호되였으며 그들의 창조적 로동을 위한 평화적인 조건은 보장되였다. 1956년 가을에 쏘련은 웽그리야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제국주의 앞잡이들인 호르찌 도당이 도발한 반혁명 폭동을 분쇄함에 있어서 이 나라 인민에게 형제적 방조를 주었다. 나라의 독립을 공고화하며 사회주의 전취물을 강화 발전시킴에 있어서 쏘련이 다른 나라들에 주는 사심 없는 원조를 《령도권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와 관계를 끊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 진영의 주도적 력량, 전 세계 혁명 운동의 전위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령도권주의》와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다.

그러면 사회주의 제 국가의 독립에 대한 현실적인 위협이 존재하는가? 그렇다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은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의 강령 초안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어느 《한 사회주의 나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국제 제국주의측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제국주의 부르죠아지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탄생을 환영으로써 맞이한 것이 아니라 적대적 악의로써, 많은 경우에 있어서 총탄과 포탄으로써 맞이하였다. 쏘베트 국가와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를 격멸 또는 파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수 많은 시도들이 있었으며, 최근의 웽그리야 사건이 있은 후에는 모든 사람들은 제국주의 반동이 이 국가들의 존재와 화해하지 않았으며 또 화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알게 되였다. 사회주의 진영 나라들을 반대하여 제국주의 계층들이 조직하고 있는 광범한 파괴 활동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바이다.

이 모든 것은 곧 다름아닌 사회주의 나라 인민들의 형제적 친선과 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그들의 국제주의적 련대성을 공고 발전시킬 필요성에 대하여 웅변으로 말하여 주고 있다. 사회주의 제 국가의 튼튼한 단결과 호상 지지는 그 나라들의 독립의 담보이며, 인민들의 자유와 사회적 진보 및 전 세계 평화의 위업의 담보이다. 그러나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의 강령 초안에 제기된 명제들은 사회주의 제 국가의 통일과 단결의 강화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의 강령 초안에는 사회주의에 의하여 전 세계사적 의의를 가지는 새 형의 국제적 관계가 형성되였다는 사실이 지적되여 있지 않다. 오히려 초안 작성자들은 이 사실을 본질상 모호하게 하면서 착취 계급의 지배하에서 발생한 나라들 간의 관계의 몇 가지 특징을 사회주의에 부여하였다.

어느 사회주의 국가가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착취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초안 작성자들의 《리론적》 론의는 괴상 망칙한 소리이다. 초안 작성자들은 자본주의하에서는 보다 강한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헤게모니와 지배 및 세계적 지배를 지향하며 약한 나라들을 착취하고 압박한다는 것을 확인하면

서 다음과 같이 썼다: 《이와 류사한 경향들은 사회주의 발전의 첫 단계에 있어서도 부단한 위험성을 이룬다. 즉 개별적 나라들의 경제 발전의 심각한 차이가 매개 나라 근로자들의 형편에서 본질적 차이를 조성하며 따라서 어느 한 인민이나 어느 한 국가가 이러저러한 원인에 의하여 차지한 우월한 지위로 말미암아 다른 나라를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이러저러한 형태를 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성되고 있는 동안은 부단한 위험성을 이루게 된다. 그와 같은 가능성이 존재하는 동안은 그러한 가능성을 리용하려는 욕망과 시도도 존재하게 될 것이다》(22페지).

사회주의 제 국가의 호상 관계에서의 착취적 경향을 운운하는 강령 초안 작성자들의 주장은 생활의 진실과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것으로써, 그것은 전연 자의적인 주장이라는 것이 명백하지 않는가. 이 모든 주장은 그들이 제기한, 그러나 객관적 현실과는 모순되는 주장 즉 《사회주의 발전의 불균등성》이 존재한다고 하는 주장에 립각하고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초안 작성자들은 제국주의 발전의 합법칙성과 사회주의 발전의 합법칙성을 혼돈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국주의하에서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불균등적인 경제적 및 정치적 발전 법칙이 작용한다.

제국주의하에서의 자본주의의 불균등적 발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제국주의 제 국가의 발전이 비약적으로 충돌을 동반하면서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을 따라 앞서면서 그 나라들을 구축하고 앞으로 나아간다. 이것은 독점들에 의한 근로 대중의 착취를 강화하며 예속 국가 및 반 예속 국가들에 대한 략탈을 강화한다. 앞으로 뚫고 나간 렬강은 경쟁 상대국을 타승하고 자기들의 세력권, 상품 판매 시장과 원료 원천지의 확장을 도모하며 세계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려고 노력한다. 이러한 지반 우에서 첨예한 갈등이 생기며 타국 령토의 강점과 인민들의 노예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쟁이 발생한다.

사회주의 혁명은 자본주의를 전복하고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 수립하고 주요한 생산 수단을 사회화함으로써 나라들의 불균등적인 경제적 및 정치적 발전 법칙이 작용할 수 있는 기반을 청산한다. 제국주의하에서의 자본주의 제 국가의 불균등적 발전 법칙과는 반대로 세계 사회주의 체계에서는 나라들의 균형적, 균등적 발전의 합법칙성이 작용한다. 사회주의 제 국가의 경제적 위력이 장성되고 세계 무대에서 사회주의의 진지가 공고화됨에 따라 이 균형성은 더욱더 큰 의의를 가지게 된다. 사회주의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은 바로 형제적 호상 원조와 협조로 말미암아 세계 사회주의 체계에서 경제적 및 문화적 면에서 비교적 뒤떨어진 나라들이 선진 국가들을 급속히 따라 잡으며 또 전반적인 앙양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주의 제 국가의 통일이 공고하면 할수록, 그들의 협조가 광범하고 완벽하면 할수록 이 진보 과정은 더욱더 성과적으로 진행되게 된다. 사회주의 건설 행정에서 과거로부터 물려 받은 경제적 및 문화적 면에서의 인민들의 사실상의 불균등은 적극적으로 극복되고 인민들과 나라들의 발전 수준은 균등하게 된다.

쏘련을 실례로 들어 보자. 사회주의 10월 혁명 이전에는 로씨야의 중앙 주들과 민족 변강들 간에는 경제 및 문화의 발전 수준에 있어서 거대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불과 40년이 경과한 오늘, 과거의 민족 변강들이였던 현재의 쏘베트 사회주의 공화국들은 경제 및 문화의 수준에 있어서 로련과 같은 대렬에 들어서게 되였다. 그 공화국들은 현대적 기술에 기초한 고도로 발전된 공업과 대규모적인 기계화된 농업을 가지고 있다. 쏘련의 제 민족의 문화는 진정한 개화를 이룩하였다. 이전에는 심지어 자기의 문'자도 가지지 못하였던 많은 민족들이 내용에 있어서 사회주의적이고 형식에 있어서 민족적인 문화, 문학, 예술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사회주의의 위대한 개조적 힘의 구현이며 쏘련 공산당과 쏘련 정부의 레닌적이고 참으로 국제주의적인

정책과 쏘련의 제 인민간의 친선과 협조의 결과인 것이다.

쏘련, 중화 인민 공화국 및 기타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는 호상간의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면서 또한 상대방이 원하기만 한다면 기타의 모든 나라들과도 경제적 및 문화적 련계를 확장할 것을 지향하고 있다.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의 단결은 어떤 다른 국가들을 반대할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진영에 속한 매개 국가는 사회주의 제 국가와의 그의 관계가 자본주의 제 국가와의 관계보다 더 긴밀해야 된다고 정당하게 인정하고 있다.

만일 대외 정책에서 본질상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의 강령 초안에 규정되여 있는 로선을 취한다면, 이는 사회주의 제 국가를 분산시키며 그 나라들 간의 친선과 단결을 약화시키게 될 것인바, 그것은 의심할 바 없이 사회주의 제 국가의 독립과 사회주의의 위업 전체에 대한 커다란 위험성을 내포하게 된다.

사회주의 제 국가의 통일, 공산당과 로동당들의 통일은,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원칙이 철저하게 실시되면 될수록, 배외주의와 민족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이 결정적으로 전개되면 될수록 더욱더 공고한 것으로 된다. 레닌은, 아주 훌륭하고 그럴듯한 구실 밑에 로동 계급을 분리시키고 분산시킬 것을 설교하는 세련된 민족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할 필요성에 특별한 주의를 돌렸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 《의식적인 로동자들은 온갖 민족주의에 대하여, 즉 조야하고 폭력적이고 흑백단적인 민족주의에 대해서도 또 민족 평등을 설교하면서도 동시에…로동자들의 위업, 로동자의 조직, 로동 운동을 민족별로 분산시킬 것을 설교하고 있는 가장 세련된 민족주의에 대해서도 한결같이 반격을 가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전집, 20권, 로문 판, 266페지).

※ ※

본 론문에서는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의 강령 초안에서 취급된 몇 가지 본질적 문제들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초안에 포함되여 있는 명제들을 분석하면서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문건의 작성자들이 《전체 인류의 공통적인 사회주의 보물고를 풍부하게 하는 일》을 도우려고 한다는 자기들의 지향을 선포하면서 실은 맑스—레닌주의와는 인연이 없는 사상들을 많이 그 보물고에 끄집어 들이였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강령 초안 작성자들은 마치도 《맑스주의 사상이 최근 수십년 동안에 현대 사회의 발전으로부터 뒤떨어졌다》(49페지)고 감히 주장하여 나서고 있다.

맑스—레닌주의 사상이 수백만 사람들의 정신을 파악하였으며, 인류의 약 3분의 1이 맑스—레닌주의의 기치 밑에서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고 있으며, 사회주의가 실로 전 세계사적 승리를 거두었으며, 사회주의 건설이 암중모색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건설 행정에서 풍부화되고 있는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등'불에 의하여 휘황하게 밝혀지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 사상이 《뒤떨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괴상한 일이다. 쏘련 공산당 제 20차 대회, 중국 공산당 제 8차 전국 대표 대회 및 기타 맑스—레닌주의 당들의 결정들에 포함되여 있는, 현대 사회 발전의 원칙적 문제들의 구명은 맑스—레닌주의 사상의 강력한 발전을 얼마나 확신성 있게 보여 주고 있는가!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리론적 일반화가 1957년 가을에 모쓰크바에서 열린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에서 주어졌다.

부르죠아 선전은 강령 초안에 포함되여 있는 공산주의의 사상적 기초와 모순되는 명제들을 포착하고 그것을 자기들의 목적에 리용하고 있다. 부르죠아 선전은 초안 작성자들 앞에서 아양을 떨고 있으며, 초안이 《모쓰크바 로선과 원칙적으로 배치되는 광범한 리론적 근거》를 주고 있다 하여 또 《1956년 가을에 크레믈리와 심각한 갈등을 일으킨 그 사상적 견해들을 되풀이하고 있다》하여 그 초안을 찬양하고 있다. 그러나 벌써 오래 전에 명백

해 진 바와 같이 부르죠아 선전은 《모쓰크바 로선》과 《크레믈리》를 공격하고 있지만 실은 전체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로선을 념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을 약화시키려는 기대에서 항상 오산을 거듭한 부르죠아 선전은 이번에도 아마 오산할 것이다.

유고슬라비야 동지들에게 있어서 오늘 비로소 나타난 것이 아닌 국제 공산주의 운동과의 의견 상위가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의 강령 초안에 개괄적인 형태로 반영되여 있다. 초안은 이 의견 상위가 많은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서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쏘련 공산당과 기타 형제 당들은 평화와 사회주의의 위업을 위하여,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기초하여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과 접근하고저 최근 년간에 많은 일을 하여 왔다. 이에 있어서 쏘련 공산당은 항상 이 접근이 맑스—레닌주의 원칙들을 희생으로 하는 양보의 방법으로는 진행될 수 없다는 데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리고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의 강령 초안이 일련의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서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기본으로부터의 명백한 리탈을 나타내고 있는 지금에 있어서 이에 대한 대답이 없이 원칙적인 동지적 비판이 없이 지나갈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당적 동지적 비판이 우리 당들과 나라들 간의 친선적 관계의 가일층의 발전에 대한 장애로 되여서는 안 된다.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 중앙 위원회 강령 작성 꼬미씨야는 초안 개선을 위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우리는 유고슬라비야 동지들이 이 거대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기를 충심으로 원하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초안이 전적으로 맑스—레닌주의 제 원칙에 립각함으로써 유고슬라비야 공산주의자 동맹과 유고슬라비야 인민의 리익에 부합되며 형제적 사회주의 나라들과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통일의 강화와 평화, 민주주의 및 사회주의의 리익에 부합되는 것으로 될 것을 기대하여 마지 않는다. 그러한 강령 초안은 모든 공산주의자들이 커다란 만족감으로써 맞이할 것이다.

(쏘련 《꼼무니쓰트》 1958년 제 6호에서).

당 건설에서의 레닌적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과 현대 수정주의

게. 쉬따레브

거의 모든 근본 문제들에 걸쳐서 맑스—레닌주의를 공격하고 있는 현대 수정주의자들의 수다스러운 합창 속에서 당에 관한 학설은 가장 악의에 찬 공격의 대상으로 되였다. 이것은 놀랠 것이 없다. 공산당들과 로동당들의 파괴(바로 제국주의자들은 이것을 꿈꾸고 있으며 또 본질상 기회주의자들의 활동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간에 여기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이 당들의 기초로 되고 있는 리론적 원칙들을 전복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다.

여기에서 특히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이다.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를 반대하는 독설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또 마치도 이 정식은 낡았기 때문에 이를 교체할 것을 또는 《더 정확히 규정할 것》을 제의하지 않는 수정주의적 출현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대회들을 앞두고 미국 및 영국 공산당들과 카나다 로동 진보당 등에서 전개된 토론 과정에서는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을 공공연히 거부한 자들이 있었으며 《개선》 또는 《가일층의 발전》이라는 기'발 밑에 이를 말살해 버리려는 은폐된 시도들도 볼 수 있었다. 일부 분자들은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가 《군사적》 요구에서 나온 것처럼 주장하였으며(이 점에 있어서 특별한 열성을 보인 것은 졸릿티와 같은 이태리 수정주의자들이다) 당의 통일을 거부하고 종파를 허용할 것을 요구하여 나섰다.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의 일부 맑스—레닌주의 당들에 있어서도 흔히 반당적 종파 활동과 뒤엉힌 수정주의적 출연들이 있었다. 일례로 파란 통일 로동당 내의 수정주의 분자들은 당의 조직적 기초를 파괴하려고 적극 시도하였으며 특별한 열성으로 통일을 공격하고 《당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수립할》 것을 호소하였다. 독일 사회 통일당 내에서 하리히의 기회주의 그루빠는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와 당 규률을 반대하는 투쟁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어째서 정치 분야에서 사회주의 혁명과 프로레타리아트 독재가 공격의 대상으로 된 것과 마찬가지로 조직 분야에서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가 그처럼 치렬한 공격의 대상으로 되였는가? 어째서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형형색색의 기회주의자들이 그처럼 놀랠만한 견해의 일치를 보게 되였는가? 그것은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가 새 형의 맑스주의 당 건설의 초석으로 되며, 당에 고도의 적극성과 전투력, 통일과 단결을 보장하여 주기 때문이다. 이 원칙을 동요시키기만 한다면 프로레타리아 당은, 그로 하여금 자원적이고 자립적이며 민주주의적인 동시에 굳게 결속되고 전투적이고 규률 있고 중앙 집권화된 조직체로 되게 하는 그 기초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는 새 형의 맑스주의 당 건설의 합법칙성이다

수정주의자들은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를 공격하면서, 마치도 이 원칙이 혁명적 프로레타리아 당에 객관적으로 고유한 것이 아니라 외

부로부터 당내에 반입되고 밖으로부터 강요된 주관적인 그 어떤 것인 것 같이 묘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현 조건하에서는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한다. 그들은 당에 관한 레닌의 학설의 립장에 서서 새 형의 맑스주의 당 건설의 지도적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는 사람들을 보고 변화한 정세를 고려하려고 하지 않는 《시정할 수 없는 교조주의자》라고 선언한다. 수정주의자들이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를 《민주주의적 지도》나 또는 그와 비슷한 어떤 것으로 바꾸라고 대수롭지 않은 듯이 제의하고 있는 사실은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가 공산당에 있어서 채용할 수도 있고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주관적인 희망인 것이 아니라 당의 본질과 내용을 표현하는 객관적 필연성이라는 것을 그들이 전연 무시한다는 것을 증명하여 준다. 이것은 새 형의 맑스주의 당이란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그런 당이 창건되였으며, 또 부르죠아지의 통치를 전복하고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 수립하며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 위대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당이 어떠한 환경에서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찰하기 시작하자 곧 아주 명확하게 된다.

공산당은 로동 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을 해방하며 사회를 사회주의적 원칙에서 근본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자각적 투사들의 동맹이다. 이것은 완전히 자원적인 동맹이다. 즉 이 동맹에는 강제나 의무에 의하여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 의사에 의하여, 자기의 자각과 심장의 부름에 따라서 가입하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근로자들의 선진적인 대표자들을 이 동맹에로 인도하는가? 무엇이 그들의 단합을 추동하는 동기로 되며 주되는 자극으로 되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공통한 견해, 사상, 신념이며, 맑스—레닌주의를 자기 세계관의 리론적 기초로 인정하고 공산주의를 이 동맹의 매개 참가자가 달성코저 하는 위대한 목적으로 인정한다는 그것이다. 이 공통성이야말로 당과 같은 그러한 동맹이 창건될 수 있는 사상적 기초를 이루는 것이다.

당에 단합되는 것은 다름아닌 사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을 위해서 단합되는 것만큼 그들 앞에는, 어떻게 해서 이 목적을 실현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공산주의의 위대한 리상을 구현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조직적으로, 공동으로, 집체적으로 투쟁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단독적으로 투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때까지의 모든 경험은, 오직 조직된 노력만이 성공할 수 있으며 오직 로동 계급의 모든 선진적이며 자각적인 대표자들이 로동 계급 및 전체 인민과 긴밀히 련결되여 있는 튼튼하고 굳게 결속된 당에 단합함으로써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대체 프로레타리아트의 정당은 어떻게 조직되여야 하는가? 과학적 공산주의를 자기의 사상적 기초로 삼은 당은 자기의 조직도 엄격한 과학적 토대 우에 건설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무엇보다도, 당의 조직 원칙은 선량한 희망에서나, 서재 안에서의 추상적 결론에서 끌어 낼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의 조직 원칙은 오늘날의 계급 투쟁의 객관적 조건에 의하여, 당 강령에 제시된 당의 근본 과업에 의하여 조건 지어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프로레타리아트와 부르죠아지 사이에 일순간도 정지하지 않는 치렬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착취자들 편에는 경제, 정치, 법률, 종교 등 모든 것이 있으며 그들의 수중에는 부르죠아 국가와 그 군대, 경찰 및 기타 근로자들에 대한 강제와 탄압의 기관이 있다. 로동 계급의 편에는 조직성 하나 밖에 없는데 이것이 결국은 그들의 투쟁의 승리를 결정한다. 프로레타리아트의 위력은 그들의 계급적 단결에 있다. 조직된 프로레타리아트는 부르죠아지의 공격에 대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리한 조건하에서는

공격으로 넘어 가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이다. 로동 계급이 조직되고 결속되면 될수록 그들은 더 강하며 전투력이 더 세다. 그런데 이것은 전적으로 로동 계급의 전위대의 결속 여하에 달려 있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 《사회 민주주의적 프로레타리아트의 통일은 그들의 승리의 필수 조건이다. 사회 민주주의적 프로레타리아트의 통일은 그들의 당인 로씨야 사회 민주 로동당의 통일이 **없이는** 불가능하다》(전집, 제 18권, 조선문 판, 578페지). 레닌은 《…사회 혁명의 시대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의 통일은 철두철미 혁명적인 맑스주의 당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전집, 제 31권, 로문 판, 488페지). 당은 프로레타리아트의 단결의 표징이며 그들의 계급적 각성의 척도이다. 당이란 로동 계급의 정력과 조직성과 자각성의 응결체이다. 그런즉 당은 로동 계급의 전투적 참모부의 역할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각이한 조건하에서 프로레타리아트의 투쟁을 능숙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조직되여야 하며 건설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프로레타리아 당의 구성 원칙과 조직 형태는 그의 실제 활동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당의 본질과 당이 자기 앞에 내세운 위대한 목적, 자기의 정치적 지배를 수립하기 위한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 투쟁의 성격, 공산당, 로동자당이 활동하게 되는 그 구체적인 력사적 환경에 의해서 조건 지어진다. 달리 말하면 당의 조직적 구성 원칙은 객관적 합법칙성의 성격을 띤다. 이것은 쏘련 공산당에서 이 원칙이 강구되고 형성되여 온 실례에서 볼 수 있다.

우리 당은 레닌에 의하여 로씨야의 가장 선진적인 계급인 프로레타리아트의 당으로서, 사회주의 혁명과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당으로서, 공산주의 건설의 당으로서 창건되였다. 당은 자기의 위대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극히 복잡하고 곤난한 조건하에서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선차적 과업으로서 우선 타도하지 않으면 안 되였던 군사 봉건적 제국주의와 이를 체현한 짜리즘, 계급적 모순의 특별한 첨예성, 정치적 자유의 결여——이 모든 것은 볼쉐위크 당의 구성과 조직 형태, 실제 활동 방법 등에 그 흔적을 남겨 놓았다.

레닌은 로동 운동의 력사, 특히 맑스와 엥겔스에 의하여 창건된 국제 로동자 협회 즉 제 1 인터나쇼날의 력사를 심오하게 연구하였다(제 1 인터나쇼날에는 프로레타리아 당에 관한 맑스주의의 기본 사상이 표현되였었다). 레닌은 로씨야에서의 혁명 투쟁의 경험, 특히 《토지와 자유》파의 활동가들이(레닌의 표현을 빈다면) 훌륭한 조직을 창건하였던 인민파 시기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섭취하였다. 레닌은 이 모든 것을 새로운 시대의 과학적 분석, 계급적 력량 관계의 변화, 계급 투쟁의 특수성의 변화 등등과 결합시킴으로써 새 형의 맑스주의 당 건설의 원칙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 원칙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로동 계급의 선진적, 자각적, 조직적 부대로서의 당, 다른 모든 조직중에서 지도적 역할을 놀며 로동 계급의 전위대와 전체 로동 계급 및 수백만 근로 대중과의 련계를 체현할 사명을 가진 프로레타리아트의 계급적 조직의 최고 형태로서의 당에 관한 명제가 포함되여 있었다.

당이란 곧 조직이다. 그러나 조직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온갖 조직이 모두 자기 대렬의 결속, 프로레타리아 당에 절실히 필요한 행동 통일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계급의 선봉대로서의 당은 《될수록 더 **조직적인** 것》으로 되여야 한다고 웨.이. 레닌은 교시하였다. 오직 이러한 조건하에서만 당은 프로레타리아트의 대렬을 공고히 하며 그들의 투쟁을 지도하며 대중 속에 자각성과 강인성과 규률의 정신을 주입할 수 있다. 오직 이러한 조건하에서만 당의 력량과 영향력은 당원의 수효의 수백 수천 배로 될 수 있는바, 이로 말미암아 비교적 작은 전위대가 수백만 대중을 이끌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당은 그 자체가 고도로 조직적인 것으로 되지 않고서는 정치적 지배

를 전취하는 데 필요한 로동 계급의 조직성을 획득하지 못할 것이다.

《…당은 조직들의 총계(단순한 산수적 총계가 아니라 통합체)여야 한다…》고 웨. 이. 레닌은 교시하였다. 따라서 이것은 기계적 련결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레닌은 《통합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당은 조직들의 단순한 혼합체가 아니라 통일적인 전일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당을 형성하는 당 조직들은 기계적으로 결합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되며 깊은 내'적 련계에 의하여, 즉 조직의 통일로써 보충되는 강령 및 전술의 통일에 의하여 결속되는 것이다. 오직 이렇게 됨으로써만 당 조직들은 목적 지향성 있게 활동할 수 있으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르죠아지와 그 이데올로그들의 모든 공격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 로동 계급은 오직 이러한 당을 가짐으로써만 사회주의 혁명을 수행하며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 수립하며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이다.

공산당은 적극적이며 독자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조직인 동시에 철석같이 단결되고 규률 있는 조직이여야 한다.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에서 조직된 당만이 이러한 조직으로 될 수 있다.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의 본질은 쏘련 공산당의 규약에 가장 명확하고 뚜렷하게 표현되여 있다. 그 규약에는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씌여 있다.

《ㄱ, 밑으로부터 우에 이르기까지의 일체의 당 지도 기관은 선거된다.

ㄴ, 당 기관들은 자기의 당 단체들 앞에 정기적으로 총결 보고한다.

ㄷ, 당 규률을 엄격히 준수하고 소수는 다수에 복종한다.

ㄹ, 당 상급 기관의 결정은 하급 기관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의무로 된다》.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의 위대한 힘은 그것이 엄격한 중앙 집권제를 광범한 당내 민주주의와 결합시키며, 강철같은 규률을 당원 대중의 적극성의 발양과 결합시키며, 문제 토의에 참가할 수 있는 공산당원들의 무조건적인 권리를, 채택된 결정을 꾸준히 실천할 의무와 결합시키며, 정책의 수립 및 그 실현에 있어서 일면성과 오유를 방지해 주는 지도의 집체성을 지도의 독자성과 결합시키고 있는 데 있다. 이와 같이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는 당이 대중적이고 독자적이고 창발적이면서 동시에 전투적이고 규률 있는 조직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지어 주고 있다.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는 당원들의 창발성과 정력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양시키며, 그들을 적극적인 당 생활과 지도에서 밀어 내던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인입하며 당원의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전체 조직에 공통되는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집체적 투쟁 가운데서만 당원들의 모든 능력이 발휘될 수 있으며 그의 개성이 광범히 발양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진보는 일정한 단계에 와서 필연적으로 프로레타리아트의 참으로 혁명적인 당을 발생시키였으며 이러한 당의 창건과 함께 로동 계급의 전투적 당에 없어서는 안 될 원칙들이 발생하였다. 새 형의 맑스주의 당이 제국주의 시대에 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트와 부르죠아지 간의 계급 투쟁의 합법칙적인 발전의 결과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맑스주의 당의 건설 원칙도 이 당의 발생과 그 사업의 력사적 제 조건의 합법칙적 산물인 것이다. 웨. 이. 레닌이 작성하고 정식화하였으며 그후 모든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집체적인 창조적 사유에 의하여 발전되고 풍부화된 당 건설의 원칙들은 계급 투쟁의 객관적 합법칙성을 반영하고 있는 까닭에 극히 과학적이며 생활력이 풍부하다. 이 원칙들은 세계 로동 운동과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 당의 투쟁 경험이 준 훌륭한 모든 것을 일반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관적 희망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조건하에서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 과도하는 조건하에서의 계급 투쟁의 합법칙성이 새 형의 맑스주의 당의 창건과 이 당의 목적 및 성격에 적응하는 조직 원칙들을 조건짓는 것이다. 이러한 객관적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으며 시대의 정신으로부터 뒤떨어지는 자는 과연 누구인가? 맑스주의 당의 조직 원칙들을 낳은 그 일반적 합법칙성의 작용을 부인하는 수정주의자들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 합법칙성의 작용을 인정하며 이 합법칙성에 기초하여 정식화된 새 형의 당의 건설 원칙을 고수하는 맑스주의자들인가?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의 옹호자들의 정당성과 이와 반대되는 립장에 선 자들의 의식적이거나 혹은 무의식적인 오유를 판별하기는 힘들지 않다.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는 공산당 및 로동당 건설의 국제적 원칙이다

레닌적 당 건설 원칙은 모든 공산당 및 로동당들에 의하여 현대의 력사적 조건과 공산주의 운동의 위대한 목적 및 과업에 부합되며 이 목적과 과업의 가장 급속한 달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하게 옳은 원칙으로 인정되였다. 레닌적 원칙의 기초 우에서 혁명적 프로레타리아 당들은 불패의 력량으로 장성하였다. 현재 이러한 당들은 70 여 개의 나라에 존재하고 있다(총인구 약 10억을 산하는 13개 나라에서는 이러한 당들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 당들의 당원은 3천 3백 만 이상에 달하고 있는바 그들은 참으로 력사적 진보의 위대한 력량으로 되였으며 평화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로 수억만 사람들을 추동하는 조직자로 되였다.

이 모든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정주의자들이 조작해 낸 《리론》 즉 웨. 이. 레닌이 작성한 맑스주의 당의 건설 원칙을 《낡아 버린 것》이라고 언명하거나 혹은 순전히 로씨야에만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고 《훼방》하는 《리론》이 매우 괴상하게 보이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사상이 카나다 로동 진보당 내의 수정주의자 솔스버그와 그 동료들의 주장 즉 《레닌적 당 건설 원칙중 많은 것은 로씨야의 제 조건에는 적용될 수 있었으나 카나다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카나다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하는 주장의 근저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 공산당 내의 기회주의자들도 레닌적 당 건설 원칙은 과거에는 혹 좋은 것이였을 수 있으나 현 시기에 있어서는 낡은 것으로 되여 버렸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레닌적 원칙들이 《낡아 버렸다》는 테제는 새로운 것도 아니며 독창적인 것도 아니다. 최근 수십년 동안 부르죠아지는 자기의 이데올로그들과 로동 운동내의 자기 앞잡이인 기회주의자들의 입을 통하여 맑스—레닌주의는 《낡아 버린 것》, 《전적으로 과거에》 속하는 것이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소용 없는 것》이라고 한두 번만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한가? 이러한 모든 《예언》은 수치스럽게도 파산되였다. 그리고 영원히 발전하며 영원히 생동하는 맑스—레닌주의 학설의 생활력은 해마다 빛나게 확증되였으며 맑스—레닌주의 학설은 더욱더 새로운 승리를 거두었다. 맑스—레닌주의의 기치하에 더욱더 새로운 수백만 사람들이 자본주의적 노예 제도와 식민지 노예 제도의 쇠사슬을 벗어 던지고 있다. 레닌주의의 기치하에 인류의 3분의 1 이상이 사회주의 진영에 망라되여 지금 새로운 생활을 건설하고 있다. 레닌적 조직 원칙에 대한 모해는 현실에 부딪치자마자 참패를 당하고 만다.

모든 리론, 사상, 원칙들의 정당성 여부는 경험과 생활에 의하여 검열되며 실천은 이러저러한 학설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한 최고의 기준으로 된다.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에 대해서 력사적 경험은 무엇을 말하여 주는가?

우선 쏘련 공산당을 들어 보자. 웨. 이. 레닌이 말한 바와 같이 프로레타리아 당의 사업 조건이 그렇게 복잡하였고 그렇게 급속하게 변

동한 나라는 로씨야를 제외하고는 한 나라도 없다. 로씨야에서는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이 깊은 지하에서도, 1905년에 전취된 첫 정치적 자유의 환경 속에서도, 반동기에 있어서도, 새로운 혁명적 앙양기에 있어서도 시련을 겪었다. 이 원칙은 공개적인 정치적 활동 행정(1917년 2월 6일)과 7월 사변후의 반(半)합법적 환경 속에서 검열되였다.

나라를 지도함에 있어서 우리 당이 쌓은 40년 간의 경험은 어떠한가! 국내 전쟁과 복구기, 전시 공산주의와 신경제 정책, 나라의 공업화와 농업 집단화 등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단계에서 공산당은 지도적 조직적 향도적 력량으로서의 역할을 영예롭게 수행하였다. 쏘련 인민이 파씨즘에 대한 승리를 거둔 위대한 조국 전쟁은 우리 당의 공고성과 그의 견인성 그리고 성공의 시기나 후퇴의 어려운 시기나 할 것 없이 인민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는 그의 능력을 증시하였다. 깊은 적 후방에서, 히틀러 도배가 점령한 쏘베트 령토에서 수천의 당 단체들과 수만 명의 공산당원들이 활동하였다. 전 당과 밀접히 련결되고 당과 혼연일체가 된 그들은 원쑤를 격멸하는 데 전력을 다하였다.

극도의 긴장과 최대의 인내성이 요구되는 환경 속에서 우리 당은 언제나 통일되고 튼튼히 단결되여 우리 조국의 인민들을 결속하고 그들을 승리로 인도할 수 있었다. 우리 당은 한번도 곤난 앞에서 퇴각하거나 옳은 길에서 물러 서거나 또는 당을 총로선으로부터 우측으로 끌려고도 하고 좌측으로 끌려고도 한 기회주의에 항복하거나 한 일이 없었다. 우리 당은 수 많은 원쑤들과의 투쟁에서 당을 약화시킬 수 있는 자기 대렬내의 혼란, 방향 상실, 불통일, 동요 등을 한번도 허용한 일이 없다. 이러한 투쟁을 통하여 당은 더 한층 단결되였다. 쏘련 공산당 건설의 기본 원칙인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의 실효와 정당성과 그 위력을 증명하는 데 이 이상 더 확실한 무엇이 또 필요한가?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은 반 세기 이상에 걸친 쏘련 공산당의 력사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전체 경험에 의해서도 검열되였다.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에 의하여 조직된 중국 공산당은 혁명적 전투의 불'길 속에서, 항일 해방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획득하고 중화 인민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중국 공산당은 현재 로동 계급과 인민 대중을 사회주의 건설의 길로 성과 있게 인도하고 있다.

1956년 9월 제 8차 대회에서 채택된 중국 공산당 규약은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를 민주주의에 기초한 중앙 집권제 및 중앙 집권제에 의하여 향도되는 민주주의로서 특징 짓고 있다. 이 규약에 지적되여 있는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의 기본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모든 당 지도 기관들을 선거하는 것, 지도 기관들은 하급 당 단체와 당원 대중의 의견을 부단히 청취하고 경험을 연구하며 그들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해 줄 책임을 지는것, 하급 당 단체는 상급 당 단체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며 제때에 그 지시를 받도록 하는 것, 집체적 지도와 개인 책임제를 결합하는 것, 당 결정을 무조건적으로 집행하는 것, 매개 당원은 당 단체에, 소수는 다수에, 하급 당 단체는 상급 당 단체에 복종하는 것.

자본주의 나라들의 맑스—레닌주의 당의 활동——공개적 정치 투쟁의 환경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거나 반(半)합법적 또 비합법적 환경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거나 할 것 없이——에 의해서도 역시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의 생활력은 확증되고 있다. 어려운 조건하에서 사업하면서 그 중 많은 당들은 더 한층 공고화되였으며 로동 계급의 대중적인 진정한 전위대로, 자국 인민의 진보적 지향과 희망의 표현자로 되였다. 우리는 이태리 공산당을 례로 들 수 있다. 이태리 공산주의자들은 파씨즘이 검은 그림자처럼 나라를 컴컴하게 뒤덮고 있던 뭇솔리니의 무서운 통치기를 기억하고 있다. 그 당시에도 그들은 억압과 폭력을 반대하는 결정적 투쟁을 전개할 용감성과 능력과 가능성을 자체내에서 발견하였다. 이태리 공산주의자들의 단결, 맑스—레닌주의의 위대한 사상이 낳은 그 단결은 제 2차 세계 대전 시기에 히틀러 강점자들을 반대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빨찌산 부대들 속에서 준엄한 시련을 겪었다. 만일 현 정세하에서 공산당을 반대하는 적대 세력의 치렬한 공격이 그들에게 조여의 결과를 주지 않는다면, 만일 공산당이 그 력량과 전투력을 보존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 당이 맑스—레닌주의적 조직 원칙들에 충실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작년에 진행된 이태리 공산당 제 8차 대회는 이 모든 원칙들의 의의를 확인하였다. 대회에서 채택된 규약에는 《공산당의 내부 생활은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에 기초하고 있다》고 지적되여 있다.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건설 및 활동의 원칙으로서의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는 제국주의 국가이건 사회주의 국가이건, 식민지이건, 예속 국가이건, 선진 국가이건 후진 국가이건 할 것 없이 모든 나라에 타당하며, 합법적이건 비합법적이건 할 것 없이 모든 조건에 타당하며, 파씨즘과 같은 부르죠아지의 공개적인 테로 독재하에서도 부르죠아 민주주의적인 자유의 환경하에서도 타당하다는 것을 력사는 가리키고 있다. 새 형의 당 건설의 레닌적 원칙을 적용한 데서 얻은 풍부하고도 다양한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이 결론은 모든 공산당 및 로동당들에 공통된 결론이다. 인도 공산당 총비서 아. 고쉬 동지는 자기 나라에서 대중적 공산당을 창건할 조건들과 가능성들을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언제나 또 어떠한 조건하에서나 공산당은 맑스—레닌주의의 확고한 리론적 기초 우에 건립된 당이다… 따라서 공산당의 기본적 조직 원칙은 그 당이 집권 당이냐 야당이냐, 그 사업 조건이 합법적이냐 비합법적이냐, 정권을 위한 투쟁이 국내 전쟁의 형태를 취하느냐 또는 평화적 방법으로 진행되느냐 하는 것과는 관계 없이 언제나 동일한 것이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공산당들은 부르죠아지와 그 이데올로기의 맹렬한 공격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로동 계급의 참모부를 반대하여 경찰의 박해, 기만과 중상 그리고 당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기 위하여 당 대렬내에 간첩을 파견하는 것 등 모든 수단이 총동원되고 있다. 만일 당이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에 의거한다면 당은 모든 공격에 대항하기가 더 용이하다.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로부터 유리된다면 당은 약화될 것이며 정치 및 사회 생활에 있어서의 그의 역할은 저하될 것이다.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에 기초하여 건설된 당만이 로동 계급의 전투적 혁명적 전위대의 수준을 견지할 수가 있다.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으로부터의 퇴각은 오늘의 현실이 확증하는 바와 같이 불통일과 동요를 낳으며 규률의 파괴와 종파의 발생을, 따라서 또 당의 통일의 파괴를 가져 온다.

백여년 간의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경험이 보여 준 바와 같이 어느 프로레타리아 당도 만일 그 당이 맑스—레닌주의에 충실하며 개량주의적이 아니라 혁명적이며, 소극적이 아니라 전투적이며, 산만한 것이 아니라 조직적이며, 분산되지 않고 결속되며, 약하지 않고 강하기를 원한다면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과거나 현재나 할 것 없이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를 떠난 혁명적 프로레타리아 당은 존재하지 않으며 또 존재할 수도 없다.

레닌적 당 건설 원칙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는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 모든 공산당과 로동당들은 민족적 특수성과 그 당들이 사업하게 되는 구체적인 력사적 조건에 적응하면서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에 확고히 의거하고 있다. 이 원칙을 규약에 정식화 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그 기본 명제들 즉 강한 자각적인 규률과 결합된 광범한 민주주의, 모든 당 기관들의 선거제

및 당 기관들의 사업에서의 집체성과 결부된 지도의 중앙 집권제, 당원 대중들의 자립성 및 당 결정 집행의 의무 등에는 변함이 없다.

맑스—레닌주의 당에서 민주주의와 중앙 집권제는 분리될 수 없다

일부 수정주의자들은 례컨대 전 뉴욕주(미국) 당 단체 지도자 우. 노르만이 한 것처럼 로골적으로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를 거부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은 배격해야 한다. 당의 한결같은 통일의 리념은 거부해야 한다》. 대다수의 수정주의자들은 주로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의 《개선》이라는 간판 뒤에 숨어서 더 교묘하게 행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선》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주로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를 …중앙 집권제로부터 해방하는 것이다.

바로 어렇게 문제를 설정한 자는 또 하나의 미국 수정주의자 제. 게이츠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 당을 상부에서 하부 말단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민주화하는 문제이다. 민주주의는 중앙 집권제에 의하여 좌우되게 되는만치 전자를 후자와 분리시켜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것은 중앙 집권제를 부인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앙 집권제는 응당 민주주의에 종속되여야 한다.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로 말미암아 현 시기의 우리 나라에는 소용이 없는 반(半)군사적 조직이 생기게 된다》.

만일 제. 게이츠가 《민주주의와 중앙 집권제의 분리》, 《민주주의에의 중앙 집권제의 종속》을 운운하고 있다면, 영국 공산당 내의 우익 소수파(카도간 기타)는 중앙 집권제를 민주주의와는 도저히 상용될 수 없는 어떤 것으로 간주하였다. 《민주주의와 중앙 집권제의 적대성》에 관한 그들의 성명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며 또 그 결과로서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대신에 《민주주의적 지도》라는 정식이 나온 것이다. 이 모든 수정주의적 론의에는 보다싶이 민주주의와 중앙 집권제를 분리시키고 당 건설의 지도 원칙의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두 개 측면을 완전히 갈라 놓으려는 기도가 숨어 있다.

이러한 립장에서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를 공격하려는 수정주의자들의 시도는 무엇보다도 우선 맑스—레닌주의 당에서의 민주주의와 중앙 집권제의 호상 관계 문제를 고찰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민주주의와 중앙 집권제는 상용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량자는 서로 다른 극에 놓여 있는가? 만일 상용될 수 있다면 그것들은 각각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는가? 당내에서 더 큰 무게를 가져야 하는 것은 어느 쪽인가——민주주의인가? 중앙 집권제인가? 이것이 여기에서 제기되는 기본 문제들이다.

민주주의는 중앙 집권제와 결합될 때에는 반드시 억압 당하고 만다고 수정주의자들은 단언한다. 그들은 중앙 집권제와 민주주의의 대립이니, 불상용성이니 하면서 마치 이 량자가 서로 배제하는 정반대의 현상들이거나 한 것처럼 떠들어 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형이상학적이며 객관적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공산당들의 생활과 활동에 있어서 민주주의와 중앙 집권제는 유일한 전일체를 이루고 있으며 그 일방이 없이는 타방도 존재할 수 없다. 공산당 내에서의 민주주의—— 이것은 형식적인 요소인 것이 아니라 당의 본질, 당의 사회적인 자립적 성격을 표시하는 원칙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적 조직이 옳게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통일적인 확고한 지도가 있어야 하며 그 성원들이 지켜야 할 엄격한 규률이 제정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토대가 없이는 생활력을 가진 조직이란 없으며 또 있을 수도 없다. 이러한 조직의 민주주의는 무정부상태로 전화될 충분한 조건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당은 자원적이고 창조적인 조직체인 만큼 당내의 중앙 집권제도 역시 민주주의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중앙 집권제는 당의 본성과는 상반되는 호령과 행정적 명령, 개인적 지시로 전화될 위험이 있다. 옳게 적용되는 중앙 집권제는 민주주의를 억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민주주의의 실제적인 발전을 보장한다. 당내의 중앙 집권제는 명령할 힘을 전제로 하는 군사적 중앙 집권제도 아니고, 생산 과정에서의 지도자에 대한 대중의 무조건 복종을 기초로 하는 행정적 중앙 집권제도 아니다. 그것은 당원 대중의 적극성과 독자적 활동에 립각하고 있으며 당원 대중을 당내의 결정적 력량으로 인정하는 견지에 선 민주주의적인 중앙 집권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가 없이는 공산당 내의 중앙 집권제를 생각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 집권제가 없는 민주주의는 당내에 없으며 또 있을 수도 없다. 이 명제는 모순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생활의 모순을 반영하고 있다.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라는 정식은 프로레타리아 당의 생활과 사업의 복잡하고 모순되는 객관적 합법칙적 과정의 변증법적 반영인 것이다. 이 정식은 불가분적이다. 이 정식을 파괴하려는 온갖 시도는 사회적 유기체의 산 조직을 파괴하려는 시도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맑스—레닌주의자들은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라는 정식을 결코 분리시키지 않으며 그 한 부분을 다른 한 부분에 대립시키지 않는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항상 우리 출판물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옹호한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당의 중앙 집권화를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를 지지한다》 (전집, 제 21권, 로문 판, 389페지).

그러나 만일 당내의 민주주의와 중앙 집권제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라면 어느 쪽이 어느 쪽에 종속되여야 하는가? 고 어떤 동지들은 묻는다. 당내에서는 민주주의가 중앙 집권제에 종속한다던가 또는 그와 반대되는 경우가 없으며 또 있을 수도 없다. 이 레닌적 조직 원칙의 본질은 민주주의와 중앙 집권제의 결합에 있다. 서로 불가분적인 량자 중에서 전면에 내세우게 되는 것이 민주주의인가 중앙 집권제인가 하는 것은 조건과 장소와 시간에 달려 있다. 즉 어떤 정세하에서 옳았던 것도 다른 정세하에서는 잘못으로 될 수 있으며 어떤 시기에 적합하였던 것도 다른 시기에는 적합치 않은 것으로 될 수 있다.

특히 곤난한 조건하에서는, 례를 들어 지하 활동에 있어서는 불가피적으로 민주주의의 제 형태는 약간 제한된 성격을 띠게 된다. 례컨대 1905년 혁명 전야와 반동 시기에 있어서의 볼쉐위크 당의 활동이 그러하였다. 그런데 10월 혁명후에는 쏘련 공산당의 건설 및 활동의 지도 원칙의 한 측면인 민주주의가 전면에 나서게 되였다——비록 개별적인 시기(례컨대 국내 전쟁 시기)에는 민주주의가 약간 제한 당하게 되고 중앙 집권제가 더욱 날카롭게 표현되기는 하였지만.

이와 같이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은 어떤 조건하에서나 확고부동하다. 그러나 지하 활동에 있어서는 당은 자연히 선거 원칙을 완전히 철저하게 관철시킬 수는 없다. 당은 부득이 보선제(꼬옵따찌야)를 실시하였고 대회나 대표자 회의를 정상적으로 소집할 수 없었으며 당의 민주주의적 성격과 모순되는 약간의 기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이러한 모든 제한은 극히 일시적이고 례외적인 성격을 띤 것이며 객관적 정세에 의하여 제약되는 것이다.

합법적인 정치 활동의 환경하에서는 사태는 달라진다. 비밀 활동의 제 조건이 낳은 당내 민주주의의 약간의 제한은 필연적으로 소멸된다. 당은 선거 원칙, 당원 대중 앞에서의 지도 기관의 보고제를 광범히 실시하며 대회, 대표자 회의, 집회 등의 정상적 소집을 보장할 가능성, 즉 당내 민주주의를 각 방면으로 발전시키며 그것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을 얻게 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물론 중앙 집

권제를 조금이라도 경시한다던가 약화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더우기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그 자체는 옳은 지도가 있는 조건하에서만, 당 규률이 있고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며, 토의가 끝나고 결정이 채택된 후에는 행동이 통일되는 조건하에서만 완전히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혁명적 프로레타리아 당은 그가 사업하는 조건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례컨대 이러저러한 자본주의 나라에서 당이 합법적으로, 공개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때에도 그 어떤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제국주의 반동은 그들에게 유리한 때이면 온갖 선진적인 것, 진보적인 것의, 그리고 두 말할 것도 없이 우선 공산당의 합법성을 박탈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발견한다. 아데나우워 정부가 독일 공산당을 비법화한 사실은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1956년 가을에 있은 불란서 파쑈 분자들의 음모, 불란서 공산당을 비법화하려던 반동들의 기도를 잊어서는 안 된다. 바로 그 때에 이태리 의회에서는 신파씨스트들이 일부 기독교 민주당원들과 함께 웽그리야 사건에 대한 이태리 공산당의 립장과 관련하여 그 해산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였다. 맑스—레닌주의 당은 그 어떠한 돌발 사건에도 대처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어떠한 일도 불의에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 대렬을 엄격한 규률, 견고한 단결, 고도의 적극성과 전투 능력으로 부단히 결속하는 이외에 다른 도리는 없다.

정권 장악후의 프로레타리아 당에서는 중앙 집권제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서는 비합법의 환경에 의하여 조성되는 요소라거나 부르조아지가 지배하는 조건하에서의 사업상 난관에 의하여 조성되는 요소는 완전히 없어지고 민주주의가 당내에서 극히 광범히 발전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중앙 집권제는 새로운 조건하에서 당 건설과 당 사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지어서는 잘못일 것이다. 사회주의 혁명 승리후 당의 역할은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여 증대된다. 당은 로동 계급 독재를 조직하며 향도하는 력량으로 되며, 당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높은 정도에서 전투 정신과 단결을 보존하여야 한다.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의 기초 우에 건설된 당이 없이는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 전취하며 실현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웨. 이. 레닌은 여러 번 지적하였다. 10월 혁명 직후에 서구라파에서 창건된 청소한 공산당들 내의 《좌익》의 오유를 분석하면서 웨. 이. 레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 《〈좌익〉으로 하여금 실지로 일국적 및 국제적 범위에서 시련을 겪게 하라. 강철과 같은 규률을 가진 엄격한 중앙 집권제적인 당이 없이, 정치 문화 사업의 온갖 령역과 분야와 각종 면을 파악할 능력 없이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 준비해 보라고(또 다음에는 실현해 보라고)하라. 실지 경험은 그들을 곧 가르쳐 줄 것이다》(《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좌익〉 소아병》 조선 로동당 출판사 1957년 판 112페지). 레닌의 이 말이 오늘날 얼마나 현실적이며 절실하게 들리는가, 얼마나 힘 있고 정확하게, 바로 수정주의자들, 바로 최근에 《명령의 규률》——그들은 당적 규률을 이렇게 불렀다——을 청산하며 《전일적인 통일》과 기타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조건하에서는 소위 불필요하다는 당의 속성을 청산할 것을 호소한 수정주의자들을 내려치고 있는가!

물론 공산당은 정권을 전취하기까지에는 비상히 곤난한 조건하에서 사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한편 사회주의 혁명 승리후 당의 활동이 믿을 수 없으리만큼 복잡해 진다는 것도 사실이다. 당은 방대한 창조적 과업에 당면하는데 이것은 파괴하는 것보다 몇 배나 곤난하고 복잡하다. 외부로부터의 제국주의자들의 지지하에 전복된 착취 계급들이 진행하는 반항은 흔히 프로레타리아트 독재를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 무장적 진출의 형태를 띤다(쏘련에 있은 국내 전쟁, 세계 제국주의 반동의 도움으로 야기되고 준비된 웽그리야에서의 반혁명 폭동을 생각해 보라). 정권을 유지하며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고하고 단결된 당이 필요하다.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가 없이는 그러한 당으로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의 개별적 공산당 내의 수정주의자들(지금은 정세가 다르다는 구실을 부치는)이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를 거부하며 당을 영구히 론쟁하는 종파 그루빠로 전화시키려는 기도에 대해서는 비판할 여지조차 없다.

당내 중앙 집권제는 당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며 강화하는 필수적 조건이다. 당원 대중으로 하여금 당과 그 조직내에서 완전한 권리를 가진 주인으로 되게 하며 당 활동의 극히 중요한 모든 문제를 토의하게 하며 결정을 채택하며 그것을 실현하게 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란 중앙 집권제가 없이는, 유일 중앙에서 나오는 확고한 지도가 없이는, 모든 당원에게 의무적인 유일적인 규률이 없이는, 매개 당원이 각급의 상급 당 기관에 복종하며 상급 기관의 지시를 꾸준히 자원적으로 실행함이 없이는 생각할 수 없으며 또 불가능하다. 이러한 모든 것은 쏘련 공산당과 기타 사회주의 국가 공산당 및 로동당들의 경험에 의하여 명백히 증명되고 있다. 바로 민주주의와 중앙 집권제와의 유기적 결합에 의하여 당의 고도의 적극성과 전투 능력, 자주적 조직으로서의 당의 발전,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건설에 대한 성과적 지도가 보장된다.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민주주의와 중앙 집권제의 필요한 결합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능력, 경험, 신축성이 요구된다. 천편 일률과 도식은 여기에서 도대체 소용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은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를 위반케 하며, 그리하여 당을 약화시킬 수 있을 따름이다. 물론 실제 당 사업에서는 오유, 위반, 직접적인 관료주의적 외곡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이. 웨. 쓰딸린에 대한 개인 숭배의 전파와 관련하여 당 생활 규범의 위반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오유와 위반이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이 옳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원칙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는 것이 누구에게나 명백하게 되였다. 수정주의자들이 시도하듯이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의 위반과 그 원칙 자체와를 동일시하며 그것을 비방하며, 다만 이 원칙이 외곡되고 부정확하게 적용되였다는 리유만으로 이 원칙에 결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옳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은 대야의 물과 함께 아이까지 쏟아 버리는 사람의 행동과 같다. 원칙이 외곡을 산생하는 것은 아니다. 외곡은 옳바른, 좋은 원칙을 위반한 결과인 것이다.

프로레타리아 당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와 중앙 집권제는 분리할 수 없다. 이 량자는 한 원칙의 두 측면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중앙 집권제에 대한 수정주의자들의 공격은 당내 민주주의도 포함한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전체에 대한 공격인 것이다. 만일, 수정주의자들이 당내 민주주의를 어떻게 리해하고 있으며 또 그들이 공산당 및 로동당들 내에서의 당내 민주주의의 《확장》을 어떻게 표상하고 있는가를 본다면 이를 확신하기는 어렵지 않다.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맑스주의적 리해와 기회주의적 리해에 관하여

제국주의 반동, 그 이데올로그들, 전체 부르조아 선전은 쏘련 공산당에 대한 문제가 나오기만 하면(어떠한 다른 맑스—레닌주의 당에 대해서도 그러하지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위 《전체주의》라느니 개별적 인물의 《독재》가 존재한다느니 무어니 하면서 허위적인 비방을 퍼붓는다.

사실에 있어서는 어떤 정당들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적 제 원칙——선거제, 결산 보고제, 지도자들이 교체될 수 있는 것, 토론과 비판

의 자유, 모든 당 사업에 광범한 대중이 참가하는 것——이 맑스—레닌주의 당에서처럼 철저히 실시되지 못하며, 민주주의가 그와 같이 발양되지 못한다. 례컨대 우리 당은 비단 10월 혁명 이후의 시기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하 운동의 곤난한 환경하에서도 광범한 토의를 진행하여 어떠한 당원이나 모두가 당이 기도한 정치적 및 조직적 제 대책에 관해서 자기의 의견을 말하며 자기의 제안을 제기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점에 관하여 웨. 이. 레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

《부르죠아 정당들은 인민에 대한 각종 책략적 처방을 암암리에 조작하는 이러저러한 당 <기관>의 단순한 결정에 의하여 커다란 정치 문제들을 경우를 보아 가면서 결정한다. 오직 사회 민주 로동당만이 어떠한 큰 곤난이 있어도——심지어 비합법 당으로서 큰 희생까지 당하면서도 조직내에서 실지로 민주주의를 실시한다.… 오직 로동자 당만이 투쟁에 나서면서 어떤 공작을 할 것인가, 또 그 공작을 바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자기의 전체 당원들로부터 숙고되고 솔직하고 명확한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다》(전집, 조선문 판, 제 11권, 제 2분책, 319—320페지). 이 위대한 레닌적 전통은 모든 공산당 및 로동당들에서 귀중하게 보존되고 있다.

1956년과 1957년에 걸쳐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일련의 공산당들이 대회를 소집하였는데, 이 모든 대회에 앞서 근본적인 원칙 문제들에 대한 광범한 토의가 진행되였다. 불란서 공산당에 있어서는 대회 의정에 제기된 문제들에 관하여 출판물과 집회에서 오래 동안 적극적인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만 명의 당원들이 의견을 발표하였다. 불란서 공산당 총비서 엠. 토레스가 《불란서에는 우리 당처럼 그렇게 민주주의적 환경에서 자기 대회를 준비할 당은 하나도 없다》라고 언명한 것은 충분히 근거 있는 말이다. 카나다 로동 진보당 제 6차 대회 대표의 선거는 당원들의 적극적인 참가하에 실시되였다. 대표들은 당내에서의 장기간의 토론을 거친후 대회에 참석하였다.

민주주의적 원칙들은 비합법적 환경하에 있는 공산당들(자본주의 나라들에서)에도, 비록 민주주의의 범위는 정세에 따라서 변하지만, 역시 반드시 존재한다. 신문 《아반떼》(포도아 공산당 중앙 기관지)는 지하 운동의 환경하에서 소집된 포도아 공산당 제 5차 대회에 관하여 보도하였다. 대회는 중앙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를 청취하였다. 당 강령과 규약이 심의되고 채택되였으며 중앙 위원회가 선거되였다. 대회는 광범한 층을 대표하였다. 즉 그 참가자의 59%는 산업 로동자였고, 15%는 농업 로동자였고, 21%는 인테리겐챠의 대표였으며, 5%는 기타 주민층의 대표들이였다.

모든 중요 문제들에 대한 대중의 심의, 비판의 자유——이것이 바로 공산당 내에서 집체적 의견을 창조해내며 그 정책의 정확성을 검열하며 전 당적 관점을 조성하는 레닌적인 견인 것이다.

당원의 필수적 권리로써 모든 문제를 토의할 자유를 강조하면서 레닌은 언제나 당 대렬의 강화의 리익에 이 자유를 복종시켰다. 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무엇 때문에 론쟁하는가? 이것은 누구에게 리로운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만일 토론이 당의 원쑤들에게 리익을 줄 수 있을 때에는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재삼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 숭배와의 투쟁》, 《토의의 자유》라는 기치 밑에 몇몇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의 출판물에서 전개되였으며 본질상 반(反)사회주의적 성격을 띠였던 불건전한 론쟁을 제국주의 반동이 열심히 찬양한 사실을 우연한 일로 생각할 수는 없다.

토론, 토의, 비판을 당의 단결의 리익에 복종시키는 것——바로 이것이 우리가 지침으로 삼아야 할 중요한 점이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수정주의자들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다. 《자유》와 《민주주의》에 관한 부르조아적 거짓말에 속아 넘어 간 그들은 어떠한 제

한도 받지 않는, 토론의 권리, 당외 출판물에서 자기의 견해를 주장할 권리 등등에 대한 데마적 요구를 들고 나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민주주의의 확장》이라는 기치 밑에 들고 나서는 것이다.

영국 공산당 내의 기회주의 분자들은 《민주주의의 확장》이라는 것을 바로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즉 그들은 《당원이 정치 문제의 토의 또는 정치적 성명의 준비를 위하여 집합할 권리, 개별적 당원 또는 그루빠가 론쟁 문제에 관한 자료들을 독자적으로 공표하며 지방 단체들에 이 자료들을 배포할 권리》를 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소수가 다수의 의사를 무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였던 것이다. 영국 공산당 대회에서 중앙 위원회의 이름으로 한 《당내 민주주의에 관하여》라는 보고에서 마곤 동지는 이 그루빠에 날카로운 반격을 가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명하였다. 《우리 당의 당원들과 지방 단체들은 정책의 수립, 지도부의 선거, 지도 기관에 대한 비판, 결정의 채택과 실시 등의 문제를 놓고 볼 때, 다른 당들의 당원들보다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소수파의 제안은 개별적 당원을 집단 우에 세우며, 소수를 다수의 우에 세우며, 개별적인 당 단체를 당 전체 우에 세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만일 다수의 의사가 무시되고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대체 어떻게 로동 계급의 정치적 조직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라고. 영국 공산당 대회는 소수파의 제의를 거부하였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당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학설,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 원칙에 대한 충실성을 확증하였다.

민주주의적 중앙 집권제를 《개선》한다는 기'발 밑에 종파와 그루빠 형성의 자유를 합법화하려는 것——이것은 모든 기회주의자들이 즐겨 쓰는 전술이다. 이태리의 수정주의자의 한 사람인 에프. 오노프리는 《당과 로동 계급》이라는 자기의 소책자에서 이에 관하여 하나의 리론까지 만들어 냈는데 그의 의견에 의하면 당은 온갖 종류의 요소들, 온갖 종류의 조류들과 종파들을 통합해야 하며, 그리고 바로 이것들이야말로 발전의 기본 동력이라는 것이다.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이와 같은 견해는 당의 통일에 타격을 가하며 그것을 파괴한다는 것은 새삼스러이 말할 필요도 없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것이다. 당은 요새이다. 요새 안에서 비겁 분자, 반역자, 배반자가 지배할 때에는 그 요새를 내부로부터 탈취하기가 용이하다. 종파와 그루빠는 당을 반대하여 활동한다. 사실 당의 리익을 위하여 사업하려 한다면 당에서 떨어져 나가서 어떤 특별한 그루빠를 형성하고 뭉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이태리 공산당 제 8차 대회에서 팔미로 톨리아티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는 종파적 행동을, 오로지 로동 계급의 선봉대를 분렬시키며 그 행동 통일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배격한다. 우리는 또한 그러한 행동의 어떤 음페된 형태, 례컨대 당내에서 종파 및 그루빠가 부단히 투쟁하여야 한다는 요구도 배격한다…. 당내에는 통일이 존재해야 하며 견해의 통일, 사업에서의 통일과 단결이 존재해야 한다…》.

1957년 11월에 소집되였던 사회주의 제 국가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는 그 선언 가운데서 다음과 같이 성명하였다: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모든 경험은 사회주의 혁명의 제 과업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건설의 제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는 필수적인 담보로 되는 것은 공산당 및 로동당들이 자기 대렬의 맑스—레닌주의적 통일을 단호히 고수하는 것이며 이 통일을 파괴하는 종파와 그루빠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지도부의 단결은 전 당의 통일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불가결한 조건이다. 지도부의 분렬, 지도부 내에서의 의견 일치의 결여, 매 개인이 다른 사람의 의견은 존중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면서 지도부에 대립하는 그루빠나 종파에 가담하는 데까지에 이르는 의견 루

쟁은 당에 해로운 영향을 주며, 당 대렬내에 의혹과 동요, 불신임과 비판을 조성한다. 그러므로 당의 지도적 참모부의 통일은 응당 첫 자리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웨. 이. 레닌은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유일한 지도적 중앙이 없이는, 유일한 중앙 기관지가 없이는 당의 진실한 통일은 불가능하다》(전집, 조선문 판, 제 9권, 제 1분책, 265페지).

영국 공산당 제 25차 대회와 카나다 로동 진보당 제 6차 대회에서와 불란서, 이태리 및 기타 나라 공산당에서 수정주의자들에게 가한 그 일치한 반격은 지도부의 견고성과 고상한 원칙성, 당원 대중의 정치적 성숙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파란 통일 로동당 중앙 위원회 제 9차 전원 회의(1957년 5월)는 전 당 단체들이 당내에서의 그루빠적 행동을 단호히 배격하고 당의 통일을 강화할 것을 호소하였다. 전원 회의는, 당 지도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러저러한 형태로 그루빠적 또는 종파적 활동을 하는 자들에게는 출당에 이르기까지의 제재를 적용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동 전원 회의 결정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당은 당의 정치 로선과 모순되는 견해를 당원들이 공개적으로 제창하는 것과도, 당의 결정을 반대하여 사회 여론에 호소하는 것과도 타협할 수 없다》.

공산당의 통일, 그 지도부의 단결은 사회주의 제도의 공고성의 담보이다. 국내 반동 세력과 국제 제국주의 세력이 준비하고 도발한 1956년 10—11월의 웽그리야의 반혁명 폭동이 가능하였던 것은 반혁명이 진출할 무렵에 웽그리야 근로자당 내에, 그 지도부 내에 종파 투쟁이 있은 때문이기도 하였다. 임레 나지를 두목으로 하는 수정주의자들과 변절자들은 일보일보 당의 통일을 파괴하였다. 반혁명적 폭동이 가장 첨예하였던 시기에 임레 나지—게자 로손찌의 청산파적 그루빠가 감행한 당의 해체는 기회주의자들의 반역 행위의 결말이였으며, 기회주의자들이 국내 및 국제 반동에 제공할 수 있었던 최대의 봉사였다. 이 사실은, 수정주의는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조건하에서 용이하게 반혁명의 도구로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였다.

웽그리야 사건과, 그 당시에 국제 반동이 기대를 걸기는 하였으나 그러나 웽그리야에서와 같은 폭동을 도발할 수는 없었던 기타의 인민 민주주의 제 국가에서의 사태는, 강력하고 단결되고, 맑스주의적 립장을 견결히 옹호하는 당 지도부의 의의를 가장 명백하게 보여 주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에 대한 수정주의자들의 공격이 통례로 당 중앙 기관들을 반대하는 투쟁, 그 지도자들을 반대하는 공격을 동반하게 되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로동 계급의 지도자들에 대한 각종 비렬한 비방과, 있지도 않는 말을 날조하여 전파시키며 각양각색의 풍문을 들추어내여 그것을 과장하는 방법으로써 지도적 당 중앙과 로동 계급의 지도자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은 부르죠아지와 그 앞잡이들이 오래 전부터 즐겨 쓰는 수'법이다. 한때 당과 그 중앙 위원회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여하한 수단도 가리지 않은 《로동자 반대파》가 존재하던 시기에 웨.이. 레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 《반대파의 주위에는 멘쉐위크와 에쎄르들이 둥지를 틀고 있었는데(의심할 바 없이 지금도 둥지를 틀고 있다) 그들은 풍문을 과장하여 전대미문의 악의에찬 정식화를 하고 있으며, 온갖 방법으로 비방하고 추악한 해석을 가하고 충돌을 격화시키고 당 사업을 훼손하기 위하여 있지도 않는 말을 날조하고 있다. 이것은 부르죠아지의 정치적 수'법이다…》(전집, 제 32권, 로문 판, 83페지).

형형색색의 반동, 수정주의자 및 기회주의자들도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지도부는 오유를 범하지 않는다고 믿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그 말을 자기들의 목적에 리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산당 내에는 지도자나 집체적 당 기관에 대하여 당원 대중이 맹목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믿는 일은 없다.

당——이것은 자각적 투사들의 동맹이다. 이러한 동맹에는 자기들이 선거한 기관, 자기들의 지도자들에 대한 당원 대중의 맹목적인 신앙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식적인 신임이 존재한다. 이러한 신임이 필요하며 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데 대하여 웨. 이. 레닌은 재삼 말하였다. 만일 그러한 신임이 없다면 성과적인 지도는 불가능하다. 당원 대중이 자기들이 선거한 지도부를 신임할 때, 그들은 지도부의 집체적 지혜에 대해서도, 또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며 정책 수립과 그 실현에서 오유를 범하지 않을 지도부의 능력에 대해서도 의식적으로 신임한다는 것은 극히 명백한 것이다.

맑스—레닌주의는 력사에 있어서의 인민 대중의 결정적 역할을 인정하는 데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나 맑스—레닌주의는, 근로 대중이 그 령도하에서 사회의 혁명적 개조를 위하여 투쟁하는 그러한 수령의 의의를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 웨. 이. 레닌은, 로작 《공산주의에 있어서의 <좌익> 소아병》에서 볼쉐위즘의 경험을 과학적으로 일반화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정당은 통례로서 가장 권위 있고 유력하고 경험 있고 가장 책임 있는 지위에 선발된 수령이라고 불리우는 인물들로 되는 다소간 고정된 그루빠에 의하여 지도된다… 이 모든 것은 초보적인 것이다. 이것은 모두 간단 명료한 것이다》(전집, 31권, 로문 판, 24페지).

혁명적 프로레타리아 당의 지도자들과 수령들의 위신——이것은 그들의 경험과 지식, 맑스—레닌주의의 위대한 사상에 대한 그들의 헌신성, 근로자들의 리익을 위한 투쟁에서의 그들의 견결성이 가지는 위신인 것이다. 지도자들이 광범한 당원 및 비당원 대중과 밀접히 련결되면 될수록 또 집체적 지도의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면 할수록 그 위신은 더욱 높아진다. 이 모든 것은 례컨대 다음과 같은 사실 즉 불란서 사회당 지도자의 한 사람인 엘. 블룸이 한 때 《나는 결코 당의 의사에 복종하지 않았다. 반대로 나는 자기의 의사를 항상 당에 강요하였다》고 거만스럽게 말한 것과는 아무런 공통성도 있을 수 없다.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는 당원 대중이 주인으로 되고 있는 조직에서의 지도부의 힘과 위신에 대한 인정도 포함한다. 당원 대중의 전능은 그들이 당 정치 로선을 규정하고 당 기관의 지도 밑에 그 로선을 실현하며 지도자들을 선발하고 그들의 활동을 통제하는 데에 있다. 당은 자립적, 창조적, 적극적 조직으로서 발전되면서 동시에 중앙 집권제에 의하여 견고하고, 위신 있고, 모두가 인정하고 일반이 신임하는 지도부를 가진다. 한편 중앙 집권제의 힘은 그것이 가장 광범한 민주주의를 그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민주주의에 립각하였으며 의식적으로 자발적으로 접수한, 규률에 복종할 의무에 립각한 중앙 집권제와 위신 있고 중앙 집권화된 지도부에 의하여 단합된 민주주의만이 로동 계급의 정당에 고도의 적극성, 견고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당 내부 생활의 다른 임의의 의무적 규칙과 마찬가지로 당 규률이 가지는 힘은 바로 그것이 자각적 규률이며 당원들이 이러한 규률이 없이는 혁명적 로동자 당은 하루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리해하고 그것을 받아 들인다는 그 점에 있다.

❊ ❊

공산당과 로동당의 위대한 힘은, 그 당들이 조직 형태와 정치 로선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 방법도 포함한 모든 일에 창조적 맑스주의의 립장에서 대한다는 점에 있다. 당은 당의 조직 형태와 활동 방법이 새로운 요구에 뒤떨어진 것을 제때에 발견하고 이 형태와 방법이 새 임무 실현에 지장을 주거나 장애물로 되기 전에 그것을 변경하도록 노력한다. 맑스주의 당들이, 조직 형태는 변경하면서도 당 건설의 근본적 제 원칙 즉 일시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제 조건이나 프로레타

리아트 독재의 제 조건하에서의 투쟁의 전 시기에 걸쳐 그 힘과 생활력을 보유하는 제 원칙은 확고부동하게 보존한 그러한 실례를 무수히 들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당은 그 조직 형태를 두차 변경하였고, 낡은 당 생활 규범을 버리고 새 임무와 변화한 조건에 적응하게 그것을 바꾸어 왔다. 다른 맑스—레닌주의 당들도 모두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것은, 매개 당은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의 범위내에서 그 특수성에 알맞게 그 조직을 건설하며 활동 방식을 규정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실례의 하나인바 그 특수성이란 력사적 및 민족적 제 조건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이며 또 정치적 및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례를 들면 산별, 지역별 원칙은 당 단체를 직접 공장 및 제조소(생산 직장)에 건립하고 그 다음에 해당 행정 단위(구역, 관구, 도)를 범위로 하여 그것을 지역별로 련합하는 것인데 이것은 직접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나라에 따라 이 원칙은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례컨대 쏘련 공산당에서는 산별 초급 당 단체(공장, 꼴호즈, 기타의)와 아울러 한개 내지 수 개의 촌 쏘베트 경내에 거주하는 당원을 망라하는 지역별 초급 당 단체도 있고 또 주택 관리소 내의 초급 당 단체도 있다. 다른 형제 당들에도 역시 산별 초급 당 단체 외에 지역별 초급 당 단체가 있다.

인도 공산당 중앙 위원회 전원 회의(1957년 5월)는 현존 당 구조에는 당의 급속한 장성을 방해하는 약간의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고 당 구조에 변경을 가할 것을 제의하였다. 즉 하급 기본 당 단체는 당 지부이고 이 지부에는 도시에서는 한개 내지 수 개의 행정 구역, 농촌 지방에서는 한개 내지 수 개의 촌, 산업 기업소, 광산 등등이 망라된다. 전원 회의는 《지역별 조직으로 개편하는 것이 기업소에서의 활동을 약화시키게 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상의 실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이러한 경우에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 원칙과 이로부터 나오는 당 단체 조직의 산별—지역별 원칙은 의연히 변하지 않는다. 차이는 원칙의 위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구체적 조건을 참작하여 그 원칙을 창조적으로 적용한 데 기인한 것이다. 유일한 원칙과 다종다양한 형태는 공산당 및 로동당들에 그 활동의 필요한 확고성과 신축성을 보장하여 준다.

수정주의자들은 레닌적 당 건설 원칙에 대하여 이와는 다른 태도를 취한다. 그들은 맑스—레닌주의 당의 리론적 기초를 파괴하며 당의 토대, 그 힘과 견고성을 이루고 있는 근본 명제를 전복하는 데로부터 시작한다. 그들은 그 공격에 있어서, 제국주의 반동이 로동 계급의 과학적 리론인 맑스—레닌주의를 반대하며, 이 리론의 담당자이며 구현자인 공산당 및 로동당들을 반대하여 전개하고 있는 사상 투쟁에 추종하고 있다. 극악한 수정주의자들이 그 중상의 많은 부분을 부르조아 선전의 무기고에서 빌려다가 자기의 언행에 양념을 치고 있는 것은 놀랄 것이 없다. 일부 이러한 자들은 공산당의 대렬을 떠나 부르조아 진영으로 곧장 넘어 가서 반공산주의 투쟁의 공동 강령을 기초로 하여 각종 《독립적》 출판물과 《자유주의적》 출판물에서 즐겨 협력하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은 부르조아 이데올로기의 공격에 견디여 내지 못하고 맑스—레닌주의를 배반한 자들의 극 소수의 집단이다. 이 자들은 공산당 및 로동당들에서 섬멸적인 반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투쟁을 결코 늦추어서는 안 된다. 수정주의는 현 단계에 있어서 국제 혁명 운동의 주되는 위험이다. 왜냐 하면 수정주의는 제국주의 부르조아지에 대한 투항이며 부르조아지의 사상적 파괴 공작에 직면하여 로동 계급과 그 전위대를 무장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수정주의 또는 같은 것이지만 우경 기회주의는 사상, 정치, 조직, 전술면에서 맑스—레닌주의를 파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수정주의는 교조주의와의 투쟁과 리론의 《창조적》 적용이라는 기'발을 내걸고 공격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사회주의 제 국가 공산당 및 로동당 대표들의 회의의 선언에는 이렇게 씌여 있다. 《현대의 수정주의는 맑스—레닌주의의 위대한 학설을 훼손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그것을 〈낡아빠진 것〉이라고 선언하며 오늘에 와서는 그것은 사회 발전에 대하여 가지는 의의를 상실하였다고 선언하고 있다. 수정주의자들은 맑스주의의 혁명적 정신을 말살하려고 하며 사회주의에 대한 로동 계급과 근로 인민들의 신념을 꺾으려고 한다. 그들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에 있어서의 프로레타리아 혁명과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력사적 필연성을 반대하여 나서며 맑스—레닌주의 당의 지도적 역할을 부인하며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제 원칙을 부인하며 당 건설의 레닌적 기본 원칙들과 무엇보다도 먼저 민주주의 중앙 집권제의 거부를 요구하며 공산당이 전투적인 혁명적 조직으로부터 일종의 토론 구락부로 전락할 것을 요구한다》.

맑스주의자의 옷으로 가장한 수정주의자들의 가면을 벗기는 것은 맑스—레닌주의의 립장에 튼튼히 서 있는 매개 사람의 의무이며 책임이다.

(쏘련 《꼼무니쓰트》 1958년 제 6호).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파쑈 통치의 강화와 남조선 인민들의 무권리

강 기 식

근 13년 간에 걸쳐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이 남조선에서 계통적으로 감행하여 온 식민지적 략탈 정책과 세계에서 그 류례를 찾아 보기 드문 파쑈적 테로 통치의 결과 남조선은 완전히 중세기적 암흑 세계로 전변되였다.

남조선의 공업 총생산액은 1955년에 이미 일제 말기인 1940년에 비하여 약 2분의 1로 감소되였으며 곡창으로 이름난 남조선 농촌은 기근 지대로 변하였다. 현재 남조선에는 380만의 실업자 및 반 실업자들과 300만 이상의 절량 농민들이 기아와 빈궁 속에서 헤매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은 혹심한 《생활고》에서 뿐만 아니라 또 정치 사회 생활에서의 무권리와 참을 수 없는 인권 유린의 학정 속에서 신음하고 있다. 허물어져 가는 자기들의 반동적 통치 제도를 부지하기 위하여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이 감행하고 있는 야수적인 테로 탄압과 각종 파쑈적인 법률의 조작에 의하여 남조선 인민들은 사소한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마저 완전히 박탈 당하고 있다. 백주에 횡행하는 테로, 경찰의 전횡, 인민 대중에 대한 야수적인 탄압과 검거 투옥의 무법 천지——이것이 오늘 남조선의 사회상이다.

특히 남조선 도처에서 공공연히 감행되고 있는 미제 침략군의 살인 강도 행위와 조선 인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민족적 멸시와 모욕은 남조선 인민들의 처지를 더욱 암담하게 하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버러지고 있는 모든 사태는 미제와 리 승만 통치 제도의 심각한 정치 경제적 위기와 그의 피치 못할 전면적인 붕괴과정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온갖 사회악을 빚어낸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반동적 통치 제도가 걷는 필연적 결과이다.

* *

미제의 총칼의 비호하에 조작된 리 승만 괴뢰 정권은 《극소수의 예속 자본가, 지주들의 리익을 대표하여 근로 대중을 압박 착취하는 반인민적 기관일 뿐만 아니라 미 제국주의 세력을 적극적으로 부식시키고 있는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 도구》(김 일성)이다. 따라서 그의 모든 정책은 조선 인민의 리익과는 하등의 인연도 없으며 오직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를 촉진시키며 남조선의 모든 부원을 미 제국주의자들에게 송두리채 내맡기기 위한 철저한 반인민성으로 일관되여 있다.

리 승만 괴뢰 정권의 계급적 기초로 되고 있는 것은,한 줌도 못 되는 남조선의 예속 자본가와 지주이다. 이들은 바로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 세력을 부식시키는 사회적 지주(支柱)이며 우리 나라의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반동적 계급이다.

리 승만 괴뢰 정부와 사법 경찰 기관의 상층 관료, 괴뢰 군대의 상층 장교들은 자본가와 지주, 그리고 그의 정치적, 사상적 대변자들에 의하여 완전히 독점되고 있으며 리 승만 《정권》의 매국적, 반인민적 정책은 주로 이들에 의하여 실현되고 있다. 이 매국 집단은 지난 기간 《한미 재정 및 재산에 관한 협정》, 《한미 경제 원조 협정》, 《한미 우호, 통상 및

항해 조약》 등을 비롯한 실로 10 여 개의 매국 조약을 조작하여 냄으로써 남조선의 모든 자원과 지배권을 미제에게 완전히 넘겨 주는 매국적 행위를 감행하였다.

이러한 반동적 본질로 인하여 리 승만 괴뢰 정권은 인민 대중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되였으며 그의 통치 지반은 밑바닥으로부터 뒤흔들리고 있다.

특히 정전후 미제와 리 승만 통치 제도의 위기는 극도로 첨예화되고 있다.

직면한 심각한 정치 경제적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파쑈적인 군사 경찰 기구를 확장하며 각종 악법들을 더욱 많이 조작하여 인민 대중에 대한 류혈적 탄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밑에 리 승만 도당은 《헌법》을 개악하여 리 승만의 《종신 대통령제》를 만들어내고 《국회》의 주요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집중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으며 《국회》내에서 야당파 의원들의 활동을 탄압하고 《자유당》 세력을 강화함으로써 《국회》를 더욱더 리 승만 통치 기구의 부속물로 전환시키고 있다.

괴뢰 정부내에서도 리 승만은 자기의 권한을 무제한으로 증대시켜 횡포한 《독재관》으로 행세하고 있다.

리 승만 개인 독재는 1955년 2월에 만들어낸 새 《정부 조직법》에 의하여 더욱 강화되였는바 종래에 《국무 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임명하던 행정 각 부 《장관》들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통제, 감독권을 가지고 각 부 《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을 《대통령》이 직접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리 승만은 괴뢰 정부의 관료들을 자기의 충복인 이름난 교형리와 테로 분자들로 교체하여 그의 파쑈적 통치 지반을 강화하기에 전심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밑에 리 승만은 《5. 15 선거》후 대부분의 행정부 《장관》을 교체하였으며 1956년 9—10월에만도 행정, 검찰, 재정, 교육 기관 등으로부터 자기의 반대파와 명령에 불충실한 관리들을 3만 1,793명이나 축출하였다.

리 승만의 파쑈 독재에 대하여 영국 《타임스》지는 다음과 같이 썼다: 《정권은 허식적인 국회를 가진 독재이다. 남조선에는 헌법이 있으나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한 권력은 그로 하여금 헌법의 효력을 중지케 할 수 있다…. 장관들은 아무런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미제는 총칼에 의하여 리 승만의 파쑈 독재를 가일층 강화함으로써 매국노 리 승만으로 하여금 인민의 리익과 배치되는 어떠한 매국 정책도 단독적으로 감행케 하여 남조선에 대한 자기들의 식민지 예속화를 더욱 강화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인민 대중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리 승만 통치 제도의 위기를 더욱 심각화하여 줄 뿐이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그의 파쑈 테로 통치를 감행하기 위하여 상술한 일련의 정치적 조치들과 함께 인민 대중을 탄압하기 위한 파쑈적 군사 경찰 기구를 가일층 확대 강화하고 있다.

정전후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괴뢰군을 70만 이상으로 증강하였으며 그를 원자 무기로 장비시키고 있다. 괴뢰군은 미제 침략군과 함께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파쑈 테로 통치를 유지하는 유력한 도구로써 인민 대중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남조선을 강점하고 있는 미제 침략군은 가장 잔인무도한 살인귀로, 집단적 갱그단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그들의 행패는 날이 갈수록 더욱 우심하여 가고 있다. 이 두발 가진 짐승들은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무고한 인민들을 매일같이 살해하고 있으며 부녀자들을 릉욕하며 인민들의 재산을 백주에 공공연히 략탈하고 있다. 작년 7월 7일 인천 관내 미군 송유관 우에서 놀고 있는 세 살 먹은 김 용호 어린이를 《휘발유 도적》이라고 즉석에서 살해한 사건, 지난 2월 25일 서울시 교외 부평에 있는 미 제 8군 항공기 정비 본부 소속 미군 소령 토마스 제임스가 구두 닦이 소년 김 춘일(13세)을 칼로 찌르고 발톱을 뽑은 후 상

자 속에 밀장하여 살해하려고 한 야수적 만행 등은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생생하다. 군산 비행장 부근에서의 소년 총살 사건, 김천 역전에서의 송 중원 학생 학살 사건, 조선 소년을 셰파드에게 물어 뜯게 하고 사살한 사건, 조선 녀성들을 릉욕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수 많은 사건들이 남조선 도처에서 매일과 같이 일어나고 있다. 작년 4월 미국 강도단이 파주를 집단적으로 습격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미제 살인귀들에 의하여 감행된 야수적 만행만 하여도 99건에 달하고 있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그의 파쑈 통치를 강화함에 있어서 특히 괴뢰 경찰의 확대에 광분하고 있다. 정전후 리 승만 도당은 사찰 경찰을 2배로 증가시켰으며 경찰 보조 기관인 《의용 소방대》를 근 5만 명으로 확대함으로써 남조선 전역을 경찰망으로 뒤덮고 있으며 인민 대중에 대한 폭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1955년 12월에는 《사법, 경찰, 관리 직무 범위 법안》을 조작하여 소년 형무소장, 산림 주사, 세무 관리, 전매 기관 《공무원》들에게까지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은 인구에 대한 경찰 비례로 보아 과거의 일본보다도 더 많은 경찰을 가진 《이름난 경찰 국가》로 되고 있다.

최근 리 승만 도당은 《국민반》까지도 경찰에 종속시켜 반원들의 동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국민반》 단위로 《국민 방범반》을 조작하여 인민들을 탄압하기에 광분하고 있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인민들을 대량적으로 검거 투옥하기 위하여 재판소와 형무소를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정전 후에만도 22개소의 형무소와 130 여 개소의 재판소를 신설 또는 확장하였으며 《우선 선고, 그 다음에 재판》이라는 공공연한 기만과 사기 방법으로 수 많은 애국적 인민들을 재판 없이 검거 투옥하고 있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야수적인 파쑈 통치 하에서 근로 대중에게는 사소한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남조선 로동자들을 가혹하게 착취할 뿐만 아니라 가장 혹독한 탄압을 가하고 있다. 로동자들은 생존을 위한 초보적인 민주주의적 권리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파업권까지도 박탈 유린 당하고 있는바 그들에게는 반동적인 《대한 로총》 이외에는 어떠한 로동 조합의 조직과 활동도 금지되고 있다. 특히 미제 침략군과 외국인 회사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은 정당한 의견과 요구를 제출할 때에도 검거, 폭행, 학살 등 온갖 악형을 받고 있다.

특무는 로동자들의 동향을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불평 불만을 표시하는 로동자들에 대하여서는 《불순 분자》로 몰아 직장에서 축출하고 있다. 리 승만 도당은 몇 달씩 체불된 임금 지불을 요구하는 로동자들도 《공산 분자》로, 시위자들을 《폭동 분자》로 검거 투옥하고 있다.

로동자들은 자기들의 집회는 물론, 야당파들이 소집하는 강연회에도 참가할 수 없다.

이러한 참을 수 없는 무권리와 생활고 속에서 남조선 로동자들의 미제와 리 승만 도당에 대한 반항 기세는 날로 높아 가고 있다.

남조선 농민들과 청년 학생들의 처지도 동일하다. 남조선 농민들은 미 제국주의와 봉건주의 및 예속 자본의 2중 3중의 억압과 착취에서 극심한 생활상 위협을 받고 있으며 초보적인 정치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권리는 고사하고 자유로운 영농 활동과 자기의 생명, 재산을 수호하기 위한 권리까지도 침해 당하고 있다.

빈농, 고농을 비롯한 수 많은 농민 청년들은 리 승만 도당의 대포'밥으로 끌려 나가고 있으며 수백만 근로 농민들이 군사 도로와 군사 시설장에 강제 부역으로 동원되고 있다. 미제의 강점과 괴뢰군의 확장에 의하여 남조선 농민들의 인명, 재산과 농작물의 피해는 계속 증대되고 있다.

남조선 학생들은 민주주의적 교육의 권리를 박탈 당하고 있으며 학교는 모리장으로, 련병장으로 전락되고 있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은 인권을 여지 없이 유

린 당하고 있으며 자유와 권리를 요구하는 어떤 사소한 표현도 《반정부 분자》로서 검거되고 있다. 심지어 야당 신문을 구독하였다는 것으로써 경찰과 테로의 박해를 받고 있는바 눈을 가지고도 볼 수 없으며 귀를 가지고도 들을 수 없는 것이 미제 강점하의 남조선 인민들의 참담한 처지이다.

이와 같이 리 승만 도당은 과거 일제가 조선 인민에게 강요하던 《6법 통치》에다가 《무법》, 《불법》을 더 첨가하여 《8법 통치》라는 악랄한 통치 질서를 수립하고 있다.

남조선의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미국 잡지 《쌔터데이 이브닝 포스트》지 특파원 윌리암 워든은 남조선을 《아세아에서 가장 비참한 반도》라고 쓰고 있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총칼과 테로로 인민들을 탄압할 뿐만 아니라 또한 각종 악법을 수 많이 조작하여 남조선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 행동을 억제하고 있다.

리 승만 괴뢰 정부는 미 군정 당시의 모든 악법들을 물려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악법들을 조작함으로써 남조선에서 일체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 단체들의 활동을 완전히 억제하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마저 박탈하고 있으며 수 많은 인민들을 검거 투옥, 학살하고 있다.

1948년에 리 승만 도당이 조작한 《국가 보안법》은 일제의 악명 높은 《치안 유지법》을 릉가하는 악법으로써 실로 이 파쑈적 법률에 의하여 수십만 명의 애국적 인민들이 검거 투옥, 학살되였다. 1957년 12월 1일부터 금년 1월 10일에 이르는 기간에만도 1만 959명에 달하는 인민들이 검거 투옥되였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써도 리 승만 도당들의 파쑈 통치가 얼마나 악랄하고 포악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더우기 남조선에서는 소위 《즉결 재판》에 의하여 인민들을 무럭대고 투옥, 학살하는 것이 보통 현상으로 되고 있는바 1945년 10월부터 1955년 5월까지의 기간에만도 실로 근 16만 명에 달하는 인민들이 《재판》 없이 투옥, 학살되였다.

최근 리 승만 도당은 인민들을 더 많이 검거 투옥, 학살하기 위하여 《국가 보안법》을 더욱 개악하고 있는바 이 《개정안》에서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사형 적용 범위를 최대한으로 확대하고 《방조자》까지도 엄벌에 처하는 전고미문의 야수성을 드러 내놓고 있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남조선 인민들의 사회 정치 생활에 대한 파쑈적 탄압을 강화하는 하나의 조치로써 일체 결사, 집회의 자유를 봉쇄하고 있으며 자기들의 비위에 맞지 않는 모든 정당, 사회 단체들을 탄압 해산시키고 있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계속적인 탄압에 의하여 남조선에서는 민주주의적 정당, 단체들의 합법적 활동이 완전히 금지되고 있다. 그리하여 남조선 인민들은 자기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정치적, 사회적 조직을 가질 자유를 말살 당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결사, 집회의 자유가 얼마나 란폭하게 유린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이 근로 인민들의 온갖 집회를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야당파들과 《국회 의원》들에 대한 박해에서도 넉넉히 볼 수 있다. 《부통령》 장 면 암살 음모 사건, 장충단 공원 집회와 기타 야당들의 집회에 대한 경찰들의 습격 사건 등은 그의 단적 실례로 된다.

리 승만 도당은 최근 《민의원 선거》를 계기로 인민들과 야당들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였다. 선거에서 《자유당》의 우세를 보장하기 위하여 리 승만 도당은 《진보당》을 비롯한 야당 간부들을 대량 검거 투옥함으로써 그들의 선거 활동을 극도로 억제하였다.

례컨대 금제에서는 야당 출신 립후보자가 선거 연설을 마치고 돌아 오던 길에 경찰의 박해를 받았으며 화천군에서는 야당측 선거 운동원이 백주에 테로를 당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은 선거가 박두함에 따라 더욱 빈번히 일어났다.

암흑 세계로 화한 남조선에서는 민주주의적 자유의 초보적 규범인 언론, 출판의 자유도 완전히 유린되고 있다. 《신문 및 정기 간행물 허가제》, 《출판물에 관한 림시 조치법》,

《국가 보안법》 등에 의하여 오늘 남조선에서는 미제와 리 승만 통치 제도를 반대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의 념원을 대변하는 민주주의적 언론 활동들은 완전히 금지되고 있다.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1956년에도 143개의 출판물들을 폐쇄하였으며 또 다시 지난 2월 19일 23개의 정기 간행물들을 폐간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민의원 선거》를 계기로 리 승만 도당의 언론 봉쇄 조치는 더욱 우심하였다.

리 승만 도당은 선거 기간에 출판물을 통하여 자기들이 감행하여 온 악정과 선거에서의 자기들의 폭압과 협잡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 《민의원 선거법》에 《누구든지 어떤 특정한 후보자를 당선 또는 락선시킬 목적으로… 보도 기타 평론을 게재할 수 없다》는 황당무계한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언론인들의 활동을 극도로 구속하였다.

이와 동시에 리 승만 도당은 경찰과 테로단을 동원하여 언론, 출판 일'군들을 검거 투옥하며 출판 기관들을 습격하여 건물, 기구들을 파괴하였다. 작년 여름에 《대구 매일사》가 백주에 테로를 당한 사실을 비롯하여 《한국 일보》 광주지사가 《조선 대학교 맹휴 사건》을 보도하였다 하여 100 여 명의 테로 분자들의 습격을 당한 사실만으로써도 리 승만 도당의 언론 탄압 조치가 얼마나 야만적인 것인가를 알 수 있다.

과거 히틀러의 언론 탄압 정책을 릉가하는 이 악랄한 조치는 세계 각국 언론인들의 강력한 항의를 불러 일으켰다.

남조선 인민들의 정치적 무권리는 그의 반인민적 선거 제도에서도 로골적으로 표현되였다.

력대 《국회 선거》에서와 같이 지난 제 4대 《민의원 선거》에서도 리 승만 도당은 자기들의 파쑈 테로 통치를 반대하는 근로 인민들과 반대파들을 억제하고 자기의 추종 분자들로써 《국회》를 조작하기 위하여 년령, 거주 기일, 재산, 지식, 기타 각종 제한 조건을 설정하여 수백만 남조선 근로 인민들의 선거권을 박탈하였다. 남조선 통신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지난 선거에서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이 얼마나 혹독하게 인민들의 선거권을 박탈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리 승만 도당은 절대 다수의 근로 인민들을 선거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수백만 근로자들의 선거권을 박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피선거권도 완전히 박탈하였다. 그들은 반동적 《민의원 선거법》을 조작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립후보 진출을 사실상 불가능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소 정당 출신의 립후보자들에게도 타격을 주었다. 그 결과 지난 《민의원 선거》에서 등록된 《국회 의원》 립후보자 총수 866명 중 그의 직업별 구성을 보면, 전 《국회 의원》이 175명, 기업가, 상인 182명, 지주 148명, 전직 관료가 213명 및 기타로 되여 있었는데 거기에는 한 명의 로동자, 농민의 대표도 없었다. 이는 리 승만 도당의 선거 제도의 반동적, 반인민적 본질을 다시 한 번 뚜렷이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이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온갖 폭압과 협잡의 방법으로 제 4대 《민의원 선거》에서 《자유당》 세력의 강화를 획책함으로써 수습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한 자기들의 파쑈 테로 통치 기구를 유지하여 보려고 광분하였다.

그러나 남조선에서의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통치 지반은 지금 밑바닥으로부터 뒤흔들리고 있다. 남조선 경제는 더욱더 파탄 일로를 걷고 있으며 수백만 근로 인민들은 미제와 리 승만 통치 제도가 빚어낸 무권리와 암흑 속에서 더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

오늘 남조선 인민들 속에서는 반미 반리승만 기세가 날로 높아 가고 있으며 그들은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요구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서고 있다.

남조선 출판물들이 보도하고 있는 불완전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생활상 요구와,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위한 남조선 로동자들의 투쟁은 1957년에는 118건으로 장성되였으며 그것은 금년에 들어 와서 더욱 증가되고 있다.

지난 1—3월 간에만도 임금 인상과 체불 임금 지불을 위한 부산 부두 로동자들의 투쟁, 체불 임금 지불을 요구하는 밀양 《한국 모직 공장》, 영등포 《태창 방직 공장》 로동자들의 투쟁, 부당하게 해고 당한 48명의 로동자들에 대한 해고 철회와 해고 수당의 지불을 요구한 인천 《흥한 방직 공장》 로동자들의 시위 투쟁 등을 비롯하여 수십 건의 각종 투쟁들이 전개되였다.

남조선의 농민, 소상인, 수공업자, 소시민들의 투쟁도 점차 장성되고 있다. 농민들은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가혹한 수탈 정책과 파쑈적 탄압을 반대하여 소작쟁의, 고률의 고리대 반대 투쟁, 《군청》, 《 면사무소》에 대한 항의 투쟁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소상인, 수공업자들은 미제 독점 자본의 압박과 리 승만 도당의 과세 부담의 증가, 융자 억제 등을 반대하여 투쟁에 나서고 있다.

남조선 청년 학생들 속에서는 미제의 식민지 노예 교육과 학원의 모리화를 반대하며 강제 징소집과 병무 훈련을 거부 기피하는 투쟁 기세가 더욱 높아 가고 있다. 특히 금년에 들어 와 남조선의 광범한 청년 학생들은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의 전쟁 정책과 강제 징소집을 집단적으로 반대 기피하는 완강한 투쟁을 전개하여 1958년도 제 1차 《징소집명장(徵召集令狀)》을 받은 자 중 64%가 이를 거부하여 나섰다. 남조선 인민들의 이러한 투쟁들은 억제할 수 없는 지향으로 되고 있다.

남조선 인민들이 겪고 있는 정치적 무권리와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은 바로 미제 침략군의 남조선 강점에 있다.

공화국 정부는 지난 2월 5일 조선으로부터 미군을 비롯한 일체 외국 군대를 철거시키고 민주주의적 기초 우에서 평화적 조국 통일의 위업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제의를 제기하였으며 이미 조 중 량국 정부의 주동적 조치에 의하여 중국 인민 지원군의 철거 사업이 개시되여 이미 제 일계단 철거가 끝났다.

조선으로부터 일체 외국 군대의 철거가 더는 지체될 수 없는 성숙된 문제로 나서고 있는 오늘, 미제 침략군은 남조선에 이 이상 더 머물러 있을 하등의 근거와 구실도 없다.

암흑이 광명을 가리울 수 없듯이 미제와 리 승만 도당은 어떠한 폭압 통치로써도 남조선 인민들을 더는 기아와 빈궁, 암흑과 무권리 상태에 얽매여 둘 수 없다.

조선 인민은 자기들의 단합된 힘으로써 미제 침략군을 남조선으로부터 물러 가게 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위업을 달성하고야 말 것이다. 오직 이 길만이 남조선 인민들을 미제와 리 승만 통치의 학정으로부터 영원히 구원하는 길이다.

쏘련에서의 꼴호즈 제도 발전의 새로운 단계

(본지를 위한 특별 기고)

쏘련 농업상

이. 아. 베네직또브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2월 전원 회의 결정, 얼마 전에 진행된 쏘련 최고 쏘베트 제 5기 제 1차 회의에서 진술한 엔. 에쓰. 흐루쑈브 동지의 보고와 거기서 채택된 법령 《꼴호즈 제도의 가일층의 발전과 엠. 떼. 에쓰의 개편에 관하여》는 최근 수년간에 쏘련 공산당이 우리 나라의 농업을 급격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취한 일련의 거대한 대책들 중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

법령 채택에 앞서 당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전 인민적인 토의가 진행되였다. 이 문제들은 남녀 로동자들, 남녀 꼴호즈원들, 인테리겐챠의 대표자들의 수백만 대중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1958년 3월 1일부터 25일까지의 기간에 전국적으로 꼴호즈, 엠. 떼. 에쓰와 쏩호즈, 공장과 기업소, 과학 연구 기관과 교육 기관들에서 약 57만 7,000회의 총회가 소집되였으며, 이 회의들에는 약 5,000만 명의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이 회의들에서 300만 명 이상이 각종 제의를 내놓았다. 쏘베트 사람들은 거대한 국가적 과업을 해결하는데 자기들의 풍부한 생활 경험을 도입하였다.

약 1년 전에 공업 및 건설 관리의 개편 문제에 대한 전 인민적 토의가 역시 광범히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공업 또는 농업을 발전시킬 문제가 전체 근로자들의 관심사로 되며 인민의 토의에 부쳐진 일이 어느 자본주의 국가에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러한 부르죠아 국가는 아직 없었으며 현재도 없다. 생산 수단과 정권이 근로자들에게 속하는 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만 인민은 자기 생활의 근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으며, 또 일상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로서의 사회주의란 인민 대중을 국가 관리에 인입함이 없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인민들의 무한한 집체적인 지혜와 결합된 공산당의 현명성은 가장 정당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제기하고 채택할 가능성을 준다.

공산당의 창건자인 웨. 이. 레닌은 교시하기를,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대다수의 인민이 국가 관리에 참가하는 데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인민의 의사와 그의 공산당과의 불가분리의 련계는 쏘련 최고 쏘베트의 법령들에서 체현되고 있다. 바로 이 점에 진정한 인민적,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본질이 있는 것이다.

쏘베트 나라에서 꼴호즈 제도를 가일층 강화하며 엠. 떼. 에쓰를 개편함에 관한 방책의 실현은 전 세계 여론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형제적 사회주의 제 국가의 출판물들은 정당하게도 이에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에 의하여 제기되였고 쏘련 최고 쏘베트 회의에 의하여 법령 형태를 취한 꼴호즈 건설 부문의 제 방책은 레닌적 집단화 정책이 승리한 이후 쏘련 농업의 사회주의적 발전에 있어서 가장 현저하고 가장 거대한 사건이다.

전체 근로자들은 최근 수년간에 쏘베트 나라가 쏘련 공산당 제 20차 대회의 결정을 실현하면서 경제 및 문화 건설에서, 또 근로자들의 물질적 복리를 향상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공업 관리의 개편으로 말미암아 기업소들에 대한 지도는 현저히 개선되였으며, 지방의 자원들은 더 잘 리용되고 있다. 공업은 제품의 생산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그리고 전체 인민 경제의 기초인 중공업은 더욱더 급속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사회주의적 농업도 급속한 앙양의 일로를 걷고 있다.

오늘날, 인민 경제의 각 부문이 강력히 발전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공산당과 쏘련 정부는 거대한 력사적 역할을 수행해 온 엠. 떼. 에쓰를 개편하여 쏘련의 사회주의적 농업의 생산력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새롭고 더욱더 광범한 가능성을 조성할 과업을 제기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첫 엠. 떼. 에쓰는 쏘베트 나라에서 30년 전에 발생하였다. 엠. 떼. 에쓰의 조직은 꼴호즈 제도를 창설하고 공고화함에 있어서 력사적으로 불가피한 것이였다. 엠. 떼. 에쓰는 농업에서 심각한 기술적 개혁을 실현함에 있어서, 로동 계급과 농민의 동맹을 강화함에 있어서, 농촌에서 문화 혁명을 전개함에 있어서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가 수중에 장악된 엠. 떼. 에쓰는 꼴호즈들을 현대적인 기계 기술로써 장비하는 강력한 도구였으며, 기계화 일'군의 대군을 양성하는 실천적인 학교였으며, 농민을 로동과 공동 재산에 대한 사회주의적 태도, 집단주의의 정신으로 재교양하는 강력한 요인이였다. 엠. 떼. 에쓰의 공헌은 또한 그것이 농업과 축산업의 기술을 향상시키고 꼴호즈들을 조직—경제적으로 강화하는 거대한 사업을 수행한 데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꼴호즈에 대한 엠. 떼. 에쓰의 생산—기술적 봉사가 영구히 보존되여야 한다는 것을 전혀 의미하지 않는다. 맑스—레닌주의는 사회주의 사회의 발전과 그 경제의 장성에 따라 경제 지도의 조직적 형태들도 불가피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웨. 이. 레닌은, 생활로부터 격리되거나 생활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낡고 쇠퇴한 형태들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다. 변화된 정형을 타산하여 새로운 생산 조직 형태들을 탐구해야 하며 부단히 전진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농업의 급격한 발전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전 인민적 투쟁이 전개되였던 최근 수년간에 농촌의 정형은 근본적으로 변하였다.

꼴호즈 제도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새 단계의 단초로 된 것은 1953년의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9월 전원 회의 결정들이다. 이 결정들에서는 농업 지도상의 결함들이 폭로되였으며, 사회주의적 농업 및 축산업을 급속히 발전시킬 극히 중요한 방책들이 지적되였다. 꼴호즈들은 유능하고 경험 있는 간부들인 전문가들과 대규모적인 사회주의적 생산의 조직자들에 의하여 강화되였다. 국가는 쏩호즈, 엠. 떼. 에쓰 및 꼴호즈들에 다량의 현대적 기자재들을 보내 주었으며 농업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공고화하기 위한 자금 투자를 현저히 증가하였다. 꼴호즈들이 자기 파종 면적에서 농작물의 선택과 배치, 가장 유리한 경리 부문의 발전 등의 문제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리를 부여한 계획 수립의 새로운 체계가 수립되였다. 이 질서는 사회적 생산 발전에 있어서 꼴호즈원들의 창발성이 장성하도록 자극을 주고 있다. 농산물의 수매 및 구입 가격이 인상되는 방향에서 재검토되였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꼴호즈들과 꼴호즈원들의 물질적 관심이 제고되였다.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9월 전원 회의가 있은지 불과 4년 6개월이 남짓하다. 그러나 이 기간에 거대한 새 성과들이 달성되였다.

동부 지방에서 광대한 면적의 처녀지 및 황무지를 개간함으로써 최근 4년 간에 알곡 총수확고를 그 이전의 년간에 비하여 27% 증대할 수 있었다. 1954년부터 1957년까지의 기간에 가축의 두수는 훨씬 증가되였으며 그 수익성

은 제고되였다. 그리고 이것은 국내의 꼴호즈와 쏩호즈로 하여금 우유는 2배 이상, 육류는 약 80% 증산할 수 있게 하였다.

꼴호즈들의 확장이 실시된 후 꼴호즈들은 경제적으로 더욱 강화되였고 기술적으로 더욱 장비되게 되였다. 꼴호즈들에서는 현금 및 현물 수입이 증가되였고 꼴호즈원들의 물질적 복리가 향상되였다. 꼴호즈들의 상품 생산고는 수배로 장성하였다. 꼴호즈들이 그 존재 초기, 즉 1932년에 겨우 1,300만 톤의 알곡을 국가에 판매하였다면, 1956년에는 3,900만 톤을 판매하였다. 면화에 있어서는 1932년에는 116만 2,000톤, 1957년에는 378만 톤, 사탕무우에 있어서는 1932년에는 419만 8,000톤, 1957년에는 3,726만 4,000톤, 육류에 있어서는 1932년에는 13만 6,000톤, 1957년에는 290만 9,000톤, 우유에 있어서는 1932년에는 74만 6,000톤, 1957년에는 1,307만 9,000톤, 양모에 있어서는 1932년에는 1만 9,000톤, 1957년에는 17만 톤을 각각 국가에 판매하였다.

농업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얼마나 거대한 자금을 투하하였는가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자료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즉 1954—1957년 간에 생산 건물 및 시설의 건설과 뜨락또르, 기계, 설비의 가격 지불에 국가는 754억 루블을 지출하였는데, 이것은 제 2차, 제 3차, 제 4차 5개년 계획 기간과 제 5차 5개년 계획의 3년 간의 전 기간에 이 목적에 지출된(대비 가격으로) 것보다 100억 루블이나 더 많은 것이다.

최근 4년 간에 농업은 공업으로부터 90만 8,000대의 뜨락또르(15마력으로 환산하여), 14만 3,000대의 건초 수확 꼼바인과 옥수수 수확 꼼바인, 46만 7,000대의 화물 자동차 및 기타 많은 기자재를 공급 받았다. 현재 농업은 약 170만 대의 뜨락또르, 45만 대 이상의 알곡 꼼바인, 기타 거대한 수효의 복잡한 기계들과 농기구들을 소유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에 꼴호즈들은 거대한 수효의 기자재들을 소유하게 되였다. 개중에는 뜨락또르까지 구입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농업에서 사용하는 66만 대의 화물 자동차 가운데서 약 33만 대는 꼴호즈들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 말해도 충분할 것이다. 많은 꼴호즈들은 자기들의 발전소와 또한 부업 기업소를 가지고 있다. 꼴호즈들에 있는 농기계, 자동차, 뜨락또르 및 기타 기자재들의 가격은 1958년 초 현재 240억 루블에 달하였다.

꼴호즈들의 공동 재산의 장성은 꼴호즈들이 해마다 고정 폰드를 증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꼴호즈들의 기본적인 공동 재산인 고정 폰드가 금액상으로 집단화의 초기에는 겨우 15억 루블, 1932년에는 47억 루블, 1952년에는 630억 루블이였다면, 1958년 초에 이르러서는 이것이 이미 1,000억 루블 이상에 달하고 있다.

꼴호즈들의 고정 폰드중의 현금 공제액이 1952년에는 전국적으로 74억 루블, 1956년에는 167억 루블이였었는데, 1958년에는 그것이 약 250억 루블에 달하고 있다. 엠. 떼. 에쓰가 꼴호즈들에 판매한 전체 기자재의 가격은 180—200억 루블에 달한다.

현재 꼴호즈들에는 약 15만 명의 고등 및 중등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 있다. 그런데 1953년에는 이러한 전문가들이 불과 1만 8,500명 밖에 못되였다.

이와 같이 수백만의 수입과 공동 경리의 전문가들과 조직자들의 수 많은 간부들을 가지고 있는 현대의 대규모적인 꼴호즈들은 그 발전 초기의 소규모적이고 경제적으로 미약한 꼴호즈들과 대비도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엠. 떼. 에쓰와, 또한 그것과 꼴호즈들과의 조직적 및 경제적 호상 관계 형태는 집단화 초기의 많은 것을 보존하고 있음으로써 이미 꼴호즈 생산의 높아 가는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였다. 꼴호즈에서의 생산력의 발전과 꼴호즈들에 대한 엠. 떼. 에쓰의 생산—기술적 봉사 형태간에는 불일치가 발생하였다.

꼴호즈와 엠. 떼. 에쓰간에 형성된 호상

관계가 이미 낡아 버렸고 근본적인 변혁을 요구한다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립증하고 있다.

오늘날의 꼴호즈에 있어서는 많은 것이 뜨락또르와 꼼바인, 뜨락또르 운전수와 꼼바인 운전수의 작업에 달려 있다. 그러나 꼴호즈는 이 기계들을 운전하는 기계화 일'군들을 관할하고 있지 못했으며, 따라서 많은 경우에 기자재들이 불합리하게 리용되였고, 꼴호즈들과 국가는 손실을 입었였다. 엠. 떼. 에쓰의 융자 체계에도 또한 이러저러한 결함들이 있다. 엠. 떼. 에쓰는 국가 예산의 지출에 의하여 경영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일부 불성실한 엠. 떼. 에쓰 지도 일'군들은 생산—재정 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연료, 부속품, 설비, 뜨락또르 및 기타 기계들을 과대하게 신청할 수 있었다. 때로는 엠. 떼. 에쓰는 담당 지역의 꼴호즈들에서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하지도 않은 기자재를 반균하였다. 현존 융자 체계는 독립 채산제의 원칙에서 엠. 떼. 에쓰의 사업을 조직하는 것을 곤난케 하고 있다. 그런데 독립 채산제는 사회주의적 기업 관리의 기본 방법이며, 이것은 공업 기업소 및 쏩호즈들에서 완전히 정당화되였다.

엠. 떼. 에쓰에서는 대단히 많은 비용이 든다. 사실상 두 개의 평행적인 관리 기구가 형성되였다. 즉 그 하나는 꼴호즈들에 있는 관리부, 위원장, 전문가, 브리가다장 등이며, 또 하나는 엠. 떼. 에쓰에도 있는 브리가다장, 농업 기사 및 기타 전문가들이다. 엠. 떼. 에쓰의 거대한 관리 기구를 경영하는 데 거대한 자금이 지출되고 있다.

엠. 떼. 에쓰와 꼴호즈의 호상 관계에 존재하는 이러한 결함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지방들에서는 꼴호즈들에 대한 생산—기술적 봉사의 새로운 형태들을 탐구하기 시작하였다. 많은 경우에 엠. 떼. 에쓰와 꼴호즈의 통일적인 뜨락또르—경작 종합 브리가다들을 조직하기 시작하였으며, 농사철에 뜨락또르 브리가다들을 꼴호즈들에 완전히 종속하도록 이관하기 시작하였으며, 꼴호즈와 엠. 떼. 에쓰를 단일한 지도하에 통합하기 시작하였으며, 계약을 체결하고 일시 리용하도록 기자재들을 꼴호즈들에 양도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이 꼴호즈 생산 지도의 이중성을 부분적으로 제거하게 하고 기자재들을 더 잘 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엠. 떼. 에쓰와 꼴호즈의 호상 관계에 존재하는 큰 결함들을 철저히 제거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경험은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경우에도 기본 생산 수단은 의연히 두 소유자에게 남아 있었으며, 국가는 계속 엠. 떼. 에쓰 경영에 거대한 지출을 하고 있었다.

꼴호즈 제도의 현 발전 단계에 적응하여 이 문제의 철저한 해결책을 찾아내야 했다. 바로 이러한 해결책은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2월 전원 회의에서 밝혀졌다. 즉 전원 회의는 꼴호즈에 대한 생산—기술적 봉사를 근본적으로 개변하며 엠. 떼. 에쓰를 기계 수리소로 개편하며 뜨락또르, 꼼바인 및 기타 기계들을 꼴호즈들에 판매하는 데로 넘어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시인한 것이다.

따라서 꼴호즈 제도를 가일층 발전시키며 엠. 떼. 에쓰를 개편할 문제는 현실 자체에 의하여 제기된 것이고,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의 극히 거대한 공헌은 이 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방도를 제때에 명확하게 규정한 데 있다.

공산당에 의하여 강구되였고, 지금은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 꼴호즈 건설 부문의 방책들은 진실로 혁명적인 것이다. 이 방책들은 농산물의 생산을 가일층 급격히 증대하기 위하여 사회주의적 경리 체계의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도록 보장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 방책들은 비단 거대한 실천적 의의만이 아니라 거대한 리론적 의의도 가지고 있다.

쏘련 공산당 중앙 위원회 2월 전원 회의 문헌과 쏘련 최고 쏘베트 회의에서 한 엔. 에쓰. 흐루쑈브 동지의 보고 및 결정서들은 우리 나라의 공산주의 건설 경험의 일반화에 기초하여 혁명적 리론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며

쏘련 공산당 제 20차 대회의 결정을 철저히 실현하는 모범으로 되였다. 근로 농민들을 사회주의 건설에 인입할 정확한 방도를 지시하였고 프로레타리아트 독재하의 사회주의적 경리 형태로서의 협동 조합의 본질을 천명하였고 농업 생산력을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는 레닌적 협동화 계획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고 보다 더 구체화한 것은 맑스—레닌주의 리론에 대한 거대한 기여로 된다.

레닌적 협동화 계획이 실현된 결과, 30년전에 국내에 존재하였던 2,500만의 소농민 경리 대신, 기계화된 대규모의 사회주의적 농업 생산이 창설되였다. 현재 쏘베트 련맹에는 약 7만 8,000개소의 꼴호즈들과 5,800개소의 쏩호즈가 존재한다. 농업에서의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산 방식의 창설과 공고화는 공산당의 총로선의 승리인 것이다.

농업을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고 농업을 현대 기술로써 장비함으로써 로동 생산 능률의 장성이 보장되였으며, 그 결과 쏘련에서 농산물의 상품화 률은 혁명전 시기에 비하여 수배로 장성하였다. 꼴호즈들의 사회적 생산의 장성에 기초하여 꼴호즈 농민의 복리는 훨씬 향상되였다. 혁명전 로씨야의 근로 농민들의 수입과 비교하여 볼 때, 꼴호즈원들의 실질 수입은 1 로력자당 대비 가격으로 계산한다면 4배로 증대되였으며, 국가의 비용으로 하는 무료 교육과 무료 치료, 보조금 및 기타 지불과 특전을 가산한다면 6배로 증대되였다는 것만 말해도 충분하다.

최근 수년간에 특히 거대한 성과들이 달성되였다.

꼴호즈들의 기계—기술적 토대의 강화는 아르쩰 경리 전 부문의 종합적 기계화의 더욱 더 성과적인 실현을 보장할 것이며, 꼴호즈원 대중의 창발성과 적극성, 그리고 자기들의 로동의 결과에 대한 물질적 관심을 제고할 것이며, 이것은 꼴호즈 경제의 가일층의 풍성을 가져 올 것이다.

쏘베트 사회의 사회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점차적 이행은 전 인민적 소유를 백방으로 강화하며 꼴호즈적—협동 조합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의 수준에까지 제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전 인민적 소유도 꼴호즈적—협동 조합적 소유도 가일층 발전시키는 방법으로써만 수행할 수 있다.

국가적 소유도 꼴호즈적—협동 조합적 소유도 다 사회주의적 소유 형태이며, 그것들은 동일한 사회주의적 생산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민의 리익과 근로자들의 공동적 목적, 즉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에 복무한다. 그것들 사이의 차이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전 인민적 소유가 꼴호즈적 소유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회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그것들 간의 한계는 일상적으로 소멸되여 가고 있다. 그리고 농업 생산력의 장성이 급속하면 급속할수록, 전 인민적 소유와 꼴호즈적—협동 조합적 소유간의 차이도 더 속히 소멸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꼴호즈의 고정 폰드를 증대하는 것이다. 이 고정 폰드는 꼴호즈적 소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루며, 꼴호즈적 소유를 전 인민적 소유에 접근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꼴호즈원들 자신도 잘 리해하고 있다. 즉 그들은, 많은 경우에 자기들의 회의에서, 고정 폰드를 전 인민적 소유로서 선포하며 꼴호즈가 1년 간에 얻은 현금 수입의 총액중에서, 농업 아르쩰 규약에 의하여 규정된 대로 12—20%가 아니라 25—30% 또는 그 이상을 고정 폰드로서 공제할 것을 결정하였었다.

꼴호즈원들이 자기들의 자금을 합해서 농산물 가공, 건재 생산에 대한 꼴호즈간의 협동 조직을 만들어내며, 꼴호즈간의 발전소, 정양소, 휴양소, 학교들을 건설하는 실례도 적지 않다. 새로운 조건하에서 꼴호즈들의 경제가 장성함에 따라 꼴호즈간의 련계에 대한 요구는 비단 구역들의 범위에서만이 아니라 주 및 공화국들의 범위에서도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공산주의를 향하여 전진함에 따라 경제 관리는 더욱더 민주주의적인 기초 우에서 조직되여야 한다고 레닌주의는 가르치고 있다. 이 경제 운영 원칙은 꼴호즈에도 쏩호즈에도 적용된다. 경제 관리에서 매 로동자의 적극성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로동자 집단, 직맹 및 기타 사회 단체들과 쏩호즈의 역할을 부단히 제고하는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꼴호즈들에서는 가장 중요한 모든 문제들을 꼴호즈원 총회와, 꼴호즈원들에 의하여 선거되고 그들 앞에 책임을 지는 위원장, 관리부가 결정한다.

앞으로도 당과 정부는 쏩호즈도 꼴호즈도 백방으로 강화 발전시킬 것이며, 극히 단시일내에 국내에서 농산물이 완전히 풍족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두 사회주의적 경리 형태의 가능성들을 더욱 완전히 리용할 것이다.

꼴호즈들에 대한 기자재의 판매는 인민 경제의 두 기본 부문인 공업과 농업의 련계를 더욱 긴밀하게 강화할 것이며, 따라서 로농 동맹과 우리의 사회 및 국가 제도의 위력의 기초인 전체 쏘베트 인민의 도덕—정치적 통일이 가일층 강화될 것이다.

엠. 떼. 에쓰는 기계 수리소로 점차 개편되고 있다. 기계 수리소에는 꼴호즈들의 복잡한 기자재의 수리, 새로운 기계, 부속품, 연료, 광물성 비료, 농작물의 해충 및 역병 구제약 및 기타 물자들의 판매, 그리고 례컨대 토지 개량 기계 및 기타, 개별적인 꼴호즈에서는 완전히 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하기 곤난하거나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항상 적당하지는 않은 그러한 기계들을 임대하는 사업이 위임되여 있다.

엠. 떼. 에쓰에는 거대한 수효의 간부들이 집중되여 있다. 전 쏘련적으로 금년 초까지 엠. 떼. 에쓰에 18만 6,000명의 지도적인 기사, 기술 일'군들과 약 150만 명의 기계화 일'군들이 있었다. 그들의 대부분은 현재 꼴호즈 사업에로 넘어 가고 있다. 따라서 꼴호즈 생산에 대한 기술적 지도는 더욱더 높은 수준으로 제고될 것이다. 꼴호즈들은 기계화 일'군들에게 훌륭한 생활 편의 조건을 지어주기 위하여 큰 배려를 돌리고 있으며, 기계화 일'군들을 위한 주택들과 합숙들을 건설하고 있다. 꼴호즈들은 기계화 일'군들의 임금이 비단 작업 수행량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수확에도 의존하도록 하며, 그들의 로력 보수가 엠. 떼. 에쓰나 쏩호즈에서 받던 것보다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한다. 꼴호즈들은 자체의 소유로 넘어 오는 기계들의 수명을 연장할 데 대하여 관심을 돌리고 있는바 그들은 차고, 창고 등을 건설하고 있다.

꼴호즈 생산에서의 내부 독립 채산제 도입에 관한 문제가 또한 나선다. 현재 꼴호즈에는 모든 생산 수단이 집중되여 있는바 경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한다면 어느 꼴호즈나 생산물의 증산과 그 원가 저하에서 거대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업을 성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 꼴호즈들은 례컨대 뜨락또르—경작 브리가다와 기타 생산 브리가다에 독립 채산제를 실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다.

기자재의 대수리 및 중수리는 기계 수리소나 수리 공장에서 할 것이다. 기계 수리소나 수리 공장에 대하여 꼴호즈들은 수리의 질, 대금 및 주문 리행 기한에 대한 많은 요구를 제기할 것이다. 기계 수리소들은 일정한 기한의 기계 리용의 확실성을 보장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자기 기업소 마크의 명예를 위하여 투쟁하지 않을 수 없다. 기계들의 소수리와 기술적 보수는 꼴호즈들 자체로서 할 것이다.

수리의 높은 질과 기계들의 정상적인 리용을 보장함에 있어서, 새로운 조건하에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것은 농업에 부속품들을 공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속품들에 대한 요구는 물론 높아질 것이다. 공업 기업소들은 부속품 생산을 훨씬 증대하여, 꼴호즈에도 기계 수리소에도 기계 및 설비의 가장 부족되는 부속품들의 예비를 조성하도록 보장할 것이다.

꼴호즈들은 생산 능률이 높고 가장 경제적인 현대적 기계들을 소유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요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업 기업소들은 국내의 각 지대의 특수성들을 고려하여 새로운 기자재들을 만들어내야 하며, 종합적인 기계들을 더 많이 생산해야 한다. 그

려기 위하여 공장들은 꼴호즈 및 쏩호즈들과의 일상적이고 직접적인 련계를 더욱더 강화할 것이며,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기계 구조의 유리성과 질을 평가할 것이다.

엠. 떼. 에쓰의 개편과 관련하여 꼴호즈 관리부와 그 위원장들의 사업량은 훨씬 많아질 것이다. 새로운 조건하에서 꼴호즈 위원장은 종전에는 엠. 떼. 에쓰 지배인이 수행하던 많은 직능을 부담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 기관들은 꼴호즈들의 경제를 더욱 심각히 연구할 것이며, 거대하고 복잡한 경리를 지도함에 있어서 꼴호즈들에 능숙한 방조를 줄 것이다.

지방 쏘베트 기관들은 오늘날 국가의 협조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 즉 경지 정리, 종자 개량, 가축 종 개량 사업, 농작물의 해충 및 병역의 구제 실시, 경험 교환 조직, 과학 성과의 도입, 종자 시험장 및 농예 화학 시험장 사업 등등에 더욱더 많이 종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 쏘베트 기관들은 또한 꼴호즈들이 재정 사업을 옳게 조직하며 부기 계산 일'군들과 기계화 간부들을 양성함에 있어서 방조를 줄 것이다.

이것은 지금 벌써 구역 쏘베트 기관들의 더욱 완성된 새 조직 구성 형태를 탐구하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구역 농업 관리국들에는 부서들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는 전문가들인 간부, 즉 농산 기사, 축산 기사, 수의, 측량 기사 및 기타로써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역 근로자 대의원 집행 위원회 직속으로, 가장 경험 많은 지도 일'군들과 농업 전문가들로써 생산—기술 협의회를 조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 협의회는 지방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옳게 해결하고 농업에 대한 전체 지도를 개선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 *

인민 경제 앞에 나선 새 과업들은 도시와 농촌 근로자들의 무한한 정력을 불러 일으켰다. 생산물의 가일층의 증산과 로동 생산능률의 제고를 위한 사회주의적 경쟁이 전 쏘베트 국가에 걸쳐 확대되고 있다. 전체 주, 변강 및 공화국들은 보다 높은 1958년의 사회주의적 의무를 채택하고 있다. 남녀 꼴호즈원들과 엠. 떼. 에쓰 및 쏩호즈의 로동자들은 각 농장에서 춘경 파종의 성과적인 수행과 농산물의 증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쏘베트 인민은 공산당과 쏘베트 정부가 채택한, 농업을 새로이 발전시킬 대책이 인민의 물질적 복리를 가일층 향상시키며 공산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성과들을 달성케 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당 사업 경험

용광로 복구에 대한 당 정책 집행에서의 거대한 성과

황해 제철소 초급 당 위원회
위원장 김 용 석

우리 나라 력사에서 일찌기 볼 수 없었던 최신식 설비를 갖춘 황해 제철소 제 1호 용광로와 해란로는 지난 달 말에 조업을 개시하였다.

오늘 황해 제철소는 제철, 제강, 압연 강재 생산의 일관 공정을 포괄하는 종합 공장으로 복구 개건되여 공업과 인민 경제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또 다시 커다란 역할을 놀기 시작하였다. 황해 제철소는 우리 나라에서, 제 1차 5개년 계획 기간에 생산되는 선철과 압연 강재의 60% 이상을 담당하게 된다.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용광로와 해란로의 복구 건설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힘에 겨운 일이였다.

우리들은 혹심히 파괴된 용광로와 해란로의 복구 건설에서 제기되는 복잡한 기술적 문제들, 8,000 여 매에 달하는 설계 도면들, 6,000 여 종의 부속품과 설비들을 모두 다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우리들은 또한 1년도 못 되는 짧은 기간내에 웅대한 용광로와 해란로를 복구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이 거대한 공사는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그 지도의 현명성에 힘 입은 로동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발성에 의하여 성과적으로 추진되였다. 용광로와 해란로의 복구 건설 과정에서 제기된 일체 곤난과 애로들은 로동 대중의 영웅적 투쟁에 의하여 해결되였다.

용광로와 해란로의 복구 건설은 설계 문건의 작성으로부터 설비의 제작과 시공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기술과 힘으로 진행되였다.

황해 제철소의 이러한 복구 건설은 나라의 생산력을 가일층 발전시켜 사회주의 경제적 기초를 튼튼히 함에 있어서 획기적 사변으로 되는 동시에 우리 력량의 거대한 시위로 된다.

* *

황해 제철소 특히 용광로와 해란로의 복구 건설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장성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데 대한 우리 당 경제 정책의 실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고리의 하나였다.

우리 당은 황해 제철소의 복구 건설에 각별한 주의를 돌렸을 뿐만 아니라 세심한 지도와 방조를 주었다. 우리 당 중앙 위원회는 정전 직후에 황해 제철소를 급속히 복구 건설할 데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제 3차 당 대회는 그의 구체적 방향을 다시 규정하였다.

황해 제철소의 복구 건설 사업은 그 내용과 규모에 있어서 새로운 대규모 제철소 건설 공사와 거의 동일한 것이였다. 미제의 야수적 폭격에 의하여 황해 제철소의 심장부인 용광로는 85%, 해란로는 82% 이상이 파괴되였다. 용광로와 해란로 복구 건설 공사는 우리 나라에서 해본 일이 없었고, 모든 설비들을 최신식 기

술로 장비하며 종전의 설비 배치의 불합리성과 수공업성을 퇴치하여 공정간의 가장 합리적 균형을 보장하여야 하므로 더욱더 그러하였다.

이 방대한 복구 건설 공사, 공장의 혹심한 파괴와 곤난 앞에서 초기 일부 지도 일'군들은 용광로 복구 건설에 대한 당의 방향에 대하여 의혹을 품고 동요하였으며 그의 실행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

금속 공업성 내 일부 지도 일'군들과 그에 추종한 일부 건설 일'군들은 당 정책과 우리 나라 로동 계급의 위력을 믿지 않고 황해 제철소 특히 용광로와 해탄로는 우리의 힘과 기술만으로써는 도저히 복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나섰다.

그들은 황해 제철소 특히 용광로와 해탄로를 복구할 데 대한 당의 방침을 제쳐 놓고 복구 대상의 선정과 그의 방법을 론의하면서 당 정책의 관철에서 당성을 고수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어려운 문제와 고비에 부닥칠 때마다 그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한 방도를 강구할 대신에 남의 손을 빌어 쉽게 해결하려고 하였는바 그들은 용광로의 생명선인 종전의 증기 송풍기를 복구하여 금년 5. 1절 전으로 조업을 보장하려고는 노력하지 않고 전기 송풍기를 비롯한 원료 계통의 평량차 등 주요하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설비들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들일 것을 고집하였다. 그들의 주장은 이와 같이 복잡하고 주요한 설비들을 청소한 우리의 기술과 힘으로써는 도저히 설계, 복구할 수 없다는 것이였다.

《수입병》에 걸린 일부 지도 일'군들과 기술 일'군들은 끝끝내 금년도 5. 1절까지 용광로와 해탄로의 조업을 보장하라는 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불신임의 태도를 취하였다. 심지어 그들은 송풍기를 비롯한 주요 설비들을 5. 1절 전에 수입할 수 없다는 구실 밑에 그의 복구 건설 기일을 자의로 변경하는 행동까지 감행하였다. 그들은 선진적인 로동자들이 그것들을 능히 자체로 복구 건설할 수 있다고 한 창발적 제기까지도 관료주의적으로 묵살하면서 그렇게 행동하였다.

이상과 같이 우리 황해 제철소에서는 용광로와 해탄로 복구에 대한 당의 정책이 일시 외곡 집행되였으며 그것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 속에 정확히 침투되지 못하였다. 결과에 복구 건설 사업은 당의 방침과는 달리 개별적 일'군들의 주관적 욕망과 견해에 의하여 무질서하게 그리고 완만하게 진행되였다.

우리 공장 당 위원회는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용광로와 해탄로를 복구 건설할 데 대한 당의 정책을 옹호 관철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직 정치 사업을 전개하였다. 특히 우리 공장 당 위원회는 당의 정책을 로동 대중 속에 정확히 해석 침투시키는 동시에 일부 일'군들의 당 정책에 대한 그릇된 태도의 본질을 폭로 비판하는 데 주되는 력량을 기울였다.

우리들은 로동 대중 속에, 철재가 없이는 기계도 만들지 못하며 집도, 항만도 또한 교량도, 농촌도 건설할 수 없다는 것을 해석 침투시키는 동시에 이 공사의 성과적 완수가 국내외적으로 어떠한 정치 경제적 의의를 가지는가를 해석 침투시켰다. 이와 함께 그들에게 우리 당 경제 정책의 정당성으로 하여 전후에 우리 나라에 중공업 기지들이 새로 창설되였는바 이는 용광로와 해탄로의 복구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능히 생산 공급할 수 있다는 것 등을 자세히 밝혀 주었다. 그리고 당 중앙 위원회는 이 공사를 최단 시일내에 완수하기 위하여 그에 요구되는 모든 것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써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로동자들에게 인식시켰다.

로동자들은 당의 요구와 의도를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로동 대중 속에서 우리 당 정책의 정당성과 그 실현 가능성이 더욱더 명백해졌고 일부 일'군들의 주장이 황당하였다는 것이 보다 철저히 폭로되였다.

로동자들과 기술자들 속에서는 주요한 설비는 물론 모든 것들을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각종 창의 고안과 방도들이 나왔다. 그들은, 일부 일'군들이 그렇게도 오래 동안 고집하던 파괴된 증기 송풍기도 능히 자체로 복구할 수 있다는 구체적 의견들을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걸리고 있던 어려운 매듭들은 풀리기 시작하였다. 당 정책은 거대한 생활력을 가지고 로동자, 기술자들의 생산 활동 속에 계속 침투되여 갔다.

당 정책과 그의 현명한 지도에 힘 입은 로동 대중의 창발성은 어렵고 힘든 공사에 부닥칠 때마다 더욱 제고되여 용광로와 해탄로의 기한전 조업을 보장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되였다.

용광로와 해탄로의 복구 건설을 위한 투쟁 과정은 당 정책의 정당성과 그의 요구를 로동 계급이 정확히 파악하였을 때에 그들 속에서는 무한한 혁명적 정력과 위대한 기적이 발생한다는 것을 또 다시 실증하였다.

✻　　✻

용광로와 해탄로의 복구 건설 공사에서는 그 어떠한 건설 공사에서보다 설계를 시공에 선행시키는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나선다. 설계는 설비 제작과 시공의 안내자로 되여야 하는바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로 준비된 설계 력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초기에 황해 제철소는 청소하고 적은 설계 력량으로써 설계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 설계 일'군들의 대부분도 지난 날 용광로 설계에 참가해 보지 못하였을 뿐더러 그것을 보지도 못하였거나 방금 학교를 졸업한 일'군들이였다.

더우기 우리들은 신규 건설과는 달리 기존 구축물과 시설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면서도 원상 그대로가 아니라 낡은 수공업적 시설들을 개건, 기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작성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기본 구축물과 설비의 리용 정도와 그의 형태에 따라 설계도는 달라지게 되므로 더 각이하고 복잡한 설계들이 필요하였다. 이것은 설계 일'군들에게 보다 높은 창발성과 높은 기술을 요구하였다.

황해 제철소의 초기 설계 력량으로써 공사보다 설계를 선행시키는 것은 아주 힘들었다.

설계 일'군들의 기술과 경험의 부족, 기본 설계 문건들의 불비 등은 오작 및 반복설계를 종종 낳게 하였다. 설계의 선후차가 준수되지 못하고 쉬운 것은 먼저 설계되고 어려운 것은 정당한 리유 없이 설계가 지연되여 시공에 지장을 주었다. 특히 많은 설계 일'군들은 용광로와 해탄로의 파괴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그의 실지 시공 과정을 자세히 료해하고 있지 못하므로 일정한 질의 설계도를 만들어내지 못하였었다.

우리 공장 당 위원회는 현존 설계 력량으로 시공보다 설계를 선행시키며 그의 질을 보장하는 기본 고리를 전 공장 전체 로동자들의 집체적 재능과 지혜를 효과적으로 발동시키는 데서 찾았다.

공장 당 위원회는 그를 위하여 우선 설계 일'군들과 기능공들과의 창조적 련계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공장의 기능공들은 보통 10—20년 이상 황해 제철소에서 일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일상적으로 다루던 용광로와 해탄로 설비와 부속품들에 대한 기술적 설계도는 그리지 못하나 그의 구조와 특성들은 누구보다도 잘 료해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로동의 합리화, 설비의 기계화 및 자동화에 대한 기술적 타산은 정확히 하지 못하나 자기의 오랜 경험에 비추어 대담한 제의들을 내놓을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아직 기술적으로나 경험이 어린 설계 일'군들은 용광로와 해탄로의 기술 공정을 자세히 료해하지 못하고 책상 우에서 배운 지식만을 가지고 설계 도면을 그리므로 그의 내용이 현실과 어긋나는 현상을 발생시켰다. 그들에게 있어서 결정적 결함으로 된 것은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식을 당면한 공사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그것이였다.

설계 일'군들과, 오랜 경험을 가진 기능자들과의 창조적 련계의 강화는 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결함들을 시정하고 좋은 점들을 살릴 수 있었다. 그들 간의 창조적 련계의 강화는 설계 일'군들의 현지에의 접근과 밀접히 결부되여 진행되였다.

설계 일'군들은 일정한 설계를 작성함에 앞서 현장에 접근하여 기능공들의 방조하에 설계 대상의 실태를 조사 료해하고 설계상 필요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그들은 자기가 설계를 완성시킨 후에 그것을 기능공들과의 협의회에서 토의하고 거기에서 제기된 의견에 의하여 설계서를 보충 수정하였다. 이에 앞서 작성된 설계서는 매개 부서에서 반드시 집체적으로 토의되였다.

기능공들과의 밀접한 창조적 련계를 통하여 설계 일'군들은 많은 것을 배웠고 아주 빠르게 자라났다. 설계 작성 사업은 초기에 비하여 진일보의 개선을 가져 왔다.

그러나 아직도 시공보다 설계가 완전히 선행되지 못하였다. 이 약점을 결정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일'군들을 설계 사업에 참가시키는 것이 필요하였다.

우리 공장 당 위원회는 설계 일'군들과 시공 지도 일'군들과의 유기적 련계를 강화하는 데 주의를 돌렸다.

설계 일'군들은 황해 제철소와 같이 기존 구축물과 시설들을 리용하는 조건하에서 시공 일'군들의 의견을 설계 작성에서 많이 참작하게 되였다. 그들은 시공 현장에 나가서 설계 도면의 시공 과정을 직접 보고 결함을 찾아내여 즉석에서 시정하여 주거나 시공 형편의 변동에 따라 기동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었다.

이것은 오작 및 반복 시공을 퇴치하고 공사의 속도를 높임에 있어서 극히 효과적이였다.

이상과 같이 설계서의 작성에 전체 공장내 일'군들의 집체적 력량과 지혜가 반영됨으로써 그것은 더욱더 완성되여 갔다. 그리하여 우리 공장에서는 지난 해 8월부터 시공에 설계가 앞서게 되였다.

이것은 우리 설계 사업에서 일대 혁신으로 된다. 설계 일'군들은 지난 해 8월 전까지만 하여도 보통 한 장의 도면을 그리는 데 4공수의 로력을 소비하였다면 그 후부터는 1.8공수의 로력으로 설계서를 그리게 되였다. 그들은 일부 일'군들이 그렇게도 고집하던 복잡한 평량차의 설계 도면도 훌륭히 만들어냈다. 설계 일'군들은 용광로와 해탄로의 복구 건설을 위한 설계 도면 8천 여 매를 50 여 명의 설계 력량으로 작성 보장하였다. 현실은 박 의완과 그에 추종하던 반당 종파 분자들이 300 여 명의 우수한 설계 력량으로써도 3년 이상의 시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 얼마나 황당무계한가를 론박할 여지 없이 폭로하고 있다.

* *

우리들은 당이 제시한 바와 같이 1년이란 짧은 기한내에 그렇게 거대한 용광로와 해탄로를 복구 건설하여 조업을 보장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모든 기술적 문제들을 우리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도 힘에 겨운 일이였지만 복구 건설의 시일 보장은 그에 못지 않게 어려운 일이였다. 종전의 경험에 의하면 1만 3천 톤 이상에 달하는 철골물 제작 조립 작업은 약 2년, 25만 메터의 철골 용접 작업은 40개월 이상이나 걸리며 4,000마력 증기 송풍기의 복구 공사는 그 기한조차도 추정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 공장에서 초기에 적지 않은 기술적 문제들이 해결되여 나가면서도 공사 완수 기한을 정확히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는 명확히 제기되지 못하였다.

우리 공장 당 위원회는 당의 군중 지도 방법에 튼튼히 의거하면서 이 어려운 문제들을 털어 놓고 군중과 더불어 의논하였고 그의 해결 방도를 찾았다. 한편 우리들은 로동 계급 속에 이 공사 완수 기한을 보장하느냐 못하느냐가 전체 인민 경제 발전에 주는 영향, 5. 1절까지의 조업 보장은 당 중앙 위원회가 황해 제철소 로동자들에게 맡긴 중대한 임무란 것을 인식시켰다.

로동자들이 당의 정책을 자기의 행동 강령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충성심과 결의로 충만되였을 때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었다.

로동자들 속에서는 5.1절까지 조업을 보장하기 위한 발기들이 많이 나왔다. 우리들은 이 창조적 발기에 의거하여 공사 완수 기한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방도를 찾아냈다.

용광로의 철골물 제작 조립 작업은 그의 용량이 많을 뿐더러 대부분이 60메터의 높은 곳에서 진행되므로 힘들고 오랜 기간이 요구된다. 원 도중, 옥 재곤 동무들은 지난 날의 실적에 의하면 약 2년이란 기간이 요구되던 것을 그의 절반인 1년 이내에 완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제기하였다. 그들은 철골 조립 작업을 60메터의 고소에서 전부 수행하기 때문에 더 많은 로력과 시일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아내고 많은 조립 작업을 지상에서 할 것을 제기하였다. 그들의 제기에 의하면 지상에서 15—20톤까지 조립하여 떼리끼로 달아올림으로써 높은 곳에서의 작업량을 적게 하여 공사 기한을 단축하자는 것이였다. 15—20톤 급의 떼리끼를 만드는 작업은 용이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적지 않은 보수주의적 일'군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자기들의 지혜로써 떼리끼의 제작에 성공하였다. 결과에 철골 조립 작업은 1년 이내에 끝났다.

연 25만 메터에 달하는 철골 용접 작업에서도 로동자들은 창발성을 발휘하였다. 선진적인 로동자들은 당의 지시를 집행하기 위해서 선진적인 전기 철골 용접 방법의 도입 적용을 주장하였다. 이것을 도입 적용함으로써만이 공사 기한을 보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일'군들은 병타 작업의 적용을 이러저러한 구실로 고집하였다. 이것을 적용한다면 40개월이란 시일이 요구되여 결국 공사 완수 기일을 보장할 수 없게 된다.

우리들은 전기 용접 방법의 도입에서 가장 애로였던 기능공들을 양성하면서 이 방법을 광범히 보급시켰다. 방대한 철골 용접 작업은 24개월이나 기한 단축되여 끝났다.

이 외에도 로동자들은 해탄로 기초 공사, 해탄로 축로 작업의 기한 단축, 증기 송풍기의 복구 작업을 비롯한 공정의 합리화, 전기 시설과 철도 인입선 공사에서도 창발적 의견을 제기하여 공사 완수 기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 *

황해 제철소의 복구 건설은 우리 나라 로동 계급의 영웅성과 무궁무진한 창발력을 내외에 다시 한번 시위하였으며, 로동 계급의 혁명적 정력에 의거한다면 극복 못할 난관과 애로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우리들은 황해 제철소의 복구 건설을 통하여 당에 의하여 교양 육성되였고 나라의 주인으로 된 로동 계급의 위력이 어떠한 것이며 그것은 어떠한 기적이라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다시 확신하게 되였다.

앞으로도 우리들은 로동 계급의 이 위력에 의거하여 황해 제철소에 부과된 임무들을 빛나게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우리들은 자기들의 기본 생산 과제를 수행하면서 1960년까지 제 2호 용광로와 제 2호 해탄로의 건설을 각각 완공하며 1959년 3.4 분기까지 후강판 압연 직장, 동년 2.4 분기까지 박강판 압연 직장을 각각 완공하여야 한다.

황해 제철소의 전체 종업원들은 이상의 과업들을 반드시 기한 전에 완수하여 우리 인민 경제의 자립적 발전의 촉진에 기여하고야 말 결의와 자신심으로 충만되여 있다.

조선 로동당 투쟁사 연구 자료

북조선에서의 중요 산업 국유화의 실시와 그 의의

리 량 훈

산업 국유화에 대한 우리 당 방침의 정당성

우리 당은 해방 직후 우리 나라를 부강한 민주주의 자주 독립 국가로 건설할 것을 기본적인 정치 로선으로 명시하였다. 4대 당면 과업에는 그의 실천적 대책의 하나로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전 조선의 통일적인 민주주의 림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민주주의적 모든 개혁을 실시하여 인민의 생활을 향상시키며 일제가 파괴하고 간 모든 공장, 기업소들을 복구하며 철도, 운수를 회복하여 민주주의 독립 국가 건설의 기본 토대를 닦을 것》(《김 일성 선집》, 2권, 50페지).

당은 자기의 기본 정치 로선에 근거하여 20개조 정강에서 《대기업소, 운수 기관, 은행, 광산…을 국유화할 것》이라고 명시하였다. 산업 국유화의 법령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일본 국가와 일본인의 법인 및 사인 등의 소유 또는 조선인의 반역자 소유로 되여 있는 일체의 기업소, 광산, 발전소, 철도,운수, 체신, 은행, 상업 및 문화 기관 등은 전부 무상으로 몰수하여 이를 조선 인민의 소유, 즉 국유화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와 같은 산업 국유화에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우리 나라 사회 경제 발전 및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의 요구에 철저히 립각한 것이였다.

해방전 우리 나라 산업 경제 형편은 한심한 처지에 있었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자들은 조선을, 급속히 장성하는 일본 공업을 위한 원료 공급지로, 상품 판매 시장으로, 나아가서 대륙 침략의 병참 기지로 리용하였으며 조선의 모든 재부와 천연 자원에 대한 강도적 략탈과 로동자들에 대한 살인적 착취를 감행하였다.

일제의 가혹한 략탈적 식민지 경제 정책은, 조선에 있어서 민족 공업의 정상적 발전을 극도로 억제하였다. 례하면 1944년 일본인 자신의 통계에 의하더라도 조선내의 총자본액 중 93%가 일본인의 자본이였고 조선인의 자본은 겨우 5%에 불과하였다. 그것조차도 일제 독점 자본에 예속된 매국적 친일 분자들의 것이 대부분이였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자들은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의 전시 경제 체계의 공고화를 위하여 약간의 공업 기업소들을 조선에 창설하였는바, 그것은 조선 인민의 생활 향상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였었다. 그리고 조선의 민족 산업은 일제의 계획적인 식민지 정책으로 인하여 정상적 발전을 가져 오지 못하고 원료 수출을 기본으로 하는 광업 및 초보적인 가공 공업과 몇 개의 운수 공업 뿐이였었다. 그리하여 조선의 산업은 혹심한 식민지적 성격과 불구성을 띠게 되였다. 례하면 1944년에 우리 나라 북반부에서만 하더라도 공업 총생산액

중에서 원료 및 반제품을 생산하는 광업과 야금 공업은 29%를 차지한 반면에 중공업의 핵심인 기계 제작 공업 및 기타 금속 가공업은 1.6%에 불과하였었다.

일제의 지배와 착취의 강화를 목적으로 한 조선의 산업은 기술적으로 심히 락후하여 대부분의 로동이 수공업적이였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자들이 조선 땅에 시설한 철도, 운수, 체신, 은행도 우리 나라의 재부의 강도적 략탈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렇게 조선의 산업 경제가 일제에게 완전히 예속 당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산업을 중심으로 한 전반적 민족 경제의 자립적 발전이 억제 당하였다. 결국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 통치는 다른 모든 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조선의 민족 경제에 파멸적인 후과를 조성하였다.

이렇게 락후한 산업마저 일제는 해방 직전에 고의적으로 혹심하게 파괴하였다. 즉 64개소의 탄광과 광산을 침수시켰으며 4개소의 기업소를 완전히 파괴하였으며 178개소의 탄광과 광산들은 부분적으로 침수 또는 파괴하였고 기타 47개의 기업소의 중요 분공장들을 파괴 소각하였다.

해방후 우리 나라가 이러한 경제적 파괴로부터 구원되며 다시는 일제와 같은 어떤 외래 침략 세력에 의한 경제적 예속과 롱락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는 민족적 독립의 강력한 물질적 토대인 민족 경제의 자립성을 확립하는 것이 선차적 과업의 하나였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오직 국가 경제 생활에 있어서 중요 명맥으로 되여 있는 왜놈들과 민족 반역자들의 소유이던 산업 기관들을 국유화하는 것이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였다. 만일 중요 산업 경제가 다시 착취적 목적을 추구하는 몇 개의 자본가의 수중에 들어 간다면 생산에서 자연 생장성이 지배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파괴된 경제를 급속히 부흥 발전시킬 수 없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 나라와 같이 락후한 경제 형편에서는 불가피적으로 산업이 발전된 제국주의 나라에 의하여 경제적으로 예속 당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라의 민주화도, 전체 근로자들의 복리 향상도, 민주주의 자주 독립도 불가능한 것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은 중요 산업을 국유화할 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산업의 국유화는 실로 중대한 개혁으로서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의 기초를 수립하는 것이다. 산업, 경제의 국유화가 없이는 자주 독립도 민주 건국도 있을 수 없다》(선집, 1권, 168페지).

우리 당이 제기한 중요 산업 국유화 방침은 민주주의 자주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조선 인민의 당면한 요구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적 요구에도 완전히 합치되는 것이였다.

일제의 지배하에 있었던 조선의 산업 경제는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에 기초하였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 법칙이 작용하고 있었다. 바로 이 법칙은 불가피적으로 생산의 무정부 상태를 조성하며 경제를 파멸에로 이끌며 따라서 로동자 대중을 실업의 공포 속에 몰아넣으며 로동자 대중의 소비를 기아적 수준에로 전락시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는 생산 수단과 생산자와의 결합을 방해하며 생산력 발전을 저해한다. 이러한 모순을 제거하는 유일하게 합리적인 방법은 오직 중요 생산 수단을 국유화—전 인민적 소유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엥겔스는 생산 수단의 사회화의 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에 의하여 가해진…질곡으로부터의 생산 수단의 해방은 생산력의 부단한 더욱더 빨라지는 발전, 따라서 또 생산 자체의 사실상 무제한한 성장의 유일한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이것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인위적인 생산상의 장애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공황시에 극도에 달하는, …저생산력 및 생산물의 로골적인 랑비와 파괴도 또한 제거한다》(《맑스,엥겔스 저작 선집》, 2권, 1분책, 258페지, 조선문 판). 계속하여 엥겔스는 《사회적 생산에 의하여 사회의 전 성원에게 극히 충분한, 나날이 개선되는 물질적 생존 조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체적 및 정신적 능력의 전면적이고도 자유로운 발전 및 운동도 보장해…》(동상) 준다고 지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혁명적 맑스—레닌주의 당인 우리 당은 유리한 조건과 환경에서(쏘베트 군대의 방조와 로동 계급을 령도적 핵심으로 한 근로 대중이 정권을 장악한 조건하에서) 자본주의적 중요 생산 수단을 국유화—전 인민적 소유로 할 방침을 제시하였다.

우리 당이 제시한 산업 국유화에 대한 방침은 해방후 미제가 남조선에 주둔함과 관련하여 조성된 정세하에서 북조선에 조국의 통일 독립의 강력한 혁명적 민주 기지를 창설할 것을 제시한 당의 정치 로선에도 완전히 부합되는 것이였다.

미제와 그의 주구 리 승만 도당들은 해방된 첫날부터 반민주주의적, 반민족적, 반인민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력사의 수레 바퀴를 뒤로 돌리려고 시도하여 나섰다. 원쑤들의 이러한 책동에 대처하여 우리 당은 완전한 민족적 자주 독립을 보장하기 위하여 즉 력사를 앞으로 전진시키기 위하여 북반부에 강력한 정치적 및 물질적 토대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되였다. 그런데 이것은 다만 봉건적 소작제를 청산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다. 또한 그를 위해서는 로동 계급을 비롯한 근로 대중의 정치적 열성을 제고하며 도시에서의 제국주의 주구들의 경제적 토대를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였다. 일찌기 레닌은 대중의 영웅적 행동의 《기적》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무자비성을 가지고 일련의 낡은 것을 일소하고 경제적으로 혁신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당이 제시한 바와 같은 혁명적이고 전투적인 과업을 실현하려면 우선 로동 계급을 비롯한 근로 대중 속에 그를 직접 실천적인 행동에로 전환시킬 수 있는 혁명적 기분이 성숙되여 있어야 한다. 만일 대중 속에서 당의 과업을 실천할 수 있는 혁명적 기분이 성숙됨이 없이는 그를 실천에 옮길 수 없다. 그런데 해방 직후 조선 근로 대중은 어떠하였는가? 8. 15 해방과 함께, 낡은 방법으로 우리 조국을 재건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혁신하며 다시는 식민지 노예 민족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조선 인민의 정치적 열성과 혁명적 기세는 마치 터진 화산처럼 고도로 앙양되였다. 례하면 로동 계급을 중심으로 한 근로 대중은 도처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일제 경찰과 행정 기구를 수탈하고 민주주의적인 질서를 창설하였으며 금융, 교통, 산업 기관 및 모든 기업 조직을 접수하고 왜놈들의 파괴를 방지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뿐만 아니라 로동 조합과 관리 위원회를 만들어 생산을 정리하였다.

해방후 쏘련 군대가 진주한 북반부에서는 우리 당의 령도 밑에 로동 계급을 비롯한 근로 대중과 전체 애국적 민주 력량이 국가의 지배적 세력으로, 인민 주권의 주인으로 되였다.

또한 조선의 해방자인 쏘련은 해방 첫날부터 진정한 정치적, 물질적, 기술적 원조자로서 우리의 산업 복구 발전에 존재한 온갖 장애를 쉽사리 극복할 수 있도록 원조를 주었다. 뿐만 아니라 쏘련 군대는 북조선에 진주하여 원쑤들의 파괴로부터 산업을 보호하고 그것을 인민 정권에 넘겨 주었다.

북반부에서의 중요 산업의 절대 다수(전 산업의 90% 이상)는 패망한 일제의 독점적 소유로 되여 있었다.

이러한 제 조건들은 우리 당이 중요 산업의 국유화를 성과적으로 단행할 수 있는 유리한 가능성이였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여 둘 것은 우리 당이 산업 국유화를 일제 및 민족 반역자들의 소유였던 중요 산업에만 국한하고 개인 중 소 상공업자들의 소유를 몰수하지 않은 것은 우리 혁명의 성격과 요구에 부합되는 것이였다. 그것은, 그들을 구축하며 진압하지 말고 오래 동안 친하게 살면서 조직적 사업으로써 그들을 개조하며 재교양하여야 한다는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원칙의 창조적 적용인 것이다. 물론 개인 기업의 허여는 불가피적으로 자본주의 발전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정한 한계내에서 또는 국가 주권과 중요한 산업의 명맥을 로동 계급이 장악하고 있는 조건하에서 그것은 조금도 무서울 것이 없는 것이였다. 국유화된 중요 산업이 인민 경제 부문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한 조건하에서 또는 인민 정권의 통제와 규제하에서의 중 소 개인 기업 발전의 허여(물론 다만 어느 정도만)는 인민 경제의 복구 발전과 인민들의 물질 문화 생활 향상에 유익하고 필요한 것이였다.

중요 산업 국유화의 실시와 그 의의

우리 당의 중요 산업의 국유화 방침에 의하여 북조선 림시 인민 위원회는 1946년 8월 10일 일본 국가와 일본 법인 및 사인의 소유, 또는 조선 인민의 반역자들의 소유로 되여 있던 일체의 기업소, 광산, 발전소, 철도, 운수, 체신, 은행, 상업 및 문화 기관 등을 전부 무상으로 몰수하여 국유화할 데 대한 법령을 발표하였다.

당은 이 법령을 발표하면서 이 법령의 실시는 반드시 치렬한 계급 투쟁을 동반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김 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반동 분자들과 친일 분자들은 이 력사적 법령의 실시를 반드시 방해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비렬한 민족 반역자들은 우리의 공장과 기업소들을 파괴하며 방화할 수도…있는 것입니다》(선집, 1권, 144—145페지).

당은 전체 근로자들에게 전력을 다하여 새 법령 실시를 협조하며 새로 얻은 인민의 재산——공장과 제조소들을 적들의 손상과 파괴로부터 방위하며 테로 분자들과 파괴 분자들의 침범을 단호히 분쇄할 것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당은 우리의 모든 일'군들이 공업을 더 우수하게 관리하는 것을 배우며 파괴된 공장들을 급속히 복구 조업하게 하며 공장 기업소들에서 로동 규률을 확립하고 로동 생산 능률을 최대한으로 제고할 것과 우리의 로동자, 기술자 특히 청년 학생들이 자기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학습하며 과학 기술을 련마하며 우리의 공업, 우리의 경제의 우수한 지도자가 될 것을 호소하였다.

중요 산업의 국유화에 관한 법령은 로동 계급 뿐만 아니라 전체 인민의 열광적 지지 속에서 실시되였다.

이 법령에 근거하여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소유로 되여 있던 북조선의 일체 기업소, 광산, 발전소, 철도, 운수, 체신, 은행, 상업 및 문화 기관 등은 그의 유일한 법적 주인인 조선 인민의 소유로 넘어 왔으며 동시에 일본인들과 함께 도주한 자, 또는 남조선으로 도망친 조선인 민족 반역자들에게 속하였던 공업 기업소 등도 또한 무상으로 몰수하여 국유화하였다.

북조선에서 중요 산업 국유화를 실시한 결과 일제와 민족 반역자의 소유였던 전 산업의 90% 이상에 해당한 1,034개의 공장, 제조소, 광산, 발전소들과 철도, 체신, 은행 및 문화 기관 등은 완전히 인민의 소유로 되였다.

우리 당의 지도 밑에 북조선에서 실시한 중요 산업 국유화는 구라파의 일련의 인민 민주주의 나라들에서처럼 여러 단계로, 점차적으로 또는 일부 유상 몰수한 것이 아니라 단번에 무상으로 철저히 진행한 것이 특징적이다. 례하면 웽그리야 같은 나라에서는 1945—1948년까지의 기간에 6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체코슬로바키야, 불가리야에서는 부분적으로 유상 몰수하였다.

북조선에서의 중요 산업의 국유화는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 과업 수행의 일환으로써 실시되였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당의 지도하에서 진행된 것만큼 또 우리 나라에 조성된 구체적 조건으로부터 사회주의적 성격을 동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산업 국유화의 실시 결과로 우리 나라 산업의 지배적 부분은 사회주의적 소유 형태로 되였으며 거기에서는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 관계가 영원히 근절되였다.

북반부에서의 중요 산업 국유화는 우리 나

라 혁명 발전에 있어서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갖는다.

일제와 민족 반역자들의 소유였던 공장, 기업소들을 국유화함으로써 산업 경제의 식민지적 체계가 철저히 분쇄되고 이와 반면에 국가적 소유—전 인민적 소유의 경제 부문이 인민 경제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였으며 따라서 외래 제국주의 침략자들이 경제적으로 침범할 수 있는 토대를 일소하였다.

인민 주권의 지도하에 토지 개혁의 실시와 함께 산업 국유화를 혁명적 방법으로 철저히 실시함으로써 북반부에서의 지주, 예속 자본가, 친일 분자들의 경제적 토대를 철저히 숙청하였으며 나라의 민주주의적 발전의 기본 토대를 닦아 놓았다.

산업 국유화는 북반부에 인민 민주 제도를 확립하며 혁명적 민주 기지를 경제적으로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공고히 함에 있어서 거대한 력사적 의의를 가지는 개혁이였다.

산업 국유화의 결과로 우리 나라 로동 계급은 장구한 일제의 식민지적 착취, 예속 자본가의 착취로부터 영원히 해방되여 참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였으며 공장의 주인으로, 생산물의 주인으로 로동에 대한 새로운 자각적 태도를 가지게 되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생산 의욕이 제고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 조국 건설의 주도적 계급으로서 정치적 열성이 비상히 제고되였다.

당의 정확한 경제 정책과 함께 로동 계급의 정치적 및 로력적 열성은, 파괴된 인민 경제를 부흥 발전시킴에 있어서 강력한 추동력의 하나로 되였다.

인민 경제의 지배적 부문인 산업의 90%가 국유화됨으로써 종래에는 자본가들의 착취를 위한 수단이였던 공업이 인민의 복리 향상에 복무하게 되였으며 인민 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킬 수 있는 물질적 담보로 되였다. 이것은 로농 동맹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 물질적 조건을 조성하였다.

레닌은 일찌기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소농과 프로레타리아트와의 동맹은 운수와 대규모 공업이 완전히 부흥되여 프로레타리아트가 식량 대신에 농민의 생활과 그들의 경영상의 개선에 필요한 모든 생산물을 그들에게 줄 수 있게 되는 때라야 비로소 완전히 정당하고 공고한 것으로 될 수 있다》(《레닌 선집》, 2권, 3분책, 127페지).

우리 나라에서 실시된 중요 산업의 국유화는 동방에서 처음으로 자본주의적 착취에서 로동 계급을 해방시킨 혁명적 변혁으로써 거대한 국제적 의의를 가진다.

중요 산업 국유화의 의의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중요 산업 국유화의 결과에 나라의 모든 부원과 인력을 계획적으로, 합리적으로 동원 리용할 수 있게 되였으며 그리함으로써 파괴된 인민 경제를 급속히 복구하며 산업의 식민지적 편파성과 기형성을 퇴치하며 기술적 락후성과 기술 간부의 부족을 급속히 타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성되였다. 또한 인민 경제를 근로 대중의 리익에 적합하게, 예견된 계획에 의하여 의식적으로 또는 조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조성되였으며 사회주의적 기본 경제 법칙이 작용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국유화된 산업은 우리 혁명의 사회주의에로의 이행을 촉진시키는 물질적 전제 조건을 축성함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되였다.

곤술따찌야

유물 변증법의 기본 범주들 (2)

김 후 선

원 인 과 결 과

원인과 결과는 자연과 사회에서의 제 현상의 호상 련관의 일정한 형태를 반영하는 범주이다.

원인이란 어떤 현상의 발생을 직접으로 야기시키는 근원을 의미하며, **결과란** 일정한 원인의 작용에 의하여 산생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례컨대 물체는 가열에 의하여 팽창되는바 여기에서 가열은 물체 팽창의 원인이며 물체 팽창은 가열의 결과이다.

제국주의 및 식민지 나라들에 있어서의 수백 수천만 인민들의 기아와 빈궁, 실업과 파산은 독점 자본가들의 착취와 략탈의 결과이다. 여기에서 제국주의 독점 자본가들의 착취와 략탈은 이 빈궁과 기아, 실업과 파산의 원인으로 된다.

만일 자연이나 사회에서 현상을 야기시키는 원인과 이 원인에 의하여 산생되는 결과와의 관계 즉 인과 관계를 부인한다면 과학을 거부하는 신비론에 빠지고 말 것이다. 왜냐 하면 자연과 사회의 운동, 변화, 발전은 자체로서 필연적인 인과적 련계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관념론자들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인과 관계의 객관성을 부인하여 나선다. 영국의 주관적 관념론자인 흄은 인과 관계란 인간의 감각과 지각의 습관적 련결에 불과하다고 함으로써 그의 객관성을 부인하였다. 독일의 관념론자 칸트는 인과 관계를 인간 오성(悟性)에 의하여 자연에 부여되는 현상이며 오성에 내재하는 선천적인 범주라고 하였다. 이 모든 견해들은 객관적 세계의 실재성과 그의 운동, 변화를 부인하는 관념론자들의 상투적인 비과학적 주장들이다.

맑스—레닌주의 철학은 인과 관계의 객관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또 인과 관계가 사물과 현상들 간의 내'적, 필연적인 련계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런데 관념론자들은 사물과 현상들 간의 외'적인 비본질적 련관에서 인과 관계를 찾으려고 함으로써 내'적 필연적 련계를 은폐하려 한다.

례컨대 미국의 반동 철학자 케인스는, 경제 공황은 수입이 적으면서 요구만 많이 하는 인간의 본능적 속성의 산물이라고 하였으며, 현대 어의론자(語義論者)들은 계급 투쟁은, 《계급 투쟁》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고통과 불행의 원인을 《계급》, 《계급 투쟁》, 《혁명》, 《부르조아지》, 《프로레타리아트》 등등의 말 자체에서 찾아야 한다는 듯이 떠벌리고 있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황은 부르조아 《철학가》들의 주장과는 달리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모순인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점유의 사'적 성격간의 모순에 의하여 발생되며 계급 투쟁도 역시 이 모순에 의하여 야기되는 것이다.

또 인과 관계는 한 현상이 다른 현상을 발생시키는 작용을 통해서 성립되는 내'적, 필연

적 련계이니만치 어떠한 두 개 현상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단순한 시간적인 계기로 귀착시킬 수도 없다. 례컨대 일식이 있은 후에 자연 재해나 전쟁이 일어났다 하여 이 두 개 현상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인과 관계를 구명함에 있어서 우리는 또한 원인과 조건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왜 그러냐 하면 원인과 조건을 명확히 구별하지 못한다면 사물과 현상들의 변화 발전을 옳게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혁명적 실천 활동을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건이란 사물 및 현상들의 변화 발전의 가능성을 준비하며 규정하는 환경의 총화를 말하며 원인은 조건과는 달리 소여 현상을 야기시키는 작용 자체를 말한다. 례컨대 우리 나라에서의 3. 1 운동은 조선을 강점한 일제의 폭압과 그를 반대하는 조선 인민간의 모순의 격화를 근본 원인으로 하여, 로씨야에서의 위대한 사회주의 10월 혁명의 영향하에서 일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혁명이 우리 나라에 준 영향은 3. 1 운동 발발의 조건이기는 하나 그 원인은 아니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원인을 통하여 결과를 야기시키는 데 일정한 영향을 준 것인만큼 외'적 조건으로서 넓은 의미에서는 원인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특히 외'적 조건이 사물의 변화와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모든 조건이 원인으로 될 수는 없다. 례컨대 가스체를 압착과 랭각에 의하여 액체화하는 경우에 있어서 림계(臨界) 온도는 액체화를 야기시키는 조건인바, 기체의 액체화는 림계 온도하에서만 가능하고 온도가 림계 온도보다 높은 조건하에서는 아무리 압착하여도 액체로 되지 않는다.

우에서 든 몇 가지 례들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원인과 조건은 확연히 구별되는 동시에 또한 호상 련관되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 관계를 구체적 조건을 떠나서 고찰할 수는 없다. 그런데 또한 인과 관계는 객관적 현실 가운데서 하나의 고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련쇄를 이루고 있다. 이 련쇄에 있어서 원인과 결과는 호상 작용하며 호상 전화하는바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즉 그 하나는 일정한 결과가 자기를 발생시킨 바로 그 원인에 대하여 반작용을 하며 이러한 반작용에 의하여 사물의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소여의 경제적 토대는 그것에 상응하는 사회적 상부 구조를 낳는다. 그러나 이 후자는 단순한 수동적인 결과로서만 있지 않는다. 그것은 적극적인 역할을 놀아 토대에 대하여 반작용하여 토대를 공고 발전시킨다. 특히 사회주의적 상부 구조는 자기를 낳은 토대의 공고화와 발전에 혁명적 역할을 다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인과 관계의 무한한 련쇄속에서 원인과 결과가 호상 전화하는 경우이다. 례컨대 열은 충돌, 마찰 등의 결과인데 이 결과는 또한 물체를 팽창시키는 원인으로 전화된다. 그러므로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는 더 나아가, 원인과 결과는 일정한 개별적 경우에 적용되는 때에만 그러한 것으로서 의의를 가지는 관념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 이리하여 이러한 개별적 경우를 세계 전체와의 일반적 련관에서 고찰하자마자, 이들 관념은 곧 합쳐져서 원인과 결과가 부단히 그 위치를 교체하는 보편적 호상 작용의 관념들 속에 얽혀 든다. 여기서 또는 지금은 원인이던 것이 저기서 또는 저때에는 결과로 되며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반대로 된다》(《반듀링론》 27페지, 조선 로동당 출판사 판).

원인과 결과의 호상 작용, 호상 전화는 유기(有機) 자연에서와 사회 현상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무기(無機)계에서도 발견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형이상학자들은 이러한 인과 관계에서의 호상 작용을 부인하고 원인은 영원히 원인으로만, 결과는 영원히 결과로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형이상학자들은 사물과 현상의 운동, 변화, 발전을 부인하면서 그 자체내에 영원한 자기 원인으로서의 《궁극 원인》과 같은 것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궁극 원인》이란 환상으로 꾸미여진 《신》에 불과한 것이다.

유물 변증법은 이와 같이 원인과 결과를 형이상학적으로 분리시키는 비과학적, 신학적인 견해를 배격할 뿐만 아니라 또 형이상학적이며 관념론적인 《목적론》도 배격한다. 《목적론》은 모든 사물과 현상을 어떤 《최고 목적》에 종속된 것으로 이 《최고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주장한다. 관념론자 라이프니츠와 크리스챤 볼프의 《목적론》은 그 전형적인 실례로 된다. 《목적론》에 의하면 지구는 사람들이 그 우에 살기 위하여, 태양은 사람들에게 빛과 열을 주기 위하여, 사람들은 《신》을 찬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라고 한다.

엥겔스는, 이와 같은 《목적론》은 마치 《고양이는 쥐를 잡아 먹기 위하여, 쥐는 고양이에게 잡혀 먹히우기 위하여 창조되였으며 전체 자연은 <조물주>의 지혜를 증명하기 위하여 창조되였다》(《자연 변증법》 9페지, 조선 로동당 출판사 판)고 하는 것과 같이 엉터리없는 것이라고 조소하였다.

유물 변증법은 《목적론》, 《신비론》 뿐만 아니라 인과 관계를 부인하는 《비결정론》도 반대한다.

비결정론자들, 현대 물리학적 관념론자들은 원자 현상에는 인과성이 없으며 전자(電子)는 《자유 의지》를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미시(微視) 세계에 관한 《비결정론》을 내놓았다. 그러나 전자 운동도 립자적인 동시에 파동적인 량 측면을 포함한다. 극히 복잡한 운동이기는 하나 거시(巨視) 세계에서의 운동과 마찬가지로 필연적인 인과적 련관 속에서 진행된다. 그러므로 선진 학자들은 미시 세계에서의 전자의 운동에 관하여서도 비결정론을 반대하고 결정론을 주장한다.

인과 관계의 범주는 우리의 실천적 활동을 위하여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들은 자연과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의 필연적인 내'적 련관으로서의 인과 관계를 정확히 인식함으로써 자연과 사회를 우리들에게 유리하게 변혁할 수 있다. 만일 우리들이 자본주의하에서의 경제 공황, 기아, 빈궁 등의 원인들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것들을 제거할 방법들을 강구할 수 없을 것이다. 자연에 대해서도 사정은 동일하다. 그러므로 우리 당은 자연과 사회에서의 제 현상의 인과적 의존성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면서 조성된 국내 국제 정세의 변화 발전을 타산하고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민주 기지 로선을 작성하였으며 공화국 북반부를 사회주의 락원으로 전변시킬 제 1차 5개년 계획의 전투적 과업을 제시함과 동시에 그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전체 당원들과 인민 대중을 조직 동원하고 있다.

4, 필연성과 우연성

필연성과 우연성은 자연과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물, 현상 및 그 과정들의 성격을 리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철학적 범주이다.

필연성이란, 사물, 현상 및 그 과정들의 본질 자체에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그 내'적 련관으로부터 불가피적으로 흘러 나오는, 따라서 달리는 될 수 없고 반드시 그렇게만 되는 련관의 성격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우연성은** 사물, 현상 및 그 과정의 본질 자체에 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그 내'적 련관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적 련관으로부터 흘러 나오며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러한 련관의 성격을 말한다.

례를 들면 곡식이 자라서 결실한다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다. 이것은 곡식 자체의 본질로부터 불가피적으로, 합법칙적으로 흘러 나오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곡식이 성장하는 과정에 우박 또는 병충의 피해로 말미암아 결실하지 못할 수도 있는바 이것은 우연적인 현상이다. 왜냐 하면 우박의 피해 혹은 병충해에 의한 불결실은 그 곡식 자체의 본질로부터, 성장 과정의 내'적

련관으로부터 불가피적으로 흘러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 농업 협동 조합들에서의 생산의 급속한 앙양은 사회주의적 경리 형태로서의 협동 경리의 본질, 생산의 내'적 련관으로부터 불가피적으로 흘러 나오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어떤 협동 조합에서 반동들의 해독적 행위나 조합 관리 간부들의 조직 지도 사업의 부족으로 인하여 생산의 상대적인 락후성을 보일 수도 있다. 이것은 협동 경리의 본질로부터 불가피하게 흘러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락후성은 반동 분자들을 제지하며 관리 간부들의 조직, 지도 기능을 제고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우연적 현상이다.

쏘련 공산당 제 20차 대회후 사회주의의 원쑤들은 사회주의와 인민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관료주의적 사업 작풍과 경향이 잔존하는 것이 마치도 필연적인 듯이 《론증》해 보려고 하면서 그것이 사회주의와 인민 민주주의 제도의 본질로부터 흘러 나오는 듯이 떠들었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관료주의는 사회주의 제도의 본질과는 하등의 인연도 없는 것이며 따라서 그 자체의 본질로부터는 결코 흘러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것이 사회주의 제도하에 잔존하고 있는 것은 다만 낡은 사회의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지 못한 데서이다. 때문에 관료주의를, 사회주의 제도 자체의 본질로부터 흘러 나오는 필연적 현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와 반대로 봉건 제도나 자본주의 제도하에서 관료주의는 그 제도의 본질로부터, 그 내'적 련관으로부터 불가피적으로 흘러 나오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이상에서 명백한 바와 같이 필연성은 물론, 우연성도 객관적으로 실재한다. 그러나 어떤 형이상학자들은 필연성의 객관적 실재성은 인정하나 우연성의 객관적 실재성은 부인한다. 그들 중 어떤 자들은 우연성을 원인이 없는 현상이라고까지 말한다.

이와 같이 일체 우연성을 부인하고 모든 것을 필연적이라고 하는 것은 엥겔스가 자기의 로작 《자연 변증법》 가운데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 개의 완두 교투리 속에 몇 개의 완두알이 들어 있는가 하는 것이라든지, 어제'밤에 벼룩이가 어느 시간에 어떤 부위를 물었는가 하는 것까지도 필연성으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연성은 결코 원인이 없는 현상이 아니다. 다만 그것은 그 원인과 근거가 소여 현상 자체의 본질과 그 내'적 련관에 있지 않을 따름이다. 필연성이 소여 현상 자체내에 자기의 원인과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우연성은 소여 현상 밖에 자기의 원인과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연성도 그 원인과 근거가 있는만큼 그 현상 자체로서는 필연적인 것이다.

그러면 **필연성과 우연성의 련관**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형이상학자들은 필연성과 우연성을 분리시켜 고립적으로 본다. 그러나 유물 변증법은 객관적 현실 그대로 량자의 통일성과 련관성을 주장한다.

례컨대 사회 력사는 필연적, 합법칙적인 발전 과정이다. 왜 그런가 하면 사회 력사는 생산력 발전에 따르는 생산 관계의 불가피적, 필연적 교체에 의하여 발전하는 행정인바 이 행정은 사회적 생산의 본질과 그 자체의 내'적 련관으로부터 불가피적으로 흘러 나오는 합법칙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인류 력사는 우연성의 작용도 받고 있는바, 이 우연성은 사회의 본질로부터, 그 내'적 련관으로부터 불가피적으로 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적 근원과 련관, 례하면 지리적 환경, 인구의 증대, 사람들의 능력과 성격 등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우연성이 작용하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력사 발전 행정은 각이한 형모와 각이한 발전 속도를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난다.

바로 인류 사회의 력사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사물 및 현상들의 운동, 변화, 발전 과정은 당해 사물과 현상의 본질과 그 내'적 련관으로부터 합법칙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시에 그것은 또한 비본질적, 외'적 련관에 의한 우연성의 작용도 받는 것이다. 때문에 맑스는 다음과 같이 썼다: 《…<우연성>이 아무런 역할도 놀지 않았다면 력사는 아주 신비적인 성격을 띠였을 것입니다. 이 우연성은 물론 그 자체가 일 구성 부분으로서 발전의 일반적 행정에 들어가 다른 우연성과 균등하게 됩니다. 그러나 촉진 또는 지연은 큰 정도로 이 <우연성>에 달려 있으며 그 가운데서 처음에 운동의 선두에 서는 사람들의 성격과 같은 그러한 <우연>도 역시 역할을 놉니다》(《맑스, 엥겔스 저작 선집》, 2권, 2분책, 255페지, 조선 로동당 출판사 판).

이와 마찬가지로 자연과 사회의 모든 사물과 현상들의 운동, 변화도 필연성과 우연성의 통일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있어서 우연성은 각양각색으로 나타나지만 결국 필연성이 우연성을 뚫고 자기를 관철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성은 필연성의 발현 형태이며 보충 형태이다.

례컨대 자본주의 시장에서 매개 상품의 가격은 부단히 동요한다. 이러한 동요는 상품의 본질(가치)과 그 내'적 련관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수요, 공급 관계 등등의 외'적 련관에 의하여 규정되는 우연적 현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연성 속에, 즉 가격의 동요 속에 객관적인 가치 법칙, 즉 상품의 가치는 상품 생산에 지출된 사회적으로 필요한 로동의 량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법칙이 필연성으로서 자기를 관철한다. 이와 같이 사물과 현상의 일반적 추향은 모든 우연적인 현상들을 뚫고 필연성으로서 자기를 관철한다.

필연성과 우연성은 통일되여 있는 동시에 또한 호상 전화한다. 그것은 모든 사물과 현상들이 그 운동 과정에서 그를 둘러싼 제반 환경 조건의 변화에 의존되면서 변화 발전하는 까닭이다.

례하면 사회 생활에 있어서 원시 사회에서는 자연 경제가 필연성으로서 지배하였다. 여기에 있어서의 교환은 우연성으로서 필연성을 보충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생산력이 발전하고 분업이 생기는 데 따라서 교환은 우연성으로부터 필연성으로 전화하였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필연성과 자유에 관하여 고찰하여 보자.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필연성과 자유는 서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변증법적으로 통일되여 있다.

엥겔스가 쓴 바와 같이 《…자유란 필연의 인식이다. <필연이 맹목적인 것은 다만 그것이 리해(인식——필자)되여 있지 않는 한에서이다>. 자유는 자연 법칙으로부터의 상상상의 독립 가운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법칙의 인식 가운데에 또 이 지식에 기초된, 자연 법칙을 계획적으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작용시킬 가능성 가운데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유란 것은 자연 필연성의 인식에 기초한, 우리들 자신 및 외'적 자연에 대한 지배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력사적 발전의 필연적인 산물인 것이다. 동물계로부터 분리된 최초의 인간은 본질적인 모든 것에 있어서 동물 자체와 마찬가지로 부자유로웠으나 문화의 길에 있어서의 매 1보는 자유에로의 1보였다》(《반듀링론》, 조선 로동당 출판사 판, 148—149페지).

그러므로 인류가 자연 법칙(필연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자연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연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과 같이 프로레타리아트는 사회 발전 법칙, 특히 자본주의의 불가피적 멸망과 사회주의의 필연적 승리에 관한 법칙을 인식한 때로부터 맹목적인 《필연의 왕국》으로부터 《자유의 왕국》에로의 이행을 위한 투쟁의 길에 들어 섰다.

《자유의 왕국》(착취로부터 해방된 인간들의 자유로운 활동, 생활이 보장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의미)에서는 지금까지의 력사를 지배하여 온 객관적, 외부적 힘이 인간의 통제하에 들어 오며, 이 때로부터 인간은 의식적으로 자기의 력사를 창조하기 시작하며 자기가 바라는 결과를 계획적으로 실현하게 된다. 이것은 지금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진영 제 국가 인민들이 자기의 실천을 통하여

체험하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는 여기서 필연과 자유가 서로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되여 있으며 서로 전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정한 자유는 필연으로부터의 유리, 자의적 《자유》가 아니라 자연과 사회의 발전 법칙을 인식하고 목적 의식적으로 자연 및 사회를 변혁하여 자기들이 바라는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조건 가운데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과 사회의 힘을 지배하고 통제함으로써 맹목적 필연성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며 우연성이 우리의 사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연과 사회의 발전 법칙(필연성)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소유하여야 한다.

5, 가능성과 현실성

객관적 사물의 발전 과정은 한 개 가능성이 현실성으로 전화하고 이 현실성에 의하여 조성되는 새로운 가능성이 다시 새로운 현실성으로 전화하는 무한한 련쇄적 과정이다.

그러므로 가능성과 현실성의 범주는 불가분적으로 통일되여 있는 것이다. 이 범주는 객관적 세계의 합법칙적 발전 과정을 반영하는 범주이다.

가능성은 래일의 현실성이요, **현실성은** 어제'날의 가능성 혹은 현실화된 가능성이다.

가능성은 우선 **절대적 불가능성**과 구별하여야 한다.

절대적 불가능성은 어제'날에도, 오늘에도, 래일에도 무조건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론리적으로 모순되며 객관적인 발전 법칙에 완전히 절대적으로 위반되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가능성 일반은** 객관적 발전 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능성 중에는 **추상적 가능성과 실재적 가능성**이 있다.

추상적 가능성은 실재적 가능성의 맹아로서의 추상적 가능성과, 절대 실현 불가능의 추상적 가능성으로써 구분할 수 있다.

우리의 구체적 현실에는 가장 본질적인 발전 경향도 있고 비본질적이며 부차적인 발전 경향도 있다. 이상과 같은 두 가지 경향중에서 비본질적인 발전 경향이 추상적 가능성 일반이다.

그런데 비본질적 경향중에는 현실에 있어서 오늘에는 아직 비본질적 경향이지만 래일에는 본질적 경향으로 될 수 있는 그러한 비본질적 경향도 있고 이와 반대로 래일에도 본질적 경향으로 발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질적 경향의 영향과 그의 발전 행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법칙들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그 실현이 억제되여 결코 실현되지 못하는 그러한 비본질적 경향도 있다.

전자는 실재적 가능성의 맹아로서의 추상적 가능성이요, 후자는 실현될 수 없는 추상적 가능성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

우익 사회주의자들은 제국주의하에서의 국민 경제의 일정한 부문에 대한 《국가적 통제》의 가능성을 근거로 하여 자본주의하에서도 계획 경제를 실시하여 생산의 무정부성을 제거할 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실업과 기아와 빈궁을 없앨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제국주의하에서의 비본질적 경향을 근거로 하여 주장하는 가능성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능성은 다른 본질적인 경향의 지배적인 영향으로 하여 결코 실현될 수 없는 추상적 가능성이다.

또 자본주의하에서 거지가 백만장자로 될 수 있다든가 실업자도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다든가 하는 것도 결코 실현될 수 없는 추상적 가능성이다. 미국에서의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선거권, 피선거권은 근로 대중에게 있어서는 사실상 형식적 가능성에 불과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운운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계급적 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한 반동 부르죠아지의 선전에 불과할 따름이다.

정전 직후에도 우리에게는 곧 인민 경제의 전반적 발전을 예견할 수 있는 5개년 계획 작성의 실재적 가능성의 맹아로써 추상적인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그것은 사회 발전의 객관적 법칙을 자기 활동의 지침으로 삼고 있는 조선 로동당과 그에 의하여 지도되는 인민 주권이 있었으며 그에 의하여 수행된 민주 개혁의 결과로 중요 산업이 전 인민적, 국가적 소유로 되였고 이에 기초하여 로농 동맹을 핵심으로 한 광범한 근로 인민의 정치 도덕적 통일이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제와 리 승만 도당에 의하여 도발된 3년 간의 전쟁에서 우리 공장과 기업소들, 농촌 경리와 수산, 철도, 운수 등의 가혹한 파괴와 이로 인한 인민 생활의 령락으로 말미암아 이를 해결하는 전후 복구 건설의 3개년 계획을 수행하게 되였다. 결과로 인민 경제의 전반적 발전을 예견하는 제 1차 5개년 계획 작성의 실재적 가능성이 조성되였다. 이리하여 우리 당 제 1차 대표자회는 이러한 실재적 가능성에 근거하여 우리 민족 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사회주의 락원의 위대한 설계도를 펼치여 놓았다.

그러면 실재적 가능성이란 어떤 것인가? 실재적 가능성은 소여의 구체적인 현실에서 본질적인 경향을 표현하는 가능성으로서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반드시 현실성으로 전환하는 가능성이다. 례컨대 제국주의의 조건하에서는 매개 나라에서 로동 계급의 혁명적 력량이 장성하여 일정한 단계에 이르러서는 자본주의 사회를 혁명적으로 전복하고 사회주의를 실현할 실재적 가능성이 조성된다.

실재적 가능성은 사물 발전 행정에서의 본질적 련관으로써 조성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의 생산력에 대한 생산 관계의 질곡, 계급적 모순의 격화, 로동 계급의 의식성과 조직성의 제고, 당의 형성, 로동 계급의 혁명적 진출, 로동 계급이 령도하는 로농 동맹의 장성 등은 자본주의 발전의 본질적 경향이며 따라서 이러한 본질적 경향은 프로레타리아트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의 실재적 가능성을 이룬다.

실재적 가능성도 이여의 범주들과 같이 환경, 조건에 의존한다. 정세(조건)의 변동에 따라서 비본질적 경향이 본질적 경향으로 되고 본질적 경향이 비본질적 경향으로 될 수 있는바 이에 상응하여 추상적 가능성이 실재적 가능성으로 또한 실재적 가능성이 추상적 가능성으로 전화할 수도 있다.

례컨대 제 2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에는 전쟁 방지의 가능성은 추상적 가능성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제 2차 세계 대전후에 국제 무대에서 조성된 새로운 력량 관계의 조건하에서는 전쟁 방지의 가능성을 실재적 가능성으로 만들고 있다. 물론 우리는 이 실재적 가능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제국주의자들이 새 전쟁을 도발할 수 있는 실재적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제국주의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그의 경제적 기초로부터 흘러 나오는 본질적 경향으로 하여 전쟁 도발의 실재적 근원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의회적 방법에 의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평화적 이행의 가능성에 관하여 말한다면 제 2차 세계 대전후에 국제 무대에서 조성된 새로운 력량 관계의 조건하에서 일련의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의회적 방법에 의한 사회주의에로의 평화적 이행의 가능성이 실재적 가능성으로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은 계급 투쟁과 혁명에서의 일체 폭력을 배제한다는 것을 의미함은 아니다.

그러면 **실재적 가능성은 어떻게 조성되는가?** 그것은 구체적 조건들의 성숙에 따라 그 구체적인 성숙된 요인들로써 이루어진다. 례를 들면 우리는 해방후 공화국 북반부에서 제반 민주 개혁들을 실시한 후 그 성과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과도기에 들어섰다. 그 이전에 우리에게는 그 이행을 위한 정치 경제적 제 조건과 요인이 성숙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는 실재적 가능성이 없었다. 이러한 실재적 가능성을 형성한 제 조건과 요인들은 주로 제반 민주 개혁을 완수한 결과 성숙되였던 것이다.

그러면 다음으로 **실재적 가능성은 어떻게 현실성으로 전화하는가?**

실재적 가능성도 무조건적으로 현실성에로 전화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성숙된 실재적 가능성도 그것은 일정한 자연적 혹은 사회

적 조건들의 방조에 의하여서만 현실성으로 전화하는 것이다.

례컨대 여기에 식물의 종자가 있다고 하자. 이 종자에는 발아하여 성장할 실재적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재적 가능성을 가진 종자는 일정한 토양에 떨어져 일정한 온도, 습도 등을 보장 받음으로써만 발아하여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자연계에 있어서의 실재적 가능성의 현실성에로의 전화는 인간의 실천적 활동이 첨가됨이 없이도 자동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농업 생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연적 과정에 인간의 실천적 활동이 첨가되면 자연 자체로서는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사회 현상에서는 어떠한 실재적 가능성도 인간의 실천적 활동이 없이는 현실성으로 전화하지 못한다. 사회 현상도 일정한 객관적 합법칙적 발전 과정을 밟아서 운동하지만 이 행정은 의식을 가진 인간들의 실천적 활동으로써 진행된다. 특히 인민 대중의 실천 활동과 그의 전투적 참모부인 맑스—레닌주의 당의 조직적 동원적 역할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회주의 혁명에 있어서 주객관적 조건의 성숙은 혁명 승리의 실재적 가능성의 완전한 성숙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실재적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전화시키기 위하여서는 맑스—레닌주의 당의 조직적 동원적 역할과 로동 계급을 선두로 한 인민 대중의 혁명적 실천이 필수적이다.

해방후 우리 당은 로동 계급과 근로 대중을 조직 동원하여 공화국 북반부에서 반제 반봉건 민주 혁명을 완수하고 계속하여 사회주의 혁명 과업을 빛나게 수행함으로써 이미 사회주의의 결정적 승리를 달성하였다. 이는 우리 당이 우리 나라에 조성된 주객관적 조건들을 정확히 타산한 기초 우에서 정확한 전략과 전술을 작성하고 우리 혁명 승리의 실재적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전화하기 위한 혁명적 실천을 옳게 조직 지도한 결과이다.

지금 우리에게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실재적 가능성이 조성되였다. 그것은 북반부의 혁명적 민주 기지에서 강화 발전된 강력하고 결정적인 사회주의 력량과, 남반부에서의 근로 대중의 반제 반봉건 투쟁의 강화,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의 인민 대중으로부터의 고립, 남북 조선의 애국적 민주 력량이 통일 전선을 형성할 수 있는 조건의 성숙, 국제 무대에서의 사회주의의 결정적 승리와 전쟁 방지의 실재적 가능성 등등의 조건은 바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실재적 가능성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실재적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전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혁명의 참모부인 당의 통일 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제 1차 5개년 계획을 완수 및 초과 완수하여 민주 기지를 더욱 튼튼히 강화하고 그를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시키며 우리 당의 평화적 조국 통일 방안을 완강히 실천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능성과 현실성의 범주는 우리들에게 사회 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할 능력을 배양하여 주며 소여 단계에 있어서 조성된 실재적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전화시키는 데 있어서의 혁명적 실천의 의의를 강조함으로써, 승리는 조직하여야 하며 쟁취하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서적 해제 및 평론

김 석형 저 《조선 봉건 시대 농민의 계급 구성》에 대하여

김 사 억
리 용 중

현 시기에 있어서 인민들에 대한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며 계급적 의식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은 우리 혁명 과업 수행의 성과적 보장을 위하여 우리 당이 제기한 중요한 사상 사업의 하나이다.

김 석형 동지의 저서 《조선 봉건 시대 농민의 계급 구성》은 당의 이러한 사상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적인 과학적 저작의 하나이다.

저자 자신도 그 서언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 우리 나라 봉건 농민의 력사에 대한 해명은 오늘날 우리 혁명의 동력으로서의 농민을 리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며 또한 우리 나라 봉건 시대 농민의 계급 구성 문제를 해명하는 것은 현 시기 사회주의 교양 사업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의의를 갖는다.

이 측면에서 독자들은 본 저서를 통하여 우리 농민 계급이 과거 기나긴 봉건 사회를 어떠한 력사적 과정을 밟아 형성 발전하여 왔으며 어떠한 처지에서 살아 왔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여기에 이 저서가 가지는 중요한 현실적 의의가 있다.

이 저서는 봉건 시기 우리 농민의 계급 구성을 력사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기원 전후한 시기로부터 봉건 말기(19세기)에 이르는 장구한 시기를 포괄하여 그처럼 착잡한 농민의 계급 구성이 일정한 과학적 체계를 가지고 서술되여 있다.

저자는 이 저서를 통하여 봉건 시기 우리 농민의 주요한 두 개의 신분층인 노비(奴婢) 농민과 량인(良人) 농민에 대하여 이를 각각 전편과 후편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그리하여 전편은 노비론(奴婢論), 후편은 량인론(良人論)이란 편제하에서 이를 해당 사회의 법제적인 측면에서 일단 정리하고 다음에 그의 사회—경제적 처지와 그 연혁에 대하여 상세한 분석을 가하였다. 그리고 부록으로서 《조선 중세의 봉건적 토지 소유 관계에 대하여》라는 론문을 첨부하여 직접적 생산 대중으로서의 노비와 량인 농민들의 토지 소유 관계에 있어서의 위치를 론급하였다.

그런데 저자는 장구한 봉건 시기의 복잡한 농민의 신분—계급 관계의 발생 발전 분화에 관한 력사적 서술을 목적으로 한 본 저서에서 우선 14—16세기의 우리 나라 농민에 관한 고찰로부터 시작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제기된 문제의 특성에서 오는 론증상 필요성과 문헌 사료의 형편을 고려하여 취해진 것이다.

저자는 우리 나라 력사에서 전형적인 봉건 시기라고 볼 수 있는 15세기의 력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 봉건 사회의 본질적인 제 특징들을 끄집어냄으로써 문헌 사료가 부족한(단편적이며 부차적인 사료 밖에 없는) 삼국 시기의 농민의 계급 구성과 또는 경제 형

태들을 《경험적 실증》의 방법으로써 구명하여 농민의 계급 구성에 대한 전체 력사적 발전 과정을 체계화하였다.

이에 있어서 저자는 엥겔스의 다음과 같은 교시에 주요하게 립각하고 있다. 《…즉 어떠한 과학적 령역에 있어서도——자연의 령역에서도 력사의 령역에서도——우리에게 주어진 사실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러므로 리론 자연 과학에 있어서도 역시 제 련관을 조작하여 사실 속에 도입해서는 안 되고 사실 속에서 그것을 끄집어내야 하며 또 발견되였으면 가급적 그것을 경험적으로 실증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다》(엥겔스 《반듀링론》, 조선 로동당 출판사 판, 442페지).

이상과 같은 체계와 방법에 의하여 연구된 이 저서가 가지는 과학적 성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저자가 우리 나라 봉건 시기 농민 신분의 복잡한 구성에 대하여 이를 그들의 사회—경제적인 처지에 기초하여 분석하고 해당 신분에 대한 과학적 해명을 주고 있는 점이며, 둘째로, 그것은 력사주의적 견지에서 우리 나라 봉건 시기 농민의 계급 구성을 체계화하고 있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즉 저자는 봉건 시기 농민의 계급 구성에 대하여 이를 횡적인 련관 관계에서 정리하고 다시 종적인 력사적 계기성의 측면에서 체계화함으로써 봉건 시기 농민 계급의 전모를 보여 주었으며 아울러 경제 제도와 그 발전의 각 계단들에 있어서의 경제 형태들에 대하여 설명을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이상과 같은 두 개의 측면에서 이 저서의 기본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마지막에 가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우리들의 의견을 첨가하려고 한다.

우리 나라 봉건 시기 농민의 사회 경제적 처지에 대한 분석에 대하여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 봉건 시기 문헌 사료에는 피착취 대중의 신분에 대하여 여러 가지 명칭의 혼란된 개념과 비과학적 용어들로서 기록되여 있다. 저자는 이러한 문헌 사료를 기초로 우선 법제적 규범으로서의 신분과 비교적 막연하게 씌우던 《사회적 통념(通念)》상의 신분을 일단 구별하여 정리하고 피착취 대중의 신분 중에서도 봉건 농민에 해당하는 신분을 대별하여 이를 노비와 량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노비와 량인 신분은 직접적 생산 대중으로서 우리 나라 봉건 시기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과학적 개념으로서의 《농노》로 규정지을 수 있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노비, 량인의 실재와 그 용어의 출현은 장구한 력사를 가지고 있으니만큼 이에는 과학적 개념으로서 농노와는 구별되여야 할 즉 노예 또는 예속 농민 및 자유민으로 보아야 할 요소도 내포되여 있다. 따라서 저자는 우선 《농노》와 《노예》에 대한 과학적 징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이 문제를 구명할 척도로 삼고 있는 것이다.

《농노와 노예의 차이점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직접적 생산자로서 기본 계급을 형성하고 있는 사회의 생산 수단에 대한 관계가 상이한 데서부터 유래하는 것이였다. 그것은, 농노는 생산 수단에 대한 점유자로서 자기의 경리와 생산 도구를 가지고 있었음에 반하여 노예는 생산 수단을 점유하지 못하였으며 자기 경리와 생산 도구를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농노는 그의 불완전 소유자인 봉건들이 매매할 수는 있으나 죽이지는 못하는 데 반하여 노예는 그의 완전 소유자인 노예 소유자가 매매 살륙할 수 있다는 사회—경제적 처지의 차이와 그들에 대한 법률적 규정들의 차이에서 표현되는 것이였다. 아무리 제한된 의미에서라도 자기의 경리 즉 살림살이를 가지고 생산 수단을 점유하고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노예와 농노를 구별하는 기본 징표로 잡아야 할 것이요, 주인이 그들을 죽일 수까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그 다음 가는 징표로 잡아야 할 것이다》(동서 20—21페지).

이상에서 설정한 기본 징표로부터 출발하면서 저자는 전편에서 우리 나라 봉건 시기의 노비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하고 그 특징과 복잡한 구성 내용을 밝혔는바 그 기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 노비 제도의 특징은 세전법(世傳法—노비 신분 자체의 상속법)의 가혹성과 그 내부 구성의 복잡성과 그리고 그 력사적 장구성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저자는 우리 나라 봉건 사회의 계급 구성에 있어서 최하층, 최하천(最下賤)의 신분에 처하였던 노비 신분에 대하여 이를 공노비(公奴婢)와 사노비(私奴婢)로 구분하고 다시 전자를 선상(選上) 노비와 납공(納貢) 노비로, 후자 즉 사노비를 솔거(率居) 노비와 외거(外居) 노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각각 이에 대한 봉건 법제적 규범과 그들의 직업 및 사회 경제적 처지를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총체적으로 우리 봉건 사회에서의 노비의 신분은 과학적 개념으로서 기본적으로 세 개의 류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론증하였다.

즉 1) 가부장적 노예, 2) 농노, 3) 봉건적 예속민이 그것이다. 상술한 바 사적 량반 지주 즉 상전(上典)이 자기 집에 데리고 사는 노비(솔거 노비)를 가부장적 노예의 류형으로 보고 있으며 그 상전의 전형적인 외거 노비(상전과 일단 독립한 살림을 하고 있었던 노비)를 농노로 규정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전체 공노비도 이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외거 노비에 해당하는 노비 신분중에는 량인(良人)에 가까운 독립적 경리, 자기의 전택(田宅)을 소유한 노비도 있었는바 이러한 노비 신분의 농민들은 국가에 대한 부담만을 지는 예속된 봉건적 예속민(농노에 근사하지만 엄격하게는 농노는 아닌, 다만 근사하다는 의미에서 농노적 농민이라고 불러도 무방한)이 있었다는 것을 옳게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학적 결론의 도출과 함께 저자는 전편 《노비론》을 통하여 과거 최하층의 신분으로서 비인간적 대우를 받아 온 노비의 비참한 사회적 처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몇 가지 자료들을 소개하였다. 특히 량천(良賤)의 교가(交嫁—결혼)에서 볼 수 있는 종부 수모법(從父隨母法—부모 중 한 사람이 노비인 경우에는 그 자식은 노비로 된다는 악법)의 정체, 노비 신분 인민들에 대한 가혹한 법적 의무의 강요, 그리고 노비의 매매와 형살(刑殺)을 통하여 우리들은 봉건 국가와 량반 지주 등 상전들의 비인간적 태도와 그것이 허용된 봉건 제도에 대하여 증오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

다음 후편 《량인론》에 들어가 량인의 사회 경제적 처지가 여하히 분석되고 있는가를 보자.

장구한 력사를 가지고 있는 량인 신분층에 해당하는 농민도 노비 신분의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구성 내용은 복잡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한마디로 《자유민》 또는 《봉건 예속민》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개로 구별되여야 할 세분된 층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량인 신분층의 분석에 있어서도 저자는 전술(前述)한 바와 같은 과학적 개념 설정의 기본 각도와 또한 노비 신분 분석에서와 동일한 방법을 취하면서 우선 리조, 고려 시기의 신분 규범으로서의 량인과 그의 신분 제도상에 있어서의 위치를 천명하는 데로부터 시작하였다.

량인(또는 량민)이라는 법제적인 술어와 함께 량인은 또한 평민(平民), 서민(庶民), 상민(常民)이라는 등의 말로도 불리워 왔다.

이와 같이 불리워 온 량인은 봉건 국가의 법제상에서는 단일한 신분층으로 되여 있지마는 그의 사회적, 경제적 처지는 결코 단일하지 아니하였던 것을 저자는 밝히고 있다. 《…만일 량인 신분의 상한(上限)이 우으로 량반 신분에 물려 들어 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하한(下限)은 노비의 신분에 닿아 있었다…》(151페지)라고 량인 신분층의 다양성을 특징지었다.

다음에 저자는 량인 신분의 각이한 직업(농업 이외의)에 대하여, 그리고 량인 농민의 경리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량인의 상층부를 차지하는 량반 지배 계급에 들어

갈 수 있는 한량(閑良)층은 이를 소(小)봉건 지주로 규정하고 《…량인 농민이라고 할 때 그것은 량인으로서는 상층을 제외한 그 중(中) 이하의 신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되는 것이다》(165페지)라고 전형적인 량인을 일단 이렇게 정립(定立)시키고 문제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중(中) 이하 량인들의 경리의 규모와 그들의 국가적 각종 부담(주로 병역)을 해명한 다음 량인 농민에 대하여 규정하기를 《…량인 농민을 포함한 전체 량인 신분층의 인민은 우선 이런 의미에서(국가와의 관계를 두고 말함——필자) 제 1차적으로 봉건 국가의 예속민이라고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186페지)라고 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력사적 특수성으로 하여 우리 나라 량인은 봉건 국가와 지주, 량반의 2중적인 착취하에 놓이게 되였는바 이러한 량인 농민이 적어도 과반수는 차지하였던 것이라고 저자는 추정하였다. 이러한 사회 경제적 처지로 하여 량인은 부단히 노비로 전락할 운명에 처하였다는 것을 각종 력사적 사실들과 과학적 론증을 통하여 분석한 다음 량인 신분에 대하여 대략 아래와 같은 총체적인 결론을 주고 있다.

즉 과학적인 의미에서 따진다면 봉건 국가와 봉건 지주와의 2중적 억압하에 있는 량인 농민까지도 농노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것(그것은 아무도 매매할 수는 없는 까닭에), 그러나 한편으로 비교적 유족한 경제적 처지에 있는 즉 제한된 의미에서나마 자기의 소유지까지도 가지고 봉건 국가의 지배를 받기만 하는 량인 농민도 《자유 농민》으로 규정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량인을 과학적 개념으로서 어떻게 규정짓고 있는가? 저자는 우리 나라 봉건 시기의 **량인을 토지에 결박된 예속 농민**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고려, 리조 시기를 통하여 전체 농민 경리에서 절대적으로 우세를 차지한 것은 이러한 봉건적 예속 농민이였고 그들은 제 1차적으로 봉건 국가에, 그 중의 과반수는 봉건 국가 및 봉건 지주에게 2중적으로 예속되여 있었던 것이라고 하였다(190페지 참조).

다음 저자는 노비와 량인과를 비교하여 설명하기를 《그리고 보면 노비 신분층과 량인 신분층은 명목상, 법제상으로는 계선이 명확한 것이 있기는 하나 그 사회—경제적 처지는 서로 잇닿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전자의 상층이 후자의 하층과 서로 겹치고 서로 물려져 있다고도 표현할 수 있다. 노비, 량인 두 층의 농민을 통털어서 규정한다면 결국 가부장제적 노예, 농노, 봉건 예속민의 세 계층으로 되며 특히 봉건 예속민 안에는 다시 여러 개의 세분된 계층이 존재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량적으로 우세를 차지하는 것은 언제나 세 번째의 봉건 예속민으로 규정되는 농민의 여러 계층들이였다》(191페지)고 하였다.

이상의 결론은 저자가 우리 나라 봉건 시기 농민의 신분인 노비와 량인에 관하여 이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하고 그들의 사회—경제적 처지를 해명함으로써 농민의 계급 구성에 관한 론증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봉건 사회 내부의 구체적인 경제 형태들을 또한 과학적으로 분석 종합한 것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 농민 계급의 발전 력사에 대하여

이 저서의 전편 《노비론》 부문에서 취급한 《노비 제도의 연혁》, 《노비 제도의 붕괴》 그리고 후편 부문에서 전개한 《리조, 고려 시기의 량인 농민》, 《삼국 시기의 량인 농민》의 내용——이것은 즉 우리 나라 농민 계급의 중요한 두 개의 신분층인 노비 및 량인 신분의 발생 발전에 관한 력사를 취급한 것이다.

저자는 이 장들에서 우리 나라 문헌 사료에 나타나고 있는 잡다한 신분적 명칭들을 분석 정리하면서 그들의 계급적 처지 및 그 경제 형태상의 특징과 차이점들을 해명하는 동시에 그 력사적 변천 과정에 대하여 과학적인 분석과 결론을 주고 있다. 그리하여 각양하게 표현되던 피지배 계급 신분층의 용례에 대한 많은 문제를 제기하였고 또 그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론술하였다.

이와 같은 구체적 분석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 봉건 시기의 농민 계급의 발전 력사와 발전의 매개 단계에서의 경제 형태들의 변천에 대하여 저자는 저서의 결론 부분에서 총괄하고 있는바, 그 중요한 내용을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량인과 천인(노비)이라는 신분은 그 사회 경제적 처지——봉건 지주 계급과 봉건 국가에 대한 예속 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력사적 과정을 가지고 있었다. 동시에 량인, 노비라는 법제적인 신분 규범도 그의 력사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있어서 우선 이 신분층들의 력사적 변천을 법제적인 형식적 측면에서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노비 신분은 적어도 삼국 시기 이전부터 존재하여 19세기까지 이르렀으며 시종일관 봉건적 신분 체계에서 최하층을 이루고 있었다.

량인 신분은 노비와 지배 계급간의 중간층으로서 고려, 리조 시기에는 법제적 술어로서 국가—사회적으로 명확한 규범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삼국 시기로 소급한다면 그러한 규범, 그러한 술어로서의 량인이라는 것은 6세기 신라의 진흥왕(眞興王)대 이후의 몇 개의 례를 볼 뿐이다.

한편 삼국 시기에는 량인 신분층의 하한이 노비 신분층 안에 겹쳐서 물려 들어 가 있었으나 고려, 리조 시기에는 그렇지 않고 량천의 계선이 명확하였다. 고려, 리조 시기에 노비가 아니면서도 천민이라고 불리우던 사람들이 봉건 통치배들로부터 아무리 천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또 그들의 형편이 노비와 비슷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은 노비 신분에 닿아 있을 지언정 삼국 시기의 부곡(部曲), 향(鄕)의 인민들처럼 법제적 신분으로서의 노비와 같은 것으로 규정 받을 수는 없었다. 즉 삼국 시기에는 량천의 계선이 불명확하였던 것이 고려, 리조 시기에는 명확하여진 것이다. 삼국 시기 이후의 이러한 변천 과정은 농민의 신분 관계 변천의 력사에서 볼 때에 노비 내지는 천인이라는 규범의 단순화, 명확화(明確化)의 과정이며 량인이라는 신분 규범의 복잡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저자는 썼다.

다음에 저자는 우리 나라 봉건 관계의 발전 과정에서 이렇듯 신분 관계가 복잡화된 진정한 원인에 대하여, 이를 생산력의 점차적 발전과 이에 따르는 농민 계급 내부의 사회—경제적 분화의 복잡성에서 찾고 있다. 즉 저자는 원시 공동체 내부에서 계급이 생겨난 이후 사회 내부에는 노비와 노비 아닌 사람의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것, 그리고 원시 공동체 사회의 자유민은 량인의 선행자들이였으며, 자유민으로부터 예속민으로의 전환의 길이 바로 우리 력사에 있어서는 봉건 제도의 형성기와 일치하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봉건 관계의 형성 과정의 완성으로 볼 수 있는 시기는 국가에 따라 전후의 차이는 있겠으나 우리 조선 반도내에서 공동체 붕괴기에 있었던 종족들이 없어지고 삼국이 조선 반도의 분할을 완료한 시기인 6세기 중엽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 직접 생산자의 주요 력량인 농민의 신분 관계로 본다면 량인에 해당하는 인민들은 자유민으로부터 계속 예속민화하는 과정 즉 그 예속 관계가 짙어져 가기만 하고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 량인의 수는 줄어 가고 노비로 전락하는 자가 많아 가는 과정이 진행되였으리라고 저자는 추정하고 있다. 노비 신분 인민의 증대는 또한 정복 전쟁의 계속과 포로의 증대로 말미암아도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 늘어 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은 봉건 관계의 형성기를 지난 이후부터는 반대되는 현상을 밟기도 함으로써 그 발전은 직선적으로가 아니라 라선적으로 굴곡을 그으면서 진행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10세기 고려 초의 노비 안험(按驗), 15세기 리조 초의 변정(辨整) 사업과 량천의 교가(交嫁)의 결과를 통하여 나타난바 노비의 량인화 과정이 이를 실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전체 이 발전 과정은 곧 노비의 량인화 과정의 승리의 행정이였다고 론증하였으며 이는 특히 17세기 후반기 이후 우리 나라 봉건 제도의 붕괴기의 력사에서 특징적으로 표현되였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17세기 후반기 이후 노비와 량인 신분은 서로 접근하여 갔으며 량천의 중간층은 점차 해소되여 갔다. 량천의 이러한 접근은 그 계선이 불명확하게 되였음을 말한다고 하면서 저자는 이러한 현상이 과거의 어떠한 되풀이가 아니라 거기에는 그 어떤 본질적인 사회—경제적 변화가 미약하게나마 안받침되여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상에서 분석한 모든 자료에 근거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를 제기하고 있는바 그것은 우리 나라 봉건 사회의 기본 생산 대중인 농민 계급의 전형을 정식화하고 그의 발생, 발전, 분화의 과정을 가지고 봉전 제도 자체의 발생, 발전, 해체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그것이다. 우선 저자는 우리 봉건 사회의 농민의 전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농노로 규정되는 농민이 우리 사회에서도 봉건 농민의 전형으로 되여야 할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전체 농민 계급내에서 이에 해당하는 농민은 그 일부이며, 우리 봉건 사회에서 그 어느 시기에나 농노만이 농민의 주력 부대로 된 일이 없었던 것이며 량적으로도 그들은 소수이였다. 농노의 규정에 그대로 맞는 농민은 노비 신분 농민중에서도 그 일부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봉건 시대의 력사도 발전과 붕괴의 과정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 발전에서 전체 봉건 농민의 절반도 농노로 만들지 않았던 이상, 이 농노만을 우리 봉건 농민의 전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여기에 다른 계층의 농민이 포함되여야 할 것이다. 노예 농민이 이에 첨가될 수는 없다》 (237—238페지)고 전제하면서 저자는 여기에 봉건적 예속 농민을 포함시키고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전형적 농민 계층을 설정하였다.

즉 그 첫째 전형은——신분상으로 보아 노비이면서도 외거(外居)하면서 상전의 땅을 경작하고 소출의 절반을 무는 농민, 상전이 매매할 수 있는 문'자 그대로의 농노(외거 노비)이며, 둘째 전형은——량인 신분의 농민이면서 자기의 토지를 가지지 못하고 봉건 지주의 땅을 《소작》하던 농민(이는 량인인 이상 그 누구도 매매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농노는 아니였으나 그는 봉건 국가와 봉건 지주와의 2중적 예속 관계하에 놓여 있었던 농노와 아주 접근된 농민——즉 토지 없는 량인——)과 다음으로는 비록 자기 땅을 경작하기는 하나 그 농토가 적어서 극도로 빈한한 가운데서 혹독하게 봉건 국가의 억압 착취하에 놓인 량인 농민——토지 적은 량인——등 봉건적 예속 농민이 그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저자는 봉건 시기의 신분 규범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그리고 보면 우리 봉건 시대의 농민 계급의 주력이요, 전형적인 계층은 노비 농민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량인 농민도 아니였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노비라던가 량인이라던가 하는 법제적인 규범으로써 우리의 전형적인 봉건 농민을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노예, 농노, 자기 토지를 가진 예속민으로 구성된 노비 농민중에서 농노들과, 예속민이면서 자기 토지가 있거나, 적거나, 없는 여러 층으로 구성된 량인 농민중에서 그 하층을 가지고 우리 봉건 농민의 전형으로 규정한다면 우리 봉건 시대의 농민에 대한 량천이라는 신분 규범은 이러한 사회— 경제적 본질을 불완전하게 또 부정확하게 밖에는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240 페지)라고 하였다.

다음에 저자는 이상 설정한 두 개 전형의 농민을 두고 그의 발생, 발전, 분화 과정과 우리 나라 봉건 사회의 경제 제도의 발전의 력사를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공동체 붕괴기, 정복 전쟁의 계속, 계급 국가의 창건 과정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가부장제하의 노예제에 계기(繼起)하여 봉건 제도가 발생하였으며 직접 생산자인 농노와 예속민들이 발생하였다.…

공동체 붕괴기에 농노, 예속민에 앞서서 그리고 또 정복 전쟁에서 촉진된 국가의 창건 과정에서 우리 나라에서는 또한 가부장제적 노예 제도가 발생 발전하였으며 노예가 발생하고 장성하였다.…

가부장제하의 노예가 직접 생산자의 한 계층의 일부인 이상에는 (가부장제하의 노예는 직접 생산 대중 중에서도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뜻——인용자) 그 사회를 노예 소유자적 사회 구성이라고 볼 수 없다》(244 페지).

그러면서 강조하기를——《…삼국의 사회 구성은 저 가부장제적 노예제가 보다 강한 정도로 존재하는 봉건 사회일 지언정 노예 사회일 수는 없다》 (245 페지)라고 하였다.

바로 이러한 결론은 저자가 우리 나라 봉건 시기의 농민의 계급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로부터 도출한 근거 있는 문제 제기의 하나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후의 우리의 력사 발전은 봉건 사회의 테두리 안에서의 발전이였다. 우리 나라 봉건 제도의 발전을 농민의 계급 제 관계에서 찾는다면 그것은 그러한 여러 계층으로 구성된 농민 계급이 전형적인 농민 계급에로 발전하여 나가는 길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저자는 신라에 의한 삼국 통일 이후 시기의 전형적 농민의 계속 확대에 대하여서와 고려, 리조 왕조 시기를 통한 그 발전 과정의 기복의 정형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이 전형적인 두 개의 농민 계층의 분화 과정에 대하여 저자는 대략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17세기 후반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는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정도로 농민 계급은 분화하게 되였고 한 쪽으로는 미약하게나마 농민의 다른 계급으로의 전환 즉 농민 계급의 미약한 분화까지 볼 수 있게 되였다. 이 시기부터는 가부장제적 노예라고 볼 수 있는 농민도 없어지게 되였다. 또한 사실상 이 시기의 노비 농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의 농노

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종전처럼 매매의 대상으로 되는 일이 적어 갔으므로 우리의 전형적인 봉건 농민의 첫 부류(部類)는 없어져 가게 되였다. 19세기 말을 전후하여서부터는 농민인 노비를 그 상전이 매매하는 일은 법률적으로 금지되게 되였다. 이로써 봉건 농민의 한 전형은 사실상 없어지게 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우리 농민은 계속 봉건 농민으로 남아 있었는바 그들은 토지를 가지지 못하고 봉건 지주의 착취 억압과 또한 국가의 예속하에 있었던 봉건 제도 발전기에 있어서의 전형적인 바로 그러한 봉건 농민과 본질적으로는 다름 없는 농민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1946년 3월에 진행된 력사적 토지 개혁은 비로소 우리 농민들에 대한 봉건적 예속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였다. 토지 개혁에 의하여 우리 농민은 엄격하게 말하여 농노적인 농민에서가 아니라 우리 나라 력사상 오랜 기원을 가지고 있는 저러한 둘째번의 전형적인 봉건 농민의 신분에서 해방되였던 것이라고 저자는 론술하고 있다.

* *

이상에서는 저자가 본 저서를 통하여 제기하고 론증한 많은 문제들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하여서만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였다.

다음에는 저자 자신이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한 결론을 지은 많은 과학적인 문제들중에서 학계에서 계속 론의되여야 하리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들의 견해를 말하고 또한 저자가 달성한 연구 성과에 기초하여 앞으로 더욱 심화 보충하여야 하겠다고 생각되는 점들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기하고저 한다.

저자는 기원 전후한 시기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또 그 이후 시기(해방전 시기)에 이르기까지의 우리 농민 계급의 발생, 발전, 변화 과정에 대하여 일관된 체계에서 그 존재

형태를 설명하였다.

우선 이것을 전형적인 봉건 사회인 14—16세기를 기준으로 하여 설명한 다음 소급하여 삼국 시기를 론단하였고 밑으로 내려와 17세기 후반기 이후의 우리 나라 봉건 사회 붕괴기의 농민의 계급 구성과 경제 형태의 변화 과정을 특징지었다.

이에 있어서 학계에서 문제로 될 수 있는 것은 삼국 시기의 사회—경제 구성에 대한 저자의 결론인 것이다.

저자는 삼국 시기를 후세(고려, 리조 시기)보다는 가부장제적 노예제가 강한 봉건 사회였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것은 저자가 전형적인 봉건 사회의 한 시기를 두고 우리 나라의 과거 농민의 신분—계급 관계의 본질적인 제 특성들을 연구한 다음 이로부터 류추한 즉 《경험적 실증》의 방법을 택하여 얻은 결론이다. 이는 문헌 사료에 제약을 받는 삼국 시기에 관한 연구에서 방법상 새로운 시도의 하나이며 또한 근거 있는 하나의 론거로 될 수 있다. 그러나 한 사회 구성의 경제 제도의 성격을 구명하고 규정지음에 있어서 신분—계급 관계의 한 측면만으로써는 불충분하며 독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된다. 여기에는 역시 보조 과학의 발전과 그 연구 성과들이 도입되는 것이 필요하며 삼국 시기의 각방면에 걸친 연구가 종합되여 설명되여야 할 것이다.

다음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저자가 전형적인 량인 농민으로 설정한 즉 중(中) 이하의 량인에 대한 과학적 규정성과 그의 토지 소유 관계에 있어서의 위치에 관한 문제이다.

우에서 그 내용을 소개한 바와 같이 전형적인 량인 농민에 대하여 저자는 말하기를 제1차적으로 봉건 국가의 예속민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그 처지 여하를 불문하고 그가 량인인 한에 있어서는 농노가 아니라고도 표현하였다. 또한 량인 일반과 노비까지를 포함시켜 이를 농노라고 전제하기도 하였고, 량인 하층에 대하여는 그 처지가 노비에 근사하다는 의미에서 농노적 농민이라고도 규정하였다. 이것은 저자 자신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량인 신분의 복잡성과 그 류동의 번잡성에서 오는 당연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있어서 문제로 되는 것은 전형적 량인 즉 중(中) 이하의 량인을 놓고 봉건적 예속 농민이라고 할 때 그 규정의 중요 징표를 지나치게 매매 여부에서 구하고 있는 그 점이다. 저자는 《노비론》에서 공노비를 분석하면서 이는 매매는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저 전형적인 외거 노비의 류형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저자의 규정에 의하면 전형적 외거 노비는 농노이였다. 따라서 공노비는 물론 농노로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매매의 대상으로는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에 있어서 공노비와 전형적 량인 농민과는 무엇이 다를 것인가. 여기에는 넘을 수 없는 차이가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였다. 이러한 모순은 저자가 매매의 대상 문제를 다만 매매와 수반되는 어떤 노비 문서나 그 불완전 소유권의 이동의 측면만을 본 데서 온 것이 아닌가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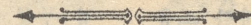
전형적 량인들이 그 경작지와 함께 봉건 국가에 의하여 량반 관료들에 대한 증여(贈與)의 대상(토지에 결박된 농민으로서 토지와 함께)으로 되였던 사실을 념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 물론 국가는 량반 관료들에게 돈을 받고 매매한 것은 아니였다 하더라도 그와 비슷한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망각할 수 있겠는가. 이와 아울러 이 신분층의 규정에 있어서는 봉건 국가에 의한 경제 외'적 강제에 대하여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봉건 사회의 전형적 량인 농민은 최선의 경우에라야 봉건적 예속 농민이였겠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이의(異議)가 없다. 다만 이런 경우에 그가 제한된 의미에서나마 《토지 소유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는 어쨌든 제 1차적으로 봉건 국가에 예속된 농민이였으며 그 사회의 피지배 계급의 주력 부대(많다는 의미에서)였다. 봉건적 예속민이라고 규정하는 이상 량인 농민의 토지 소유 관계를 절대로 량반 지주의 소유 관계와 그 위치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량인을 과학적 개념으로서의 《자유민》이였다고 규정지을 수 있는 한에 있어서만 그는 토지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봉건 제도의 붕괴기라고 볼 수 있는 17세기 후반기 이후의 력사에 있어서 저자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당한 정도로 봉건적 신분 제도는 파괴되여 갔다.

이러한 현상은 19세기와 그 이후에 더욱 촉진되였던 것만도 사실이다. 이 경우에 상술한 바와 같은 전형적인 우리 량인 농민의 계층은 ——저자가 설정한 전형적 농민의 두 개의 계층의 하나는——여전히 후세까지 존속되기는 하였으나 그 후의 경제 제도에서 변질을 가져 온 것만큼은 변질되였다. 이 변질 과정에서 이 전형적 량인 농민의 경작지는 점차 사'적 소유지의 성격을 띠여 갔던 것이 아닐가 한다.

끝으로 희망하는 것은 저자가 앞으로 이 저서에서 거둔 과학적 론증들과 그 성과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 농민사 체계로 이를 개편할 것을 제기한다. 그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그 서술 체계가 이에 있어서는 시대적 순차성을 따라서 서술됨이 필요하다는 것과, 농민들의 계급 투쟁의 력사와 그 생활 처지들이 연구되여 이에 첨가 배합되여야 되겠다는 점이다.

이리하여 우리는 과거 봉건 시대 인민사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농민사의 정확한 파악을 통하여 공화국 북반부에서 우리 농민들이 이미 겪었으며 또 현재 겪고 있는 위대한 전변들과 앞으로 있을 우리 나라 전체 농민들의 전변의 력사적 의의에 대하여 보다 심각한 파악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독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

최근 년간에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경제적 기초는 어떻게 변하였는가

우리 당 제 1차 대표자회에서 채택된 제 1차 5개년 계획에 관한 결정서에는 《3개년 계획의 수행은…나라의 사회—경제적 기초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고 지적되여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중요하게 3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한 결과에 우리 나라의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결정적으로 지배하게 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생산 관계의 기초는 생산 수단에 대한 소유인바 그 소유 형태는 생산 과정에 있어서 사람들 간의 호상 관계를 결정한다. 생산 관계는 사회 계급 관계의 기초로 된다. 그러므로 사회—경제적 기초의 변화란 생산 관계의 변화, 따라서 계급 관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러면 최근 년간에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경제적 기초는 어떻게 변하였는가?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우리 나라 사회가 과도기에 처하여 있으며 그의 과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념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과도기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과도하는 시기,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시기로써 가렬한 계급 투쟁을 거쳐서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를 청산하고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를 창설하며 착취를 산생케 하는 소상품 경리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창설중에 있는 경제 형태로부터 시작하여 청산중에 있는 경제 행태까지도 동시에 존재하게 되므로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 형태들이 있게 된다.

공화국 북반부 사회에는 기본적으로 세 개의 경제 형태가 존재하였다. 즉 첫째 형태는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이며, 둘째 형태로는 소상품 경제 형태이며, 세째 형태로는 자본주의적 경제 형태이다.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는 국영 경제 부문과 협동 단체 경제 부문으로 구성된다.

소상품 경제 형태는 개인농 부문과 도시 수공업 부문으로 구성된다.

자본주의적 경제 형태는 도시의 개인 상공업 부문과 농촌의 부농 경제 부문으로 구성된다.

그러면 지난 날 이러한 경제 형태들이 우리 나라 인민 경제에서 각각 어떠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가?

1953년에 공업 총생산액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가 차지하던 비중은 96.1%였고 나머지는 자본주의적 경제 형태와 소상품 경제 형태가 차지하고 있었다. 농업 총생산액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가 차지하던 비중은 불과 8%였다.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소상품 경제 형태가 차지하고 있었으며 또한 극히 적은 수'자의 부농 경제도 있었다. 또한 소매 상품 류통에 있어서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가 차지하던 비중은 67.5%였다.

이상에서 우리들이 우선 알 수 있는 것은 1953년에 공업 부문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농업 부문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극히 미약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이다(특히 1953년에 농업 협동 조합에 망라된 농호수는 전체 농호수의 겨우 1.2% 밖에 되지 않았다). 또한 소매 상품 류통 부문에 있어서도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가 아주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지는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이 시기에 우리 나라의 국영 및 협동 단체 공업에서는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경제 법칙들이 작용하고 있었으나 우리 나라 농촌 경리에서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에 기초한 소상품 농민 경리가 거의 지배하고 있었고 여기에서는 자본주의적 요소들이 끊임 없이 싹트고 있었다.

그 뿐만 아니라 도시의 중 소 기업가와 개인 수공업자 그리고 농촌의 개인농 등에 의거하고 있은 상인들이 시장 가격을 적지 않게 롱락하고 있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나라 인민 경제 발전과 사회주의 건설에 직접 장애로 되였다.

인민 경제의 앞으로의 부단한 발전은 생산력 성격에의 생산 관계의 적응의 법칙에 의거하여 자본주의적 경제 형태와 자본주의를 부단히 산생시키는 소상품 경제 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 것을 요구하였다.

당은 우리 나라 사회 발전의 객관적 합법칙성과 인민 경제 발전의 제 요구를 충분히 타산한 토대 우에서 중공업의 급속한 발전과 그에 기초하여 인민 경제에서의 공업의 지도적 역할을 현저히 강화하는 동시에 소상품 생산자들을 협동 조합을 통하여 사회주의 생산자로 전환시키며 중 소 상공업자들을 우리 나라 실정에 알맞게 평화적 방법으로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거대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3개년 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된 결과에 공업 부문의 사회주의적 경제 형태는 현저히 확대 강화되였는데 공업 총생산액 중에서 국영 및 협동 단체 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49년에 90.7%였다면 1956년에 98%로 증대되였다.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적 공업은 그의 질적 구성에 있어서 현저한 변화를 일으켰다. 공업은 전쟁의 피해를 회복하고 자주적 발전의 토대를 기본적으로 구축하였으며 인민 경제 발전에서 더욱더 지도적 역할을 놀게 되였다.

공업의 급속한 발전은 농촌 경리의 집단화와 그 생산력의 앙양, 중 소 상공업자들의 사회주의적 개조, 류통 분야에서 국영 및 협동 단체 상업의 령도적 역할의 제고를 강력하게 추진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다.

최근 년간(3—4년)에 농촌 경리의 95.6% (1957년 말)가 사회주의적 협동 경리에 망라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 농촌에서 사회주의는 결정적으로 승리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농촌에서는 착취와 빈궁의 근원이 기본적으로 청산되였고 생산력 발전과 그에 따르는 물질 문화 생활 향상의 길이 널리 열려졌다.

우리 나라에서 중 소 상공업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적으나 그들은 우리 나라에 아직 남아 있는 착취 계급인바 그들에 대한 사회주의적 개조는 과도기에 있어서 프로레타리아트 독재가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과업중의 하나이다.

중 소 상공업자들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이러저러한 형태의 계급 투쟁 속에서 진행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우리 당이 제기한 중 소 기업가들에 대한 제한, 리용, 개조 정책은 이 투쟁의 형식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착취자들에 대한 이와 같은 평화적 개조 방법은 계급 투쟁에 관한 맑스—레닌주의 리론의 우리 나라에서의 창조적 적용이다.

상업에 있어서도 사회주의적 소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87.3%이며(1956년 말) 나머지 부문에 있어서도 농민 시장에서의 생산 판매 협동 조합, 농민들의 거래를 제외한다면 사자본주의적 부문이 극히 적은 것이 명백하다.

이상과 같이 오늘 사회주의는 인민 경제의 각 분야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하고 있는바, 이리하여 우리 나라 인민 경제 각 부문에서는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확립되였다. 오늘 공화국 북반부의 경제 구조는 다우클라드로부터 단일한 사회주의적 우클라드에로의 과도가 완성되여 가고 있다.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결정적 승리는 우

리 나라에서 계급 구조를 현저히 변경시켰다. 공화국 북반부에서 주민의 대다수는 사회주의적 근로자로 전변되였으며 착취 계급은 기본적으로 제거되였다. 북반부에는 로동 계급과 농민 계급 그리고 근로 인테리가 있는바 이는 사회주의 사회의 주인으로 되는 사회적 그루빠이다.

3개년 계획 기간에 로동자, 사무원들의 수는 급속히 장성되였다. 1956년에 인민 경제 각 부문의 평균 재적 종업원 수는 80만 8천 명에 달하였는데 이는 1953년에 비하여 23만 4천 명, 전쟁전 1949년에 비하여 24만 3천 명이 증가된 것으로 된다. 이 기간에 1만 1천 여 명의 기술자, 3만 2천 여 명의 기능자들이 새로 생산에 참가하게 되였다.

개인 농민들도 협동적인 사회주의적 농민으로 전변되였다.

이상과 같이 변동된 사회—경제적 기초 우에서 로동 계급의 령도하에서의 로농 동맹은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되였으며 이 로농 동맹에 기초한 우리 인민의 통일과 단결은 한층 강화되였다. 프로레타리아트 독재의 지반은 더욱 공고 확대되였다.

이러한 제 변화는 공화국 북반부의 생산력 발전에 거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것은 생산 수단에 대한 사회적 소유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사회 생산력 발전에 광활한 활로를 열어 주며, 근로 대중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창발성을 마음껏 발휘케 하고 생산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강력한 자극을 조성함으로써 생산력 발전에 커다란 추동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공업 생산은 1957년에 전쟁전에 비하여 2.8배로 장성하였으며, 1957년 한 해에 전년에 비하여 실로 144%로 장성하였다. 이러한 장성 템포는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높은 장성 템포이다. 여기에는 특히 우리 나라 인민 경제 각 분야에 확립된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의 우월성과 함께 중공업의 우선적 장성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고 있는 우리 당 경제 정책의 거대한 생활력이 과시되여 있다는 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농업에 있어서도 사정은 동일하다. 우리 나라 농촌에서 사회주의가 결정적으로 승리한 1957년에 알곡 수확고는 우리 나라의 최고 수확 년도였던 1956년도의 111.4%인 320만 톤에 달하게 되였다.

이렇듯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경제적 기초의 근본적 변화는 생산을 급진적으로 장성 발전시키고 있다.

오늘 사회주의적 생산 관계가 지배하고 있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당의 정확한 령도하에 우리 근로자들이 온갖 열성과 재능을 다하여 제 1차 5개년 계획의 웅대한 과업을 성과있게 실행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정정: 본지 4호 15페지 우단, 2행 《1956년》을 《1958년》으로, 26페지 우단, 19행 《15%》를 《17%》로 각각 정정함.

《근 로 자》 제 5 호 (루계 제150호)

편집 위원회

발행소 근 로 자 사　　인 쇄 1958년 5월 10일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발 행 1958년 5월 15일

ㄱ—40 935　　값 45 원